東草文化

84／創刊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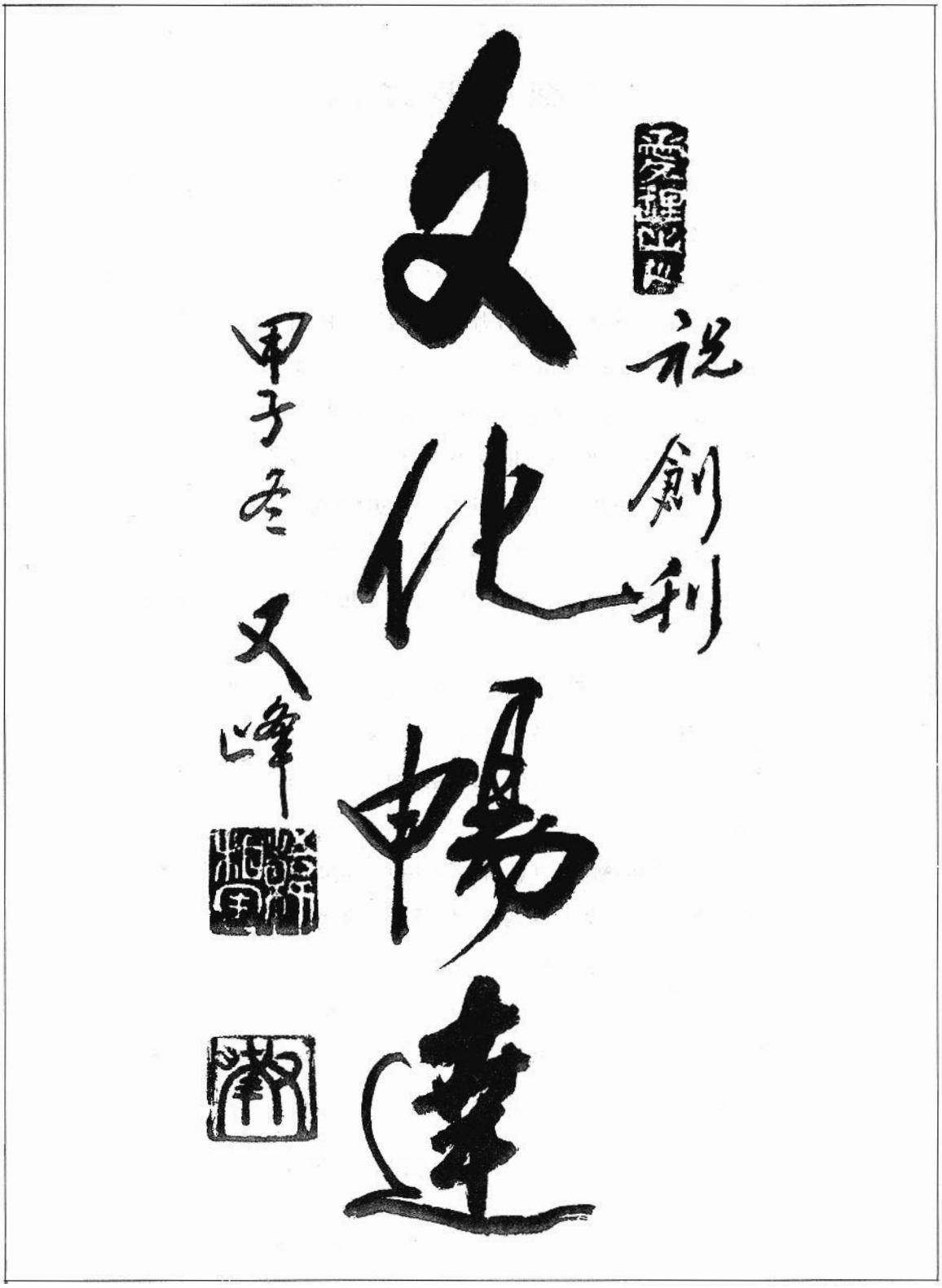
東草文化院

雪嶽山 케이블카

會　　長　韓　丙　起
代表理事
社　　長　金　亨　東

雪嶽觀光(株)케이블카

所在地：江原道 束草市 雪嶽洞 170番地
電話：7－7365


文化暢達
祝創刊
甲子冬 文峰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 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 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 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속초 등대 뒷산에서
열린 연날리기대회

文化院
行事

84년에 처음열린 민속경연대회에 13개팀이 출전, 연인원 8만여 시민이 참관했다.

金鍾祿 문화원장이 한시 백일장 입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題　字：金 澈 洪
表紙畵：金 光 秀
祝刊揮毫：韓 相 甲

창 간 호　目　次

創刊祝詩 ……황 금 찬 / 6
創刊祝詩 ……李 聖 善 / 56

創刊辭 □文化民族의 矜持를 살리자 ……金 鍾 祿 / 7
祝刊辭 □地域發展의 原動力이 되도록 ……梁 鍾 釋 / 9
祝刊辭 □鄕土를 사랑하는길 ……金 榮 洙 / 10
祝刊辭 □옛것을 찾으려는 노력 ……鄭 在 哲 / 11
祝刊辭 □우리고장의 文藝復興 ……許 景 九 / 12

論　壇

東草文化의 비전 ……韓 相 甲 / 14
東草教育의 現況·실태 및 당면課題·李 承 根 / 16
이고장 교육발전의 당면과제 ……金 雲 天 / 19
東草文化의 장래 ……尹 弘 烈 / 21
수산업발전과 水協의 役割 ……신 영 철 / 23
觀光開發과 지역주민의 所得增大方案에 관한 一考 ……李 沅 宰 / 27

對談：雪嶽圈과 속초개발을 위한 緊急動議 …… / 30

□특별기고 … 그리운 내고향 □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은 창조인이다 ……金 南 星 / 33
故鄕은 나의 乳線 ……金 鍾 昊 / 34
東草收復의 歷史的의의 ……李 建 錫 / 35

□현장을 찾아서 □
雪嶽山 神興寺의 由來 ……金 慧 法 / 43
永郎湖와 동방레저타운 ……崔 龍 文 / 46
靈琴亭의 由來와 傳說 ……金 鳳 春 / 47
青湖洞의 나룻배 ……董 文 星 / 48
수복기념탑의 由來와 復元 ……池 一 權 / 49

□나의 提言 □
노인들도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 …金 鎔 基 / 52
향토문화의 토대다지기를 ……金 亨 東 / 53
봉사활동 ……千 炳 順 / 54
反共의 前哨都市 …… / 55

□국립공원 雪嶽山 (外雪嶽編) ……朴 益 勳 / 57
□내고장 人物：吳潤煥의 교육사상 ……吳 世 夏 / 64
⊙東草市 沿革 …… / 66
○구라파 紀行文 ……金 光 秀 / 68
○解放神學을 바라보며 ……李 相 國 / 75

東　草　文　化

文化界 動靜 / 78
초대詩　이 都市의 飛翔을 보라 ……朴 明 子 / 80
초대詩　봄의 序詩 ……김 종 영 / 82

'83년 설악제 白日場 입상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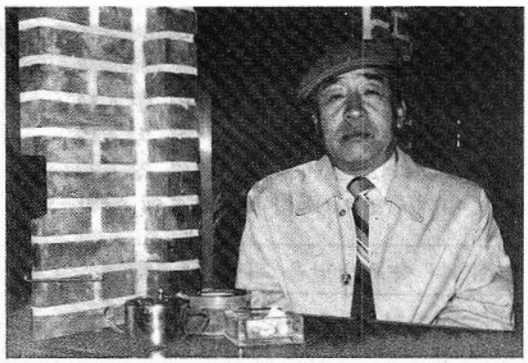
가을산 ……문 상 혜 / 84
코스모스 ……김 초 심 / 85
밤 ……황 원 근 / 86
길 ……황 순 옥 / 87
들국화 ……진 미 랑 / 88
바　다 ……남 현 주 / 89

○東草文化院 任員 …… / 90
○東草文化院 沿革 …… / 92
○84主要事業計劃 …… / 93
○84主要事業實績 …… / 93

創刊祝詩

설악은 춤추고 있는가

황 금 찬



신라의 빛나는 정성의 시대
여기에 四仙이 놀았는가
영랑이여!
그리고 안상, 남랑,
술랑이며 바다물결에 춤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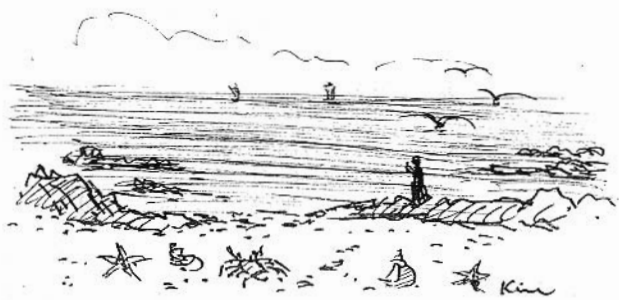
신기로운 구름이 학의 무리를 타고
영랑이 호수에 내리면
하늘의 선녀들이
무지개 빛 악기 울리며 내려오고
동해의 풀각씨
요정처럼 옷깃 날리여
불멸하는 합창 합창
울리어라. 울리였어라.

영봉을 타고 내리는 바람과
골과 골을 메운 전설이며
바다같은 인심은

열녀각이며
효도의 비문을 날리고
철새들도
한번 오면 다시 찾는
정드는 땅
동해의 얼굴이여라.

문화는 가꾸는 꽃이요,
지키는 성문이여라.
산천에 정이 어린
고향의 문화꽃을 가꾸고 지키려는
마음들이 모여
작은 횃불을 올리나니
동해의 목탁이 되라.
시작은 이미 반이 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일관 하시라.
일관 하시라.

1984. 8.



文化民族의 矜持를 살리자

-故鄕을 그리는 마음의 定着地로-

김 종 록
속초문화원장

우리 고장 束草를 가리켜 天惠의 觀光資源이 豊富한 곳이라 한다. 太白山脈에 우뚝솟은 雪嶽山이 있고, 市街地를 중심으로 南과 北에 青草湖와 永郎湖,. 尺山温泉이 있다. 또 바다에 접하여 있으며, 우리 周圍에는 古刹과 名勝地로 해서 國際的인 觀光施設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이는 다시 말할필요없이 우리 고장이 山紫水明한 天然의 惠澤을 누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經濟的으로나 文化的으로 그 여건이 充分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 民族에게는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38線과 6·25의 참화로 市街地는 焦土化되고 住民들은 각기 뿔뿔이 흩어지고 이북 失鄕民들은 물밀듯이 北進하는 國軍을 따라 夢寐에도 잊지 못할 故鄕의 父母兄弟와 妻子息을 그리는 마음에 한치라도 故鄕 가까이에 살고자 이곳에 모여들었지만 休戰이 되어 안타깝게도 故鄕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갈 수 없는 이산가족의 슬픔이 시작되었다.

그분들이 이곳에 定着하게 되니 共産治下에서 收復된 新興都市로 內外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후 收復된지 30餘年, 옛 말에 "十年이면 江山이 變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江山이 세번 네번은 變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안타까운 30여년간, 70年代 初에 접어들면서 점차 安定된 土臺 위에 定着하게 되면서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第二의 故鄕뿐만 아니라 그 後孫들의 故鄕이 된 것이다.

이런 변천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는 外國文物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70年代 後半에 經濟發展이라 하여 物質萬能으로 번져가 物質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思潮가 생겨 유구한 五千年 文化民族의 矜持를 잃어버릴 위협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側面에서 볼 때 民族傳統 文化藝術을 정립시켜 자기를 알고 地域社會는 물론 더 나아가서는 國家, 祖上의 슬기로운 얼이 담긴 土俗的인 民族香氣가 물씬 풍기는 傳統文化를 우리의 精神的인 支柱로 삼아 主體性을 鼓吹시켜 넓게는 世界를 향하여 韓國人의 雄飛의 날개를 넓고 높은 창공에 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文化藝術施策이 中央集中現象을 가져왔으나 '80 年代에 들어서면서 政府의 地方文化 창달에 힘입어 우리 고장에서도 어설프긴 하지만 무엇인가 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보아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雪嶽의 精氣를 받고 玉石같은 맑은 물에 뼈가 굵은 東草人들의 銳智와 슬기를 모아 내 고장 발전에 獻身하여 주기 바라며, 『東草文化』를 펴내면서 이를 契機로 우리 고장의 傳統文化藝術의 發掘과 文化都市의 길잡이 役割을 다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또, 나아가서는 이 『東草文化』로 하여금 京鄕各地의 우리 東草人들의 對話의 廣場이 되길 빌어마지 않는다.

祝 刊 辭

地域發展의 原動力이 되도록

梁 鍾 釋
束草市長

太白의 精氣가 우리 고장 雪嶽에 凝結되어 있음은 우리의 큰 자랑입니다.

根源없는 물이 없고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6·25 戰禍로 焦土化된 이 漁村을 오늘날의 文化觀光都市로 跳躍케 한 것은 故鄕의 뿌리 찾기라는 깊고도 獻身的인 活動에서 비롯되어졌음을 되새길때 이번 束草文化院에서 지난날의 변천상을 再照明하여 鄕土固有의 情趣와 風流 그리고 鄕土人의 氣像과 文化遺産을 發掘하여 地域文化의 傳統을 繼承發展시키고 後孫에 길이 傳하기 위해 이번에 市民들의 뜻을 모아 鄕土誌를 創刊하게 된 것은 이 地域의 發展을 위해 매우 慶賀스러운 일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地域文化事業은 鄕土文化라는 連綿한 歷史의 수레바퀴속으로 市民들을 吸入하여 同質感과 歸屬感을 意識하게 하고 愛鄕心을 胚胎시켜 地域發展을 加速化시키는 原動力이 되게 한다는 點에서 무엇보다 重要한 事業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 자랑스러운 事業이 꾸준히 이어나가 우리 市民들이 矜持와 보람을 가지고 地域發展에 率先參與하여 이 地域이 全國에서 가장 밝고 豊饒로운 國際的인 觀光文化都市로 發展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이 冊子 創刊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勞苦에 새삼 感謝와 致賀를 드리고 束草文化院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면서 創刊辭에 가름합니다.

鄕土를 사랑하는길

金 榮 洙
束草市教育長

몇해전 言論의 調査에 따르면 全國에서 束草가 살기좋은 곳의 하나로 選定되였음을 보았읍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錦繡江山이라 일러 왔으니 그 어느 곳이 아름답지 않으리요마는 雄壯하고 아름다운 山川溪谷을 지닌 雪嶽山과 푸르고 깨끗하기로 이름난 東海岸中心地에 束草가 자리잡은 것은 神께서 베푸신 恩寵이라고 여겨집니다. 八域誌를 쓴 朝鮮時代의 李重煥은 韓國의 名山으로 열두 곳을 들었는데 첫째가 金剛山이요, 둘째가 雪嶽山이라 했고 湖岩 文 一平은 韓國의 山水에서 雪嶽山의 大乘瀑布를 神瀑이라 했으니 예로부터 雪嶽山은 우리 겨레의 마음의 故鄕이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山川만으로 이곳 束草가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그 고장의 人心은 그 自然을 닮는다 했으니 山川이 美麗한 곳에 人心이 溫厚하고 넉넉하며 훌륭한 人材가 많이 輩出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입니다.

그런데 이런 自然의 아름다움 속에서 빛나는 傳統文化와 傳承民俗이 많이 傳來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周邊을 잘 살펴보면 寺刹의 遺蹟을 비롯해서 漁夫들이 부르는 民謠라든가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豊漁祭 및 北靑사자놀이 같은 것이 傳해지고 있으므로 이 고장의 傳承文化를 발굴하고 理解하며 새로운 鄕土文化를 創造 發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重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곧 우리 鄕土를 사랑하는 길이요 愛國愛族하는 길입니다. 今般 束草文化院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鄕土誌를 發刊하여 이 고장의 發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努力에 대하여 祝賀와 感謝를 드리며 이 資料가 우리 고장 發展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祝 刊 辭

옛것을 찾으려는 노력…

鄭 在 哲
(國會財務委員長)

우리 고장의 文化를 상징하는 "束草文化"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束草市는 다른 고장에 비하여 傳來돼 온 文化遺産이 빈약한데다 6·25 동란으로 인해 그러한 유산마저 모두 소실돼 우리의 고유한 멋과 가락,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 고장의 옛것들을 찾으려고 뜻있는 人士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를 같이하여, 束草文化院에서 우리 고장의 綜合文藝誌인 "束草文化"의 創刊을 보게 된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束草市는 다른 고장에 비하여 人口나 經濟力등 市勢는 빈약한 편에 속해 있지만 각종 文藝創作分野에는 精進하는 분들이 많아 시인·소설가·연극인들이 맡은바 위치에서 많은 활동으로 우리 고장을 빛내고 있음은 실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10월 1일에 幕이 올랐던 제19회 雪嶽祭 및 제2회 束草市民의 날 行事에 첫선을 보였던 각종 農樂놀이와 "논뫼호의 불꽃놀이"는 우리 속초시민들이 우리의 옛것을 찾으려는 探究努力이 빚어낸 結實이라고 생각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마음이 든든한 바를 느끼고 있읍니다.

우리 고장 束草는 천하절경의 國立公園 雪嶽山을 가지고 있어 그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맑고 푸른 一望無際의 東海, 그리고 南北으로 우리 고장을 둘러싼 靑草湖와 永郎湖는 우리 고장 출신들이 創作에 뜻을 두고 修鍊을 하기에는 가장 알맞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곳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 고장이 文化活動에 起爆劑의 구실을 담당하게 될 "束草文化"의 創刊은 예술활동에 뜻을 둔 文人들의 共同參與의 광장으로서 우리 고장 文化에 發展의 밑거름이 되고 跳躍臺로서의 계기가 된다면 이는 우리 8만 시민들이 바랐던 큰 뜻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世界史를 돌이켜 보아도 文化的 遺産을 남긴 國家나 民族이 人類를 위해 공헌했던 事實과 그렇지 못했던 國家와 民族이 어떻게 되었던가를 우리는 충분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文化國民은 되도록 빛나는 文化的遺産을 남기기 위해 不斷한 努力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創刊號로 發刊되는 "束草文化"는 앞으로 1年 2回로 나누어 發刊이 돼 많은 同好人들의 參與로 그 發展이 더해갈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좀처럼 한권의 책을 펴내기 어려운 實情을 克服하고 우리 8萬市民들의 文化의 얼굴인 "束草文化"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勞力을 아끼지 않으신 束草文化院 金 鍾綠 院長을 비롯한 文化院任員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本誌를 위해 玉稿를 내주신 執筆者여러분께도 뜨거운 경의를 보내며 끝으로 이 "束草文化"가 市民의 文化의 꽃으로 永遠無窮토록 續刊되길 祈願합니다.

祝 刊 辭

우리고장의 文藝復興

許 景 九
(國會議員)

今後 속초향토문화의 進興을 위하여 東草文化院에서 이 고장의 향토문화부흥을 이룩하고자 「東草文化」誌를 창간함에 있어 모든 市民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歷史는 時代의 발자취로서 時代像을 나타내며 문화는 한 時代的인 素材로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지역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遺産입니다. 특히 향토문화는 향토민의 立地條件에 의하여 고유한 특성으로 지방문화는 창달되며 주위환경과 地方土色(風土)에 따라 인위적인 표현(言語)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장은 해방후 6·25의 戰雲에 휩싸여 고향을 등지고 失鄕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고장의 향토문화는 지방문화의 不毛地로서 戰後世代 住民들에게는 鄕土愛를 갈구하는 의미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精神的인 향토문화의 얼이 소외시되는 사회적인 경향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自古로 自然과 人間과 文明은 불가피한 관계로 볼 때 우리 고장의 文藝復興은 교육적인 面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소재로하는 天然의 要地로서 文學·藝術의 터전을 創出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東으로 위대한 바다와 太白의 등줄기에 우뚝솟은 雪嶽의 절경은 가히 우리 고장의 자랑이며, 향토의 원색입니다.

여기에 향토문화를 토착화하는 사업은 鄕土人으로서 바라는 바 矜持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설악제를 위시하여 좀 더 정진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이 유서깊은 향토의 심취로 祖上의 얼을 찾고 향토애로써 자연의 景觀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 기회에 내 강토를 아름답게 가꾸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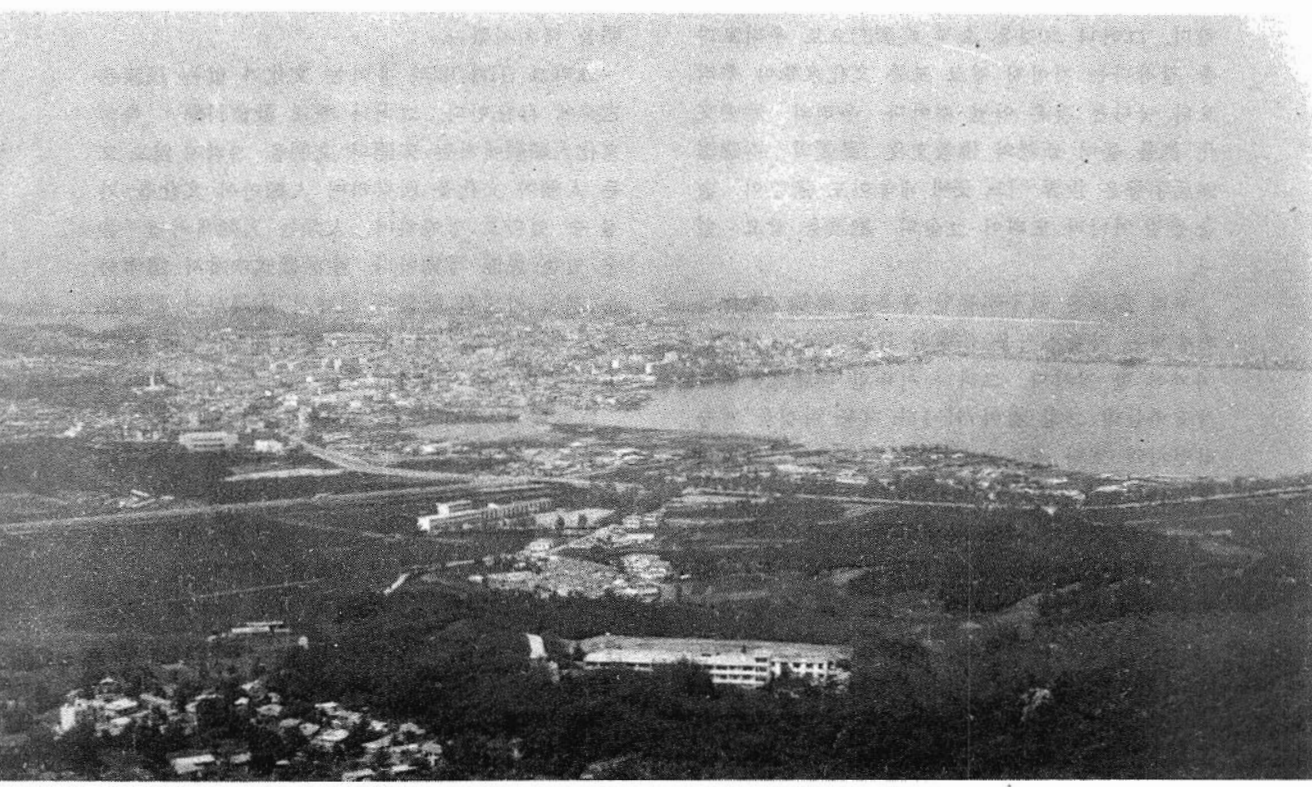
이 뜻깊은 향토문화의 창달에 市民 여러분과 本人은 이를 계기로 삼아 自發的인 향토문화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향토문화의 전통을 세워 東草文化의 터전을 구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합시다.

이번 鄕土文化誌 창간에 분투노고하신 金 鍾祿 東草文化院長님과 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 고장 東草鄕土文化가 동해에 타오르는 힘찬 太陽처럼 우리 子孫萬代의 정신적 支柱를 여기 향토위에 심는 創業으로서의 빛을 「東草文化」誌와 더불어 모든 市民이 누리고 보다 來日을 기약할 수 있는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빌면서 성원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東草文化

논 단

속초문화의 비전 / 韓 相 甲
속초교육의 現況實態 및 당면과제 / 李 承 根
이고장 教育發展의 當面課題 / 金 雲 天
地方文化藝術의 活性化 / 尹 弘 烈
水産業 발전과 水協의 役割 / 신 영 철
觀光開發과 所得增大방안에 관한 小考 / 李 沅 宰



□論 壇□

東草文化의 비전

韓 相 甲(東宇專門大學學長 文學博士)

한 國家發展의 價値를 評價하는 基準은 그 나라 民族文化 發展如何에 둔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各 地方의 특색있는 鄕土文化를 硏究開發함으로써 그것이 集約되어 하나의 民族文化를 形成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요즈음 항용 잘사는 이웃나라를 先進國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經濟的으로 우리보다 좀 잘산다는 것이지 결코 모든 文化水準이 우리보다 낫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過去文化 例를 들어 新羅의 佛敎文化 高麗의 靑磁器 銅活字등은 世界 어느 곳에 내놓아도 遜色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絶讚을 받고 있다.

우리 民族은 數千年동안 훌륭한 傳統 文化를 계승해온 자랑스러운 倍達의 民族이라는 矜持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傳統文化만을 자랑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이것을 계승발전시켜 보다 새로운 文化를 創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文化란 과연 무엇인가, 文化의 槪念을 모르고 文化를 論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辭典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文化란 원래 라틴말로 "cultura"가 英語로 "culture"로 변한 것이다. 본래는 耕作 또는 栽培라는 뜻인데 나중에 敎養藝術이란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 一般的으로 歐美風의 要素로서 現代的 便利性 (文化生活, 住宅등) (2) 높은 敎養과 심오한 知識, 세련된 生活, 優雅한 藝術風의 要素(文化人, 文化財, 文化國) (3) 人類의 價値的 所産 으로서 哲學, 宗敎, 藝術, 科學등이다. (3)의 용어는 獨逸의 哲學이나 社會學의 傳統的인 것이며, 人類의 物質的인 所産을 文明이라 부르고 文化와 文明을 대치시켰다.

그리고 (1)과 (2)의 용어는 文化가 없는 民族은 古今에 存在한다. 그러나 현재 社會科學 특히 文化人類學에서는 未開와 文明을 가리지 않고 모든 人類가 文化를 所有하며 人類만이 文化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人類는 人類에서만 볼 수 있는 思惟 行動이다. 生活樣式中에서 遺傳하는 것이 아니라 學習에 의해서 所屬하는 社會로부터 習得하고 傳達받는 사람들의 것 全體를 포함한 總稱이라 하였다.

그런데 19세기 終葉 獨逸의 콜렘은 文化란 「慣習, 인포메이션, 技能, 平時 戰時의 國內的 公共的生活, 宗敎, 科學 및 藝이며 이는 새로운 세대에 대해 과거의 經驗을 傳達하는 속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全的 定義를 내렸다.

그리고 타일러가 1971年에 내린 文化의 定義도 이와 같으며 文化의 重要性이 社會의 일원으로서 人類에 의해 獲得된 能力과 習慣에 있다고 하였다.

이제 文化의 槪念이 대체로 밝혀졌다고 생각되며 얼마나 광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東草市文化라면 그것은 一種의 鄕土文化일 것이며 東草市民에 의해서 硏究開發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東草市는 人口 8萬을 헤아리는 新生都市이다. 그리고 市民들의 분포를 보면 다른 市와는 달리 失鄕民들이 중심이 되고, 各地에서 모여든 주민들로 形成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타향도 정이 들면 내 고향된다는 말과 같이 내가 定着해서 사는 곳이 바로 나의 故鄕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저 東明洞 바닷가에 建立된 收復塔은 온 속초시민들의 정성이 담긴 마음의 상징이며, 분단된 國土統一의 念願이 담긴 塔이다. 이 民族 어느 누구인들 統一의 念願에 歸一하지 않는 이가 있겠는가. 저 收復塔을 建立하던 精神으로 온 시민이 團合해야할 것이다.

이제 東草市라면 漁港의 都市, 觀光의 都市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文化의 都市, 敎育의 都市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가지 附言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新生 都市로 가꿀바에는 좀 個性이 있고 固有의 美를 살릴 수 있게 計劃되었으면 한다. 요즈음 京鄕을 막론하고 建物의 樣式이나 모든 生活樣式까지도 西歐一色인데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요즈음 수많은 外國人들이 찾아오는 觀光의 都市이니만치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計劃性이 있어야 할 것이다. 盲目的인 西歐의 모방은 도리어 그들의 조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모방이 아닌 우리 固有의 傳統的인 藝術 그 자체인 것이다. 筆者는 지금이야말로 韓國의 文藝復興을 提唱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韓國의 멋과 얼을 찾아야 할 것이다. 거리에 高層建物만 즐비하고 生活하기 편리한 現代的 施設만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文化生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文化란 어디까지나 精神的인 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畵龍點睛이라는 말이 있거니와 아무리 經濟的으로 富裕하게 산다 하더라도 人間自身이 文化人답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눈이 멀은 龍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이곳에 大學이 設立된 것은 이 地域社會發展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勿論이요 同大學에 附設된 東草老人大學, 主婦 大學의 運營은 直接的으로 市民들의 文化向上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事實은 누구도 否定하지 못할 것이다. 얼마전에는 市立圖書館이 起工되었으며 文化院에서는 本鄕土誌를 創刊하게 되었다.

이 모두가 東草市의 文化發展에 主役이 되리라고 믿는다. 文化란 人間에 限해서만 論할 수 있는 것이니 먼저 人間으로서의 姿勢를 갖춘 다음에 비로소 個性에 따라 모든 分野의 學問과 藝術이 硏究되어야 할 것이다. 온 市民의 一言一動이 文化人으로서의 水準에 到達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일 것이다.

觀光都市인 이 地域은 1년중 觀光客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을 찾아가더라도 親切하고 명랑하며 敎養있는 態度로 대할 줄 아는 市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온 國民의 意識問題이지마는 유원지 거리秩序 나아가서는 讀書할 줄 아는 習慣, 敬老愛幼의 精神…이 모두가 文化人으로 갖추어야 할 敎養들이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 언젠가 日本人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雪嶽山 구경을 하고 거리를 걸어오다가 세 살쯤 된 아우가 과자를 까먹고 휴지를 거리에 버리는 것을 약 다섯 살쯤 되는 형이 보더니 주우라고 命令을 하니까 아무 말없이 그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더라는 것이다.

이 한가지를 미루어 보더라도 이웃나라 日本이 어떻게 敎育되어 있느냐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兒童은 그만두더라도 旣成人들 自體가 無關心한 狀態가 아닌가 싶다.

事業을 經營하려면 응분의 投資와 施設이 필요하지마는 文化人이 되는 것은 自己의 마음 가짐 여하에 달려 있음에도 不拘하고 어찌하여 自暴自棄를 하는가, 깊이 反省해야 할 問題이다.

그리고 個性에 맞는 學問과 藝術을 택하되 韓

國的인 素材를 中心으로 硏究開發하고 機會있는 대로 發表會를 가짐으로써 市民들의 意欲과 關心을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며 또는 敎養, 學術講演會를 수시로 開催하여 市民들의 知識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市民會館, 展示館등 文化活動을 할 수 있도록 施設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게마련이다. 雪嶽의 峻峰처럼 凜凜한 氣象과 東海의 波濤처럼 脈動하는 希望을 가슴에 안고 온 市民이 團合하여 새로운 都市의 建設과 아울러 새로운 鄕土文化發展을 위하여 總力을 경주 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東草敎育의 現況·實態 및 當面課題

— 敎育의 質的向上을 위한 斷見 —

차 례

Ⅰ. 地域社會發展과 敎育의 發展
Ⅱ. 東草敎育의 現況과 分析
Ⅲ. 東草敎育發展의 當面課題

李 承 根
(東草高等學校長)

Ⅰ. 地域社會發展과 敎育의 發展

現代社會는 急激하게 변화하고 있다. 科學과 人知의 發達을 통한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은 불확실한 未來가 예고될 정도로 上昇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知識을 필요로 하는 社會的 與件과 時代的 요청에 적응하기 위한 自己삶의 構築과 知識의 社會化라는 측면에서 學校의 機能과 사명감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즉, 社會的 變化는 필연적으로 교육에 주어지는 社會的 期待水準을 크게 변모시키고 있으며 敎育目標에 대한 再定立까지도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확실히 우리의 國家·社會는 이러한 變化와 發展의 持續과 加速化를 위한 原動力을 敎育의 量과 質 속에서 찾고자 하고 있으며, 良質의 敎育을 받은 우수한 두뇌의 社會的 供給을 절실하게 敎育機關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敎育이 發展을 위한 先導的 임무를 수행함

은 國家發展 側面뿐 아니라, 地域社會의 經濟·社會·文化的 諸條件을 개선하려는 그 地域社會 住民의 열망과도 밀접한 關聯性을 갖는 未來指向的 目標이기도 하다.

地域社會發展은 그 地域社會에서 많은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養成·輩出될 때 더욱 바람직하다. 이것은 教育의 社會的 責任이기도 하다. 地域社會內에서의 教育의 역할을 깨달아, 地域 社會의 諸 問題를 革新하고자 教育的 努力은 集中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教育의 發展要因과 그 當爲性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에 民主主義가 뿌리를 내리면서 民主主義的인 社會秩序가 國民으로 하여금 教育機會를 가지도록 하였다. 民主的인 生活方式과 思考方式은 개인으로 하여금 社會의 發展을 위한 自覺과 熱望을 가지게 하였으며, 教育이 바로 個人과 社會의 發展을 위하는 중요한 手段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社會構造의 變化이다. 전통사회에서 民主的인 社會로 옮겨지면서 개인은 教育을 통해서 能力을 갖추게 되면 社會的·經濟的 만족을 얻게 된다는 信念이 일반적이었고, 그리하여 教育의 중요성은 더욱 強調되었다.

셋째, 經濟構造의 高度化로 말미암아 教育받은 인력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되어, 教育의 機會가 더욱 넓게 되고 制度化되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한 國家는 물론 어떠한 社會이든지 그 처한 現實과 與件의 미흡을 개선하고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노력을 教育發展과 성숙을 통해 實現하고자 하는 것이다. 教育이 社會存續的 機能보다 社會革新的 機能을 충분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물론 좁게는 地域 社會 입장에서 볼 때에도 「有限한 資源을 극복하고 國家나 社會를 무한한 創意的 發展으로 지향하는 길은 오직 人的資源의 教育水準向上과 人材養成에 있다」는 말에 우리는 깊은 共感을 둘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Ⅱ. 束草教育의 現況과 分析

現在 束草에는 專門大學 1個校를 포함하여 國民學校 9個校, 中學校 4個校, 高等學校 3個校, 總 17個校에 달하는 教育機關이 있다.

〈 교육시설현황 〉

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계
수	9	4	3	1	17

(속초시통계연보)

이 외에도 취학전 유아교육시설을 포함한다면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대부분의 教育機關들이 60년대 이전에 設立되었으나, 그 후에도 꾸준히 中央國民學校(62. 9. 5), 束草女高(63. 2. 22), 설악중(66. 12. 23), 교동국민학교(68. 12. 4), 조양국민학교(70. 12. 31), 束草商高(69. 11. 22), 설악여중(71. 1. 16), 설악국민학교(74. 3. 1) 등이 新設되었고, 1980년대에는 동우전문대학이 세워져 이 地域은 물론, 인근 주변까지도 專門教育의 機會가 擴大되었다.

學生數에 있어서도 都市人口 集中現象이 보편화된 他 都市에 비하여 人口의 增加幅이 미약한데 견주어 보면, 학생수는 人口變化에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學生數의 增加가 人口의 증가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人口數에 대한 學生數의 比率이 1970年代 후반까지도 25%線이던 것이 1980年 이후 30%의 높은 增加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속초시 학생 인구변동 추세·현황 〉

구분 \ 년도	'63	'70	'80	'83	비고
인 구	55,619	73,096	65,798	72,324	
국민학교	9,808	13,759	10,273	8,969	
중 학 교	1,377	3,239	5,226	5,419	
고등학교	575	1,209	3,126	4,168	

학생총수	11,760	18,207	18,625	18,556
인구 (%) 학생총수	21.1%	24.9%	28.3%	25.7%

(속초시교육청자료 재구성)

이상의 도표를 참조하여 보면, 教育機關의 新設 및 學生人口의 增加는 束草教育의 量的 成長을 실감하게 할 뿐 아니라, 地域住民들의 科育熱의 향상과 더불어 教育에 대한 期待水準의 高度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上級學校의 進學率이 두드러지고 人文系 高等學校 신입생의 경우 束草市外의 地域에서 통학하는 학생수가 매년 늘어간다든지, 서울 등지로의 大學進學數의 增加 또한 束草教育이 量的으로 현저한 變化를 보이는 등의 추세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量的 側面에 이어 質的인 側面에 대해서도 論해 보기로 한다.

우리 束草地方은 오랜동안 文化不在의 評價를 받아왔다. 심지어는 낙후의 대명사처럼 소외되기도 했다. 이는 나아가 教育不在와 非活性的認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즉 天然의 自然的 文化를 제외하면, 傳統的인 〈선비〉 崇拜思想의 뿌리가 약하였거나 學風의 분위기가 드높지 못하여 여러 가지 社會的 側面에서 人文의 발달이 停滯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其實, 嶺東地方의 文化·教育 等의 중심에서 더욱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束草는 教育의 質的側面에서 새로운 轉換期를 마련하기 위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交通과 情報體制의 便利, 人的資源의 大都會地와의 交流, 全國的 추세인 教育熱의 영향, 현실적으로 學父母들의 教育을 통한 成就動機의 向上과 기대치의 增加幅, 愛鄕心 高潮 및 지역사회 발전의 필요성, 嶺東地方의 중심으로서의 활발한 도시광역 기능화 등이 教育의 水準向上에 밑바탕이 되면서 教育熱로 승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教育의 質的 向上이라는 목표에서 보면 발전을 위한 初步的 基盤造成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그러한 教育依存度에 呼應해야 할 教育機關으로서의 학교는 教育與件의 미흡함이 散積하여 있음 또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그러한 例로서 教育의 財政的 投資에 의한 教育與件의 改善實態를 살펴볼까 한다. 教育에 있어서 量的 增加에 적절히 대처하고 教育의 質的 改善을 위해 教育的 投資는 그 필요성이 부연될 것도 없으리라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45年을 기준으로 중등학교의 학생수가 약 35배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로 量的인 面에서 폭발적인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學校에서의 施設投資 配分費를 비교해 보면, 유럽 선진국들은 72%인데 반하여 우리는 겨우 31.43%로서 教育投資面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 각급학교에서는 公教育費 支出來譯別 構成費의 대부분은 人件費에 소요되어 施設費는 總額의 國民學校 경우 6.8%, 中學校 7.1%, 高等學校가 13.8%로서 낮은 投資率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教育稅 新設 등으로 投資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높은 教育 人口를 수용하고 學習시킬 施設은 부족하거나 낡은 그대로가 방치되어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束草教育의 現況이 전국적인 平均水準이거나 그 이하라고 간주할 때, 앞서 지적한 바 束草地域社會의 고조되어가는 教育熱을 질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단편적이고 비록 一角에 지나지 않지만, 束草教育의 역사적 바탕이 짧음에 비추어 볼 때,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發展을 이룩했거나 進行中인 諸要素를 가볍게 評價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성과와 발전의 이면에 여러가지 脆弱點들이 내포되어 散在하고, 이는 다른 教育的 問題點들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시인하고 그 개선의 努力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다.

Ⅲ. 束草教育發展의 當面課題

오늘날 國家와 社會가 教育에 대해 요구하는 바는 다양성과 광역성을 띠는 것 같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1. 이데올로기의 對立激化 및 民族統一에의 念願增大에 따른 民主社會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信念培養과 同一體意識 고취.

2. 국제경쟁의 加熱 및 國民共同體意識의 고양을 위한 價値觀 內面化 教育으로서의 道德教育과 國民精神教育의 역할 증대.

3. 科學·技術의 發展에 따른 인간소외현상의 深化現象을 극복하기 위한 教育의 價値體系 確立 및 人間教育의 重要性 부각.

4. 急激한 社會發展에 따른 社會問題 發生의 추세에 대한 道德的 秩序의 確立, 文化價値의 正體性認識, 人間性回復의 實現.

5. 知識, 情報量 팽창의 가속화에 따른 적응력 배양을 위한 教育內容의 全面的 대책강구 및 教授方法 改善

6. 初中等學校 教育人口의 上向的 波及과 이질화 증대에 따른 教育環境 改善, 制度自體의 改革의 構築.

7. 教育의 責務性에 대한 認識이 高潮됨에 따라 學生·教師·行政家 그리고 社會나 學父母 相互間에 信賴感을 形成하여 相互尊重의 態度 高揚.

8. 教育福祉 實現에 대한 要求의 增大에 따른 教育正常化 措置의 필연성과 教室改革.

이상의 教育目標에 부응하는 우리 束草地域의 當面課題를, 특히 教育의 質的 향상이라는 觀點에서 제시하여 볼까 한다.

첫째로, 學生들의 건전한 自律的 成長을 위한 國民精神 및 人間化 教育이 강화되어야겠다.

健全한 國民精神을 形成하는데 있어서 合理的 思考의 能力과 習慣을 개발해야 한다. 自律化 措置이후 청소년 지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대책과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더우기 雪嶽山 地域開發과 휴양지시설의 광역분포, 타 도시에 비교했을 때 都市機能上 數的으로 우세한 각종의 非教育的인 유흥업소의 산재 등은 학생 탈선을 加速化하고 있으며, 學生生活指導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學生中心의 교육에서 소홀하기 쉬운 道德的·倫理的側面의 人性教育을 위하여, 國民精神教育 內容의 適合性 提高와 그 方法刷新 그리고 教育內容의 社會化를 위한 社會適應教育의 體系化 等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確立하고 內面化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둘째로, 소명감있고 영향력있고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교원이 확보되어야겠다.

教育의 質은 바로 교사의 質的 能力이 결정한다는 理論은 이제 상식적 논리가 되었다. 教師의 專門化와 精銳化는 教職의 社會·經濟的 地位向上과 더불어 병행되어야 하겠고, 우수한 人力의 誘因條件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이 地域出身의 인재 중에서 교원으로 養成·輩出되어 地域教育에 재투입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로, 教育施設의 擴充과 現代化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는 막대한 財政的·政策的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學校·學級規模의 適正化라든지 校地의 安定的 確保問題, 教育支援施設 및 附帶施設의 증축 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地域社會의 教育的 風土가 改善되어야 한다.

教育에 대한 강한 열의만큼 認識의 상승이 절실한 때이다. 學校와 地域社會間의 밀접한 유대를 지속시켜야 하겠고, 利己的인 教育熱도 시정해야 할 것이다. 때로, 非常識的인 方法으로 教育問題를 해결하려는 風土도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教育體制內의 非教育的 要素가 改革되어야 한다.

行政의 簡素化·能率化를 기해야겠고, 불필요

한 書式中心의 業務를 강요하는 行政萬能的 風土가 불식되어야 하겠다. 上意下達뿐인 權威主義로 教員의 士氣를 저하시키는 점도 시정되어야 한다.

여섯째로, 教育發展의 均等化 實現을 위한 地域間·學校間 均等發展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地方教育과 地方出身 學生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大都會地 중심의 教育政策과 輿論의 造作에 制動을 걸 수 있는 反作用은 물른, 全國單位의 유수한 學校와의 交流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적 입장에서 學力向上을 꾸준히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教育의 國際競爭力을 強化하는 한편, 他 地域의 學校와의 學力面도 優位確保라는 點에서 實質的 教育機能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끝—

이 고장 教育發展의 當面問題

金 雲 天
(雪岳女中 校長)

收復된지도 3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江山이 세 번 바뀐 셈이 된다. 특히 嶺東地區의 失鄕民들의 고향심기 운동에서 부터, 反共의 전초지로서 파란만장의 歲月 속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식주에 대한 생활수준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왔다. 가로수 한 그루 없던 시절 포장도 안된 東草거리를 생각해 보라. 醫療施設·教育施設 모든 면에서 無에서 有를 창조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겠다. 이 고장의 精神文化의 지주로서 東宇專門大學의 설립은 東草市民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룩되었다.

이 고장엔 高等學校가 세 개 있다. 그 가운데 네 번 씩이나 이전하면서 오늘의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東草高等學校와 지난 년말 교동에 4층 現代式 建物로 이전한 女高와 콤퓨터시설을 갖춘 商高가 각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더욱 학교마다 VTR시설 콤퓨터 電子復寫機 等이 갖추어져 활용되고 있다.

겨울날 난방시설만을 생각하던 것이 삼복더위에는 선풍기를 설치하여 學習環境을 개선해 가고 있다. 이 고장 시민들의 熱熱한 물심 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 말할 수 있다.

2～3年 전만 해도 教育의 불신으로 外地留學도 시켰다. 점차 학풍이 조성되고 平準化施策 이후 이 고장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게 되었다. 그것은 1983학년도 중등교육의 學力評價 결과 도내에서 제2위로 부상되었으니 이는 초등교육의 기초가 단단히 갖추어진 결실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아직 보충되어야 할 問題點들이

있다. 體育選手들의 育成問題, 東宇專門大學에 진학시키는 일,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의 취업문제 등은 學校 自體의 노력으로 解決될 問題가 아닌 것이다. 市民과 더불어 共同意識속에서 해결策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당대에 적응되는 教育의 方向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설부족이나 與件改善이 되지 않는 탓으로 돌려보는 안된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고는 못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 教育者의 使命이요, 소명이라고 하겠다.

이 고장 교육의 당면 과제는 우선 環境改善을 위한 施設投資에 있다. 이를 양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學校施設面에서

해마다 투자되는 수세식 변소, 特別室(科學室 圖書室, 技術室, 家事室, 美術室, 音樂室) 等에 역점사업을 하고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못되지만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 社會文化施設面에서

觀光都市로서 雪嶽地區와 영랑호반의 시설은 우리나라 제1을 자랑한다.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圖書館이나 어린이 福祉施設 公設運動場 體育館施設 등이 빈약하기 짝이 없다. 하루 속히 施設投資가 요망된다.

教育도 産業이라 본다면 가장 낙후된 社會文化施設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겠다.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難題들이 얼마든지 있다.

우선 당면문제인 東宇專門大學을 4년제 대학으로 昇格시키는 일이다. 다음은 束草商高의 취업율을 높혀주는 일이다.

이 고장뿐만 아니라 國家施策面에서 고급인력의 낭비와 국민들의 경제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天然資源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지구상의 선진대열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첨단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石炭이나 鐵 1톤의 이익보다 콤퓨터나 소프트웨어 1톤에 대한 이익이 그 수억배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고급인력 개발에 발맞추어 基礎教育 環境에 적응시키는 교육을 해야만 한다.

學校教育이 담당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는, 學校施設 資源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시키는 일이다.

國民의 세금으로 설립된 學校가 學生, 教育者들만의 소유인 것은 아니다. 코흘리는 어린이가 학교에 들어오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하여 무작정 내쫓는 식의 思考보다는 따뜻히 맞이하여 情을 주고 秩序意識도 심어주는 방향에서 이 나라의 주인공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손 발에 때가 묻었으면 씻어주고 닦아주는 사랑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놀이터가 없는 실정이 아닌가. 타국 어린이도 아니요 내고장 내 후손들이 아닌가! 한 두장의 유리를 깼다손 치더라도, 책상 의자가 파손되었다손 치더라도 몇 푼의 돈으로 따져 볼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는 學校施設 資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하는 일이다.

圖書室에 진열된 書籍들이 주민 누구에게나 열람되고 참고가 되고 貸與도 되어야 한다. 家事室에 대해서도 식생활 개선을 위한 주부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視聽覺 기자재도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의 입문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面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통하는 社會 協同하는 社會 責任을 다하는 社會를 건설할 수 있다.

앞으로의 展望

人間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천년동안 農耕文化에서 현대 産業社會로 변천되어 왔으며, 이제 새로이 電子時代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다. 미래학자들은 이 과정을 第3의 물결이라고 한다.

第1 第2의 물결이 가기 전에 노도와 같이 밀려 닥칠 第3물결은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전자기술이 열리는 시대를 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經濟 文化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된다. 21세기의 인구가 100억, 세계총

생산이 약 200조$ 1인당 소득 2만$로 본다면 변동이 심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헤쳐나아 가야 할 인재육성을 해야 하고 지금부터 교육의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高度化된 産本社會는 인간을 피로하게 만든다. 그래서 일하며 때로 休暇를 즐기고 있다. 학교마다 여가선용의 지도, 오락지도를 하고 있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들의 앞날은 樂觀的이다. 우리나라 國民들이 두뇌의 우수성과 勤勉性이 하늘이 준 자본이요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의 工場 및 企業의 立地條件과 計劃을 보더라도 鐵綱工場, 섬유공업은 嶺南地方(울산, 창원)에 건설되어 있고, 電子産業工場은 湖南地方에 세울 계획이다. 그렇다면 환경오염으로 우리들의 건강이 문제가 된다. 장차 환경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江原道 嶺北地方뿐일 것이다.

특히 雪嶽圈 영랑호반의 觀光開發事業은 앞날을 내다본 투자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다.

水産資源開發은 어획량과 賣上高만을 따지는 水産이 아니라 양식하는 수산업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 모두가 이 고장 住民 全體의 關心之事인 學校教育 내지는 社會教育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焦點을 맞추어 해결되어지길 바란다.

東草文化의 장래

尹 弘 烈
(藝總東草支部長)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自身의 처지나 능력을 참작하여 현실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런 것은 이른바 小成에 만족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人類라는 이름으로 總體性을 띠게 되면 집단개성이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무한한 理想을 가지고 끈질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끝없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지칠줄 모르는 노력의 결정체가 오늘날의 人類文化다.

혹자는 文明과 文化를 분리해서 定義를 내리는 경향도 있다. 말하자면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 前者를 文明이라 부르고, 後者를 文化라고 일컫는데 그 모두가 인간의 思惟作用에 의하여 이루어진 현상일진대 兩者를 뭉뚱그려 文化라고 부른대서 별 논박의 대상은 되지 않으리라

왜 그런고 하니, 보다 편한 생활, 보다 풍부한 위안과 즐거움을 누리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文明과 文化의 界線은 확연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文明과 文化의 槪念은 同一軌跡에서 추적 되어야 한다. 다만 그 두가지의 나타나는 時空的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道德的 이상을 먼저 추구한 東洋文化는 物質的 후진성을 가져 왔고, 생활의 合理化를 내세

운 西洋文化는 정신적 문화의 후진성을 가져 왔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을 뿐인 것이다.

말하자면 文化란, 온 인류의 정신적 물질적인 발달이요 향상의 한 마디이지 固定不變의 정지된 현실은 아닌 것이다.

東草文化!! 이 고장이 創始된 이래 처음으로 탄생되는 그야말로 文化誌다. 그런데, 東草文化라고 하면 무엇을 내세울 것이냐고 스스로 망서리게 된다. 그러나 조금 생각한 끝에 筆者는 착각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文化라고 하여 반드시 自他가 시인할만한 高度의 경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이다.

江물도 물이요, 바닷물도 물인 것처럼 高度의 차이는 있을망정 모든 인간이 자신의 이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달성하고 하는 것이 모조리 文化라는 개념의 外延에 포용될 수 있을진대 東草에도 文化는 있다. 健在하고 있다.

유구한 전통성을 지닌 文化는 없어도 수려한 自然環境에서 무럭무럭 돋아나는 精神的 物質的인 新生文化가 있다. 그 新生文化가 용트림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東草文化院이고, 이 東草文化院을 주축으로 하여 꿈틀거리는 임원진 및 회원들이 속초의 신생문화를 북돋우고 김을 매는 역군들인 것이다. 그 역군들의 私心없는 순결한 이상과, 私利를 초월한 성실한 노력의 일차적인 결정체로 나타나는 것이 이 「東草文化」誌다.

이제부터 東草地域에 散在된 文化의 싹을 수합하여 「東草文化」誌라는 土壤에서 가꿔 나간다면, 先進 또는 先發한 어느 지역의 文化水準이고 능가할 수 있는 문화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東草文化의 앞날은 설악산처럼 굳굳하고 아름답게 東海처럼 永遠히 넓고 푸르르게 뻗어 나가라. 東草市民들의 건전하고 정당한 이상을 싣고 그의 착실한 성공과 성취를 위한 同伴者요 助言者로서 힘차게 성장하리라.

수산업 발전과 수협의 役割

신 영 철
(속초수협조합장)

목 차

Ⅰ. 머 리 말
Ⅱ. 이 고장 수산업의 발전과정
Ⅲ. 수산업 발전과 수협의 역할
Ⅳ. 맺 음 말

Ⅰ. 머 리 말

삼면이 바다인 해양수산국의 지형적인 제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업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낙후된 상태에서 연연히 이어져 왔으며, 이와 관련 우리 어민들의 생활수준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가운데에서, 자립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성장으로, 복지어촌건설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의 이 고장 수산업 발전과정을 고찰해 보고 선진수산국 창조의 대명제 앞에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하나로 뭉쳐 더욱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Ⅱ. 이 고장 수산업의 발전과정

동해 북부의 접적해역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장 속초의 연근해 수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6·25의 참상 속에 수복이 되면서 이북에 고향을 두고온 실향민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6·25 동란으로 인한 수산부문의 막대한 피해는 수산업의 기본적 생산수단인 어선세력을 크게 약화시켜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로, 겨우 무동력 어선에만 의존하여 원시적인 연안어업의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바 이에 수산부문의 복구를 위한 뒷받침으로, 1953년 수산업법과 그 관계 법규를 공포하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전후가 진행되었고, 동년 6월 속초 어업협동조합이 발족되어 수산업의 발전과 어촌개발의 추진체로서 조직적인 기구가 자유를 찾은 속초에 첫 고동을 울리게 되었다. 이로써 수복이후 50년대 속초항을 근거지로 하여 10톤급 내외의 소형어선으로 동해의 주어종인 명태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에 발맞추어 수산부문도 점차 동력화시대로 접어들었고, 동해안 연근해 수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이 고장 수산업 발전에 기틀을 잡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복이후 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수산업 발전의 기본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수산부문, 특히 연근해 수산부문의 성장은 정체된 상태이고 우리나라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선중 전체 약 90%가 무동력 어선에 지배되고, 어선 척당 생산량은 9.8톤(M/T)에 불과하였으며, 수산인구는 계속해서 6.9%씩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함으로 어촌경제는 극도로 궁핍한 실정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은 수산업의 후진성과 어촌의 경제적 궁핍을 타개해 나가는 수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과 같은 어민의 자조적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였지만, 당시 어민들의 미약한 수준과 거듭되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이러한 수협운동의 자발적 전개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1962. 4. 1.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발효와 동시 구 수산 단체가 해산되고,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수산업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속초시 수산업협동조합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설립되어 이 지역 어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사업의 확대와 생산력 증대를 위한 협동조합의 기능이절실히 요구되기도 하였다.

Ⅲ. 수산업의 발전과 수협의 역할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족은 이 고장 수산업의 성장에 실질적 추진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어선 어구의 개량과 출어자금의 뒷받침등 생산력 증대에 역점을 두고,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에 발맞추어 고도 성장의 근대화를 향한 우리 수산업의 시발점을 이루게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후진국 일반의 경우에서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다. 서구의 자생적 근대화 과정은 축적된 자본위에서 산업의 발전을 가져 왔지만, 우리에게는 자본도·기술도·자원도 모두가 부족한 것 뿐이었다. 수산업의 근대화를 향한 출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까닭은 수산업자의 자체자금 부족으로 인한 자생적 발전보다는 정부의 자본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할 일은 많고 쓸 곳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충분한 자금형성이 원만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60년대 이 고장 수산업은 명태가 주어종을 이루면서 척당 평균 15톤(M/T) 을 생산함으로 50년대에 비하여 50% 증산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어선규모는 소형으로 평균 5톤(G/T)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조업형태도 연안 일일 조업에 머무르고 있었던 시대라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60년대를 회고해 볼 때, 어민들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수협조직의 기능을 점차 확대해 가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어선의 동력화 추세는 유류 소비량을 비례적으로 증가 시킴으로서 자체공급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유류탱크시설을 설치하고, 65년도 부터 정부지원 혜

획고 면에서는 평년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어획량면에서는 〈별표〉 수산통계자료와 같이 '83년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70년대 부터 급속히 신장되어온 어선세력의 대형화와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볼때, 연근해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자원보호 측면에서 수산업이 이어져야 되겠으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겠다.

Ⅳ. 맺 음 말

수복이후, 이 고장 수산업의 출발에서부터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고도성장속에서 수산업의 급속한 성장기를 지냈고, 큰 시련도 경험하였다.

또한 80년대의 생산고 100억 돌파라는 큰 고지에 올라선 자부심도 갖게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연근해 수산업을 생각할 때 연안어업은 자원이 이미 감소 내지 고갈상태에 있으며 근해어장은 적성국에 의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어 어획량도 점차 감소추세로 척당 손익분기점 미달 상태에서 적자 출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연근해 수산업의 신장에 그늘이 생기게 되고 더우기 노동력의 도시집중현상은 어촌의 생산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고 어장의 원양화는 조업경비의 증대와 원가상승 요인이 되어 돌아오는 등, 모든 요소의 작용이 어두운 면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급격히 신장된 어선세력은 어장과 비교해 볼 때 포화상태로 비대해져 있어 새로운 어장개척과 어구의 자동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연근해 수산업자의 재무구조 미약으로 출어자금이 압박을 받게 되어 사채의존도가 높으며 이는 곧 수지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수산자금의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어민에 대한 수산자금 공급기회를 확대하여 수산물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일은 이 지역 산업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이 고장 유일한 수산금융기관인 수협은행 이용고를 높이는데 주민 모두의 참여가 기대되며, 관계기관도 어민에 대한 수산자금 지원책의 일환으로 현거래선인 시금고를 수협은행 이용등 지역적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되고 있다.

이제 이 지면을 맺으면서 우리 수협조직의 모든 기능을 어민 소득증대에 집중시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수협운동의 목표를 복지어촌건설에 접목시키는 뱃사공이 되고져 굳게 다짐한다.

〈별표〉

수 산 통 계 자 료

수량 : M/T
금액 : 천원

구분 / 년도	어민수		어선세력			어획고		척당평균		유류공급(D/M)		비고
	가구수	어민수	척수	톤수	평균톤수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73	4,862	25,675	885	7,219.25	8.15	35,264	1,536,801	39.8	1,736	44,423	128,885	
'74	4,699	20,046	790	6,024	7.62	35,591	1,901,678	45	2,407	56,395	365,663	
'75	4,770	24,851	702	5,026.76	7.15	23,199	1,444,269	33	2,057	58,514	476,819	
'76	4,087	22,802	653	5,608.57	8.58	28,593	3,638,370	43.7	5,571	62,662	559,743	
'77	4,252	20,738	723	5,979.42	8.26	29,514	4,701,665	40.8	6,502	52,703	512,107	
'78	3,994	19,570	715	6,189.16	8.65	26,725	4,519,130	37.3	6,320	42,812	417,127	
'79	3,590	19,194	654	7,526.23	11.50	23,587	6,235,437	36	9,534	49,420	724,401	
'80	2,301	11,415	707	8,009.95	11.32	34,505	13,216,965	48.8	18,694	67,038	1,903,233	
'81	3,098	15,233	741	9,449	12.75	36,570	13,009,770	49.3	17,557	69,348	2,766,158	
'82	3,098	15,233	765	10,885.17	14.22	32,801	11,883,333	42.8	15,533	78,541	3,580,341	
'83	3,098	15,233	752	11,075.34	14.72	19,842	13,760,211	26.3	18,298	66,307	2,920,197	

택으로 어선용 면세유류 공급을 개시하여, 수산물 생산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더우기 60년대를 마감하면서 수협 신용사업기능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었으나 자체자금의 부족과 신용사업 실시태세 미비 등으로 본 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영세어민의 경제적 구조와 수산물 생산력향상에 기여치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객주세력의 어민수탈행위는 소득증대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금공급을 위하여 69년 4월 동 업무가 개시되었음은 자체자금 조성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우리 어민들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 주었으며, 이 고장 수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70년대에 접어든 이 고장 수산업은 도약의 연대였었다고 볼 수 있겠다. 생산고 면에서 볼 때, 60년대 전체 어획고 1만톤 규모에서 일약 2만톤 규모로 증산하게 되었고, 적당 평균 어획고도 16%에서 30% 이상으로 비약적인 생산증대를 갖게 되었다.

어선 규모면에서도 동력화되면서 평균 톤수가 5톤에서 8톤으로 증가추세로, 연안어업은 점차 근해로 나가게 되었으며, 연안으로 회유하여 오는 고기를 어획하는 형태에서 고기를 찾아 멀리 나가게 되는 조업어장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주어종도 명태에서 오징어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항해장비도 콤파스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전자항해장비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어군탐지기, 무전기, 방향탐지기, 로란, 레이다등 전자항법시대가 우리 연안어업 어선에 설치되어 70년대 초에 개척된 대화퇴의 원해어장에 오징어 조업차 장기출어에 임하는등 연근해 어업의 활성화 시대를 맞이한 듯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 또한 오징어 어업은 다른 업종에 비교하여 볼 때 많은 어민이 종사하게 됨에 따라 (척당평균 30명) 어민 소득 측면에서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종사자들이 모여 속초항은 번창하는 진모습이었고, 이 고장 산업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같은 현상은 70년대 국가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을 통하여 국민소득 수준향상으로 수산물의 급격한 수요증대 현상이 나타났고 지속적인 수요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산물 생산력 증대와 어선규모의 증톤 및 대형화 추세는 수협조직의 사업규모 확대와 출어선에 대한 원활한 유류공급이 배가되었으며, 별표 수산통계자료와 같이 60년대 연간 3만D/M으로 급격한 신장을 보이게 되었다.

수산업의 급격한 신장과 어선의 대형화 증가추세는 원해어장의 진출로 일일조업 형태에서 장기조업 형태로 변하면서 오징어어업을 위하여 400마일 떨어진 대화퇴 출어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이는 항상 위험부담이 상존하고 자연적 우발사고에 대처할 충분한 준비가 없어, 급기야 1976. 10. 28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은 기상악화로 속초항의 경우 오징어 어선 6척이 침몰하고 116명이 일시에 실종사망 하는 등 엄청난 시련을 안겨 주었으며, 연이은 해난사고는 그 인명과 재산 손실이 대형화로 나타났으며 또한 인접 적성국의 200해리 경제수역선포 등으로 인하여, 오징어 조업어장에 제한을 받게되고 급기야는 북괴 및 소련등에 피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70년대의 수산업 신장과 더불어 또 다른 큰 시련으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게끔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수산관계 법규가 개정되어, 대화퇴 출어선의 톤급이 제한되고 안전항해장비설치를 강화하면서 수협의 대어민 안전조업 지도업무를 주요업무로 대두시켜 새로운 항해장비 및 안전장비의 사용법등 해난사고에 대처할 정규적인 교육을 의무화시켜 어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70년대는 국가경제의 고도성장과 발맞추어 우리 수산업계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도 큰 시련 속에 지내온 년대라 생각된다.

발전 속에서 엄청난 시련에 부딪치면서도 바다를 향한 굳은 의지는 더욱 굳어져 80년대를 맞으며 이 고장의 수산물 생산고가 기록상 최초로 100억을 돌파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어

"觀光開發과 地域住民의 所得增大 方案에 關한 一考"

(東草地域을 中心으로)

李 沅 宰
(東宇專門大 觀光科 敎授)

1. 序 論

科學과 文明의 발달로 오늘의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産業構造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부상하고 있다.

觀光産業이 새로히 빛을 보게 된 것은 고밀도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관광이 生産力向上과 福祉增進의 면에서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생활의 활력소로서 등장한데 연유가 있는 것이다.

觀光産業發展을 뒷받침하는 관광개발은 국가적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本論은 그러한 政策的인 면과 자본가에 의한 대규모 투자의 資本集約的인 관광 개발면은 피하고 단지 관광지역 내의 많은 주민들이 관광개발을 통하여 많은 所得을 얻을 수 있는 勞動集約的인 측면에서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관광개발영역 중에서 住民所得增大와 가장 관계가 깊은 관광 상품개발면에다 焦點을 두어 언급하고 다음으로 관광상품 再生産의 촉진을 위하여 販賣活動強化와 그리고 관광객을 맞아들이는 受容態勢를 論하기로 한다.

2. 觀光商品開發

觀光客이 관광지역에서 많은 소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종 觀光商品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부유층의 외래객과 외국인들을 좀 더 오랜 기간동안 머물게하면서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덜어주고 즐겁게 지내게 하는데는 그들에게 호기심을 주는 관광상품이 많아야 한다.

속초지역은 산과 바다, 온천과 호수가 함께 있고 春夏秋冬의 경치가 특유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天惠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各種 動植物資源도 풍부하여 모두가 관광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좋은 자연 환경자원에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人爲的인 施設과 加工의 손길을 뻗는다면 무수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 地域住民들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 農産資源의 觀光商品化

풍치가 좋고 果樹團地로 적당한 지역에 시골의 흙내음과 더불어 훈훈한 시골정치를 느끼게 하는 딸기, 참외, 수박, 포도를 재배하는 관광농원단지를 造成하여 맛있고 품질좋은 싱싱한 과일을 현지에서 직접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지역에 있는 관광호텔이나 기타 숙박업소와 연결을 맺고 농원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공급은 물론 고등소채를 계약재배하는 것도 지역주민 상호간의 利益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 특산물인 찰옥수수를 조기 재배 수확하여 여름에 해수욕장에다 판로를 개척하여 공급하고 옥수수, 감자, 메밀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들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여 향토음식으로 定着化시킨다. 향토음식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는 林産物이 다소 들어가는 산채나물정식과 비빔밥, 표고덮밥, 더덕구이, 도토리를 원료로 한 음식등이 있겠으며, 또한 옛날 조상들이 집에서 만들었던 두부도 관광객의 味覺을 돋구어 줄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되겠다.

나. 林産資源의 觀光商品化

觀光資源의 寶庫 설악산은 많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로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林産物을 찾아보면 머루, 잣버섯, 칡, 당귀등 많은 임산물이 食品의 원료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행정당국의 협조하에 머루, 다래, 더덕, 잣, 칡등의 果實酒는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그곳에서만 제조하도록 하며 양조용기도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직접 그곳에서 가져오게 한다. 原料의 供給이 풍부치 않으므로 시판은 하지 말고 현지에서만 판매하며 無公害健康飮料의 眞品이라는 점과, 供給의 別限現象과 特酒라는 점을 들어 다소 비싸게 판매하는 것도 판매전략이 되겠다.

食品開發以外에 설악산의 희귀초목인 에델바이스와 주목을 화초용과 정원수로 분양하는 苗板植物園을 만들면 苗木販賣가 많을 것이다.

다. 水産資源의 觀光商品化

東海岸에서 잡히는 海産物을 관광객 구미에 맞도록 例를 들어 오징어를 원료로 할 때 오징어회에서 물오징어, 오징어 순대등과 같은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고 專門飮食店 앞에는 전시장을 만들어 종류별로 모조음식을 요금을 부착하여 전시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처음 오는 관광객은 음식 종류를 몰라 그리고 요금을 일일이 물어볼 형편이 안되어 못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船着場에서 고기를 따는 과정도 관광대상이 되겠지만 고기, 조개, 해초류와 분해해서 나온 갖가지 내용물 예를 들면, 명란, 창란 아가미등과 같은 것을 현장에서 관광객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운반이 편리하도록 容器와 包裝物品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이와같은 것은 현장에서 싱싱하고 값싼 물건을 살려는 관광객의 구매의욕을 實現化시키는 契機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라. 內水面 魚類養殖과 畜産을 통한 觀光商品開發

農耕地가 아닌 景觀이 좋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 송어, 미꾸라지, 산천어등의 담수어 양식장을 만들어 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민물고기 전문음식점 몇 집을 둔다. 많은 음식점이 亂立하면 양식어의 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로서 당사자들의 영업곤란은 물론 관광객에도 흥미를 주지 못한다.

명산 기슭에 오골계, 토종닭, 염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集團株域을 만들어 건강식을 찾는 식도락가들을 위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도 시도해 볼만 한데 이것도 또한 많은 음식점영업은 곤란하다.

지역주민들 가운데 財力이 있는 사람은 혼자 또는 몇 사람이 共同投資하여 멧돼지와 같은 野生動物의 사육장을 만들어 적정규모의 觀光牧場을 경영하면서 단체관광객과 부유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바베큐장이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도 권장할만한 일이다. 관광객의 來到가 많지 않는 경우엔 주변의 관광업소에 요리원료로 판매할 수도 있다.

마. 觀光施設에 의한 所得源開發

海岸觀光地 속초해수욕장은 해수욕객을 위한 기본이용시설 정도로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다. 설악숙박시설단지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諸般 놀이시설을 지방의 관광 사업자나 財力이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도록 誘導해 나가야 하며 향토음식점, 토산품판매점, 슈퍼마켓등도 시설토록 한다. 속초해수욕장 앞의 조도섬을 낚시터와 놀이터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

동해안에는 바다낚시가 잘 되므로 관광객에게 낚시기구를 대여해 주는 낚시전문점과 소형선박

에 의한 관광낚시선박 대여업도 관광시설 개발안이다. 민박수입증대를 위하여 交通便宜, 案內標識板 등의 환경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販賣活動強化

훌륭한 관광시설과 좋은 관광상품을 개발하려는 목적은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소득을 높이고저 함에 있다.

오늘날 관광이 생활의 일부분이라 하지만 관광은 代替性이 크기 때문에 판촉활동의 뒷받침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판촉활동도 새로운 상품개발만큼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해 나가야 한다. 판매활동에 관해서 몇가지만을 제시해 보겠다.

1. 여행 알선업체를 통한 관광객 유치활동
2. 숙박업소와 관광 有關業體를 통한 弘報活動
3. 신문·잡지·TV등 매스콤을 이용한 활동
4. 안내표지판·안내팜프렛으로 홍보활동

끝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全住民의 觀光要員化가 요청된다.

4. 受容態勢萬全

관광에 있어 수용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수용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찾아오는 관광객을 고객으로 만드는데는 맞는 자세의 역할이 큰 것이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점을 略述하면,

1. 利用施設完備 : 교통수단 주차장 식수 화장실 등이 관광활동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2. 人的 써비스의 충실 : 기계적이고 形式的인 써비스보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온 인정이 어린 써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3. 環境美化 : 깨끗이 정돈되고 단장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특색있게 꾸밈을 잘 해야 한다.
4. 不正 不條理 除去 : 관광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각종 상품가격이나 요금의 과당징수는 없어야 하고 무질서한 행위가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5. 結 言

地域住民의 소득증대방안과 관광개발을 요약해서 몇가지 結論을 정리하면 먼저 人間의 欲望은 한이 없고, 유행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관광객의 관광대상에 대한 선호도 유동적이다.

또한 관광은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므로 관광사업의 投資性向은 높다. 그러므로 항상 새로운 관광상품의 考案이 요구된다. 속초는 天惠의 관광자원을 保有하고 있으므로 人爲的인 시설과 아이디어의 創出로 좋은 관광상품개발이 용이하다. 다음으로 여러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지역주민과 관광사업체와 행정기관 및 관광개발에 유관한 民間團體가 상호보완적 立場에서 유대를 강화하고 協助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모든 주민이 관광사업에서 당장의 직접적인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인근주민이나 지역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思考로 地域의 좋은 이미지 浮刻에 힘써 나간다면 이 지역의 관광발전은 물론 주민의 福祉와 소득은 向上될 것이다.

雪嶽圈과 東草開發을 위한 緊急動議

"崔在吉 繁榮會長과 本誌 池一權 편집위원 對談"

□ 市民을 대표하여 崔 在吉 번영회장이 本誌 池 一權 편집위원과의 對談으로 그 비젼(青寫真)을 밝힌다.

—東草市 繁榮會가 출범한지 3년째, 그동안 地域社會發展을 위해 많은 事業을 폈다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精神的인 측면에서 일을 했다고 봐야 하겠지요. 지난 날 우리의 先代들이 살고간 역사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우리의 後孫들이 살아갈 祖國의 내일을 내다보면서 民族史의 과정에 있어서 참으로 획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금세기 여러 연대를 거치는 동안 오늘날 우리 겨레가 이처럼 밝고 떳떳한 모습을 본 적은 일찌기 없었으며, 同族相殘의 참혹했던 戰亂後 우리가 걸어온 30여년의 가시밭길을 생각할 때 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精神의 革新이 앞서야 하며 오늘의 祖國은 모든 분야에 걸쳐 飛躍的 段階에서 민족중흥의 거대한 前進을 거듭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地域開發에 主人意識을 가지고 市民和合에서 모든 일이 추진되며 번영된 鄕土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며 후손에 단란한 요람임을 알고 民主市民으로써 향토의 주인으로서 義務와 奉仕 그리고 責任을 다할 것은 물론 鄕土開發에 傍觀과 我執과 利己를 버리고 共同意識에서 헌신하며 향토건설의 역군으로서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이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都市라는 汚名을 떨치고 잘사는 都市로 탈피하겠다는 市民精神을 한데 모아서 지역개발에 촉진제로 삼고 創意力을 發揮해서 啓導하고 명실공히 이 지역의 嚮導的 역할을 다하는 번영회로서의 역점을 두었으며,

둘째로, 오늘날 세계적인 觀光名所인 雪嶽山에 인접해 있는 束草, 襄陽, 高城, 麟蹄등 4個市郡을 한 圈域으로 해서 雪嶽圈地域社會開發協議를 본회와 江原日報社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雪嶽圈開發이라는 명제를 놓고 이것은 단순한 地域社會開發이란 차원을 넘어서 國民休養産業의 지평을 여는 모임으로써, 高山地帶와 臨海沿岸이 직결된 지리적 특수조건을 잘 살펴서 雪嶽固有의 民俗, 文化, 産業, 生活을 재조직을 유도해야 할 先決問題解決로 의견을 집약시키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세째로, 이 고장의 주인이 되는 이 地域住民의 폭넓은 대화와 깊은 理解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므로 開發에 지름길이 될뿐만 아니라 雪嶽圈開發은 國土綜合開發의 큰 몫을 차지하는 대역사가 되는 것인만큼 그날 參席했던 地域人士들의 보다 넓고 긴 眼目으로 다듬어진 高見을 집약해서 정부당국에 건의했으며 정부당국으로 부터 事業計劃의 回示도 받은 바 있읍니다.

-그리고 보니 모든 일들이 한결같이 8萬 속초시민들의 宿願事業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라면 都市形成問題와 서울 속초간 교통을 3시간대로 단축시킬 수 있는 對策과 實際效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역의 開發事業이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어느 것이 덜 시급하다고 할 수가 없으며 시급하지 않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事業이 시민의 所得과 直結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當面問題가 都市形成과 交通網擴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첫째, 束草市가 雪嶽圈觀光據點都市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都市基盤造成과 休養地로 開發되어야 할 尺山溫泉場 일대에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觀光都市로 諸般開發이 둔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장되어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雪嶽山과 束草市街로 觀光客을 연결유치가 되도록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投資로 基盤造成이 이루어져야 民資가 유치되어서 모든 觀光施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둘째로, 觀光客을 快適하고 安全하게 짧은 時間에 수송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일 것이다.

서울서 束草로 오는 길이 3時間帶로 단축할 수 있는 길은 北雪嶽을 橫斷하는 유일한 관광로인 彌矢嶺을 통하는 길 외는 시간을 단축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道路延長 〈寒溪嶺 分岐點〉으로 보면 寒溪嶺을 經由 서울~속초간 266.5km〈5時間 30分 所要〉 陳富嶺을 經由 서울~束草間 256km〈6時間 30分 所要〉 이와 같이 5시간 50분대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彌矢嶺을 개통할 경우 서울~속초간 241km로서 1시간 40분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春川, 소양호, 麟蹄內雪嶽, 北雪嶽을 횡단하여 彌矢嶺을 넘어서 正亞綜合觀光休養地와 연결되면서 束草市를 비롯 尺山溫泉, 영랑호반, 靑草湖, 東海로 연결하여 雪嶽山으로 이와 같이 연결 이됨으로써 江原觀光에서 가장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한편,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國際行事와 '86·'88 서울올림픽에 內外觀光客誘致에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彌矢嶺이 46番國道에서 廢路危機에 있으며 그래서 이 도로를 國道로 復活을 시켜서 폐로위기를 막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흔히 길을 "로마"로 통하고 漢陽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86. 88 서울올림픽을 맞아 홍수처럼 밀려올 外國觀光客들을 이곳 雪嶽山과 東海岸으로 유치키 위해 무엇보담 交通의 4通 5達인데 현재의 與件은 어떻습니까?

-觀光의 길은 漢陽에서도 "로마"에서도 束草로 통해야 雪嶽山을 관광할 수가 있지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彌矢嶺이 高速化로 개통이 되고 江陵에서 束草間 75km의 7番國道가 高速道路로 조기확장이 된다면 雪嶽山으로 통하는 길이 4通 5達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江陵~束草間에 高速化道路擴張이 더욱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83年度計數에 설악산을 찾은 관광객수는 3,077,390名으로 急增趨勢인데 비해 2차선의 협소하고 꼬불꼬불한 道路에 관광계절에는 1日 交通量 8,000~10,000臺로 급증하는 交通量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불안한 觀光客輸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束草市등 嶺北地方의 經濟 "패턴"이 水産, 觀光業收入의 兩大主種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現在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항간의 輿論으로 봐 앞으로의 그 전망과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束草는 雪嶽山을 인접하고 있는 水産觀光都市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설악산관광소득이 시민들과 직결되지 못하는 점에서 雪嶽山과 束草市街로 관광객의 연결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나 都市基盤造成이 미진되고 있으니 모든 개발이 둔화되고 있을뿐 아니라 政府의 政策的인 투자가 없이는 속초시민의 觀光所得에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또 水産分野에서도 漁業前進基地港口로 시설확장과 어선 선착장확대와 북양어선을 유치하고 水産物加工 등의 시설이 확대되어서 有休勞動力을 吸收할 수 있어야 하고 다각적인 수산업진흥이 이루워져야 됨으로써 명실공히 水産觀光都市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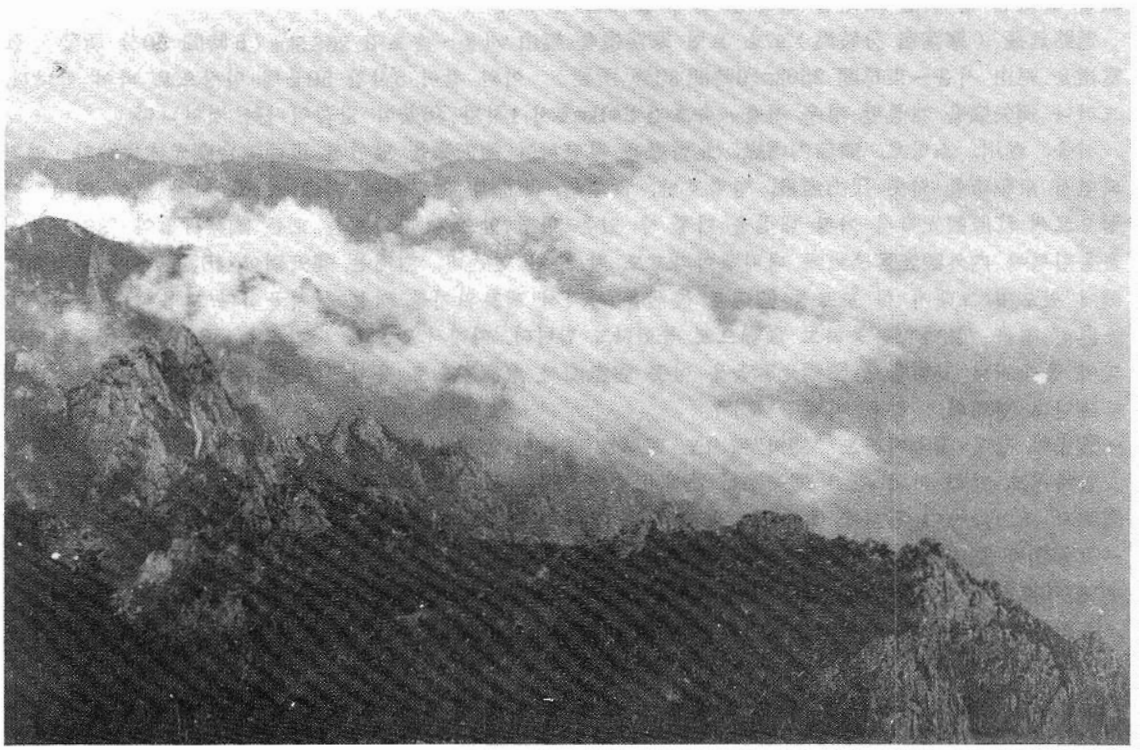
—文化·教育·體育施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文化·教育施設面을 볼 때 教育施設로는 전문대학 1개교,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국민학교 9개교인데, 그중에 전문대학은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4년제대학교 유치였으나 전문대학이 설립된 것입니다.

專門大學을 졸업하고 직장진출에서 學力認定을 못받으므로 일반적으로 專門大學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專門大學은 대학대로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4년제대학 진학을 위하여 他地로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經濟的負擔등 이 두가지 어려움을 解決하는 방법은 이곳 東宇專門大學을 4年制大學으로 승격시키는 방법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며, 또 중학교 7개교중 한 학교도 附設體育館施設이 없을뿐 아니라 公設運動場 하나도 제대로 시설 못해 놓고 있으며, 시 소유지로서 文化院舍 없는 市인데 餘他 文化施設을 論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주민 대다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政府次元에서 적극적인 배려없이는 解決策은 요원하다고 할 수 밖에는 없읍니다.

—더 할말은 많을 줄로 압니다만 오늘은 지면상 이만하고 다음에 또 뵙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은 창조인이다.

金 南 星

고향은 情感의 온실이었고, 사색의 보금자리였으며, 꿈의 요람이요, 成長의 젖줄이었다.

버들개비 피어날 때 여울물 소리 잔잔하고, 울밑에서 졸던 멍멍이는 마당가의 닭을 쫓아 내달으니, 아지랑이 잡으려던 아이가 놀라서 우물가에 넘어진다. 물긷던 아낙의 따사로운 손길이 빨간 핏방울 보송보송 솟아오른 아이의 무릎을 감싼다.

무덥던 한낮이 지나고 하늘에 수없는 별들이 초롱거리면, 아이는 개울가 모래밭에 반듯이 누어 "별하나 나하나 별둘 나둘……"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다가, 문득 저 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며, 왜 저토록 푸르르게 저기 있어야 하는가 생각하다 지치면 흩날리는 반딧불을 좇아 들판을 헤맨다.

그 들판이 황금빛으로 변하고, 설악이 붉게 물들면 아이들은 비취빛보다 더 푸른 물이 흐르는 산계곡으로 소풍을 갔다. 붉은 감, 아직은 할아버지 얼굴처럼 쪼그라지지 않은 싱싱한 대추, 따뜻하게 익혀진 밤 등을 싸들고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했다.

해는 서산넘어로 떨어지고 달도 그 산으로 넘어갔다. 매일 매일 그곳으로 지는 해와 달은 어디로 갔다가 누구의 집에서 잠자고 다시 오는가? 저 산넘어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아이도 저 산을 넘어가 보고 싶다. 다시 아침해가 푸른 바다 물을 박차고 솟아 오른다. 얼마나 힘이 센 누가 저 해를 밀어 올리는가? 바다 끝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언제 어른이 되어 저곳까지 배저어 나가 볼까?

흐르던 여울이 얼어붙고 산과 들에 흰눈이 덮히면 아이는 또 한살을 더 먹었다. 세월의 바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았다. 변화는 별로 없었고 뉴스가 될만한 일도 잘 일어나지 않았다. 앞집 총각이 그리고 뒷집 처녀가 언제 누구에게 시집 장가간다는 것이 동네 아낙네들의 큰 화제였다. 그런 분위기와 인정 속에서 아이들은 불안없이, 그리고 갈등없이 조급하지 않게 자랐다. 그래서 그곳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도록 언제나 마음씨 좋고 착한 사람들이었다.

고향은 이처럼 정이 깃들게 했고, 무한히 생각하게 해 주었으며 장차의 꿈을 안겨주었고 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해 주었다.

오늘 옛날의 아이가 어른되어 고향에 선다. 오솔길이 신작로되었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던 초가집 터에는 빌딩이 섰다. 산허리가 파헤쳐져 관광단지가 들어섰고, 기러기 내려앉던 호숫가에는 洋式 바캉스가 자리하고 있다. 선머슴의이마에 백발이 날리고, 가시네가 애어미되는 사이에,. 여름밤 매캐한 내음 풍기는 모기불가에 앉아서 혹은 기나긴 겨울밤 화로가에서 밤새 도록 할머니의 옛날 얘기 득촉하던 아이들은 간데 없고, 이젠 집집마다 제각기 텔레비젼 앞에서 우주인 만화를 즐기는 아이들로 바뀌었구나. 따뜻하던 이웃의 인정은 소원해지고 관광객들 등살에 인심만 바뀌는가 보다. 그러나 옛날의 아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린 시절을 살고 겪었던 고향을 지금껏 잊지 못하듯 오늘의 아이들도 먼 훗날 그들의 어린 시절 속에서 그들

만의 옛 고향을 찾아내어 그리워할 것이니라.

세월이 흘러 物情이 변하고 人傑 또한 바뀌었어도, 大青의 달빛 어린 陽瀑溪谷의 처절하도록 신비로운 夜景을 잊지 못하며, 푸른 파도 구비치는 의상대 앞바다의 광활한 기상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진대 어른된 옛 아이의 마음 속에 아로 새겨진 고향의 뜻과 정이 그리 쉽게야 변할까?

고향의 뜻은 꼭 實在的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다. 고향은 늘 정으로 느끼는 것이며 꿈으로 그리는 것이다.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은 생활인이로되,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은 創造人이다. 속초시의 30여년 발전과정에 꿈이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꿈은 희망이다. 꿈은 발전의 새싹이다. 메마른 풍토에는 새싹이 돋지 못한다.

학교동산에, 관청 앞뒷뜰에, 그리고 온 거리와 가정에 나무와 꽃을 심고 기르자! 그래서 巨木 우거진 고색창연한 거리와 건물에 전하자! 깊이 없이 속까지 알뜰이 햇빛에 노출된 메마른 거리를 이제라도 숲이 우거진 꿈의 동산으로 만들자! 학문과 문화의 이끼가 끼도록 푸른 꿈의 동산을 만들자.

〈略 歷〉

1. 東草高等學校卒('56年)
2. 成均館大 教育學科 및 同大學院卒 文學碩士
3. 日本 東京教育大學大學院 教育學科 修學
4. 日本 波大學大學院心理學科, 教育學博士
5. 春川教育大學 副教授
6. 成均館大學校 教授

故鄕은 나의 乳線

金 鍾 昊

千里家山萬疊峰 帰心長在夢魂中……
(申師任堂 詩에서)

이같은 한 귀절 詩를 놓고 故鄕을 음미하여 본다.

故鄕이란 自己가 태어나 자란 곳을 말함이다. 물론 제 조상이 오래 누려 살던 곳이기도 하기에 그 情懷 또한 깊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하기에 고향은 나의 乳線이다. 하물며 나와 같이 生의 營爲때문에 故鄕을 떠나있는 사람으로서의 心情은 고장을 지키는 사람과는 달리 새로운 情趣를 느끼리라.

지나온 한 甲還을 돌이켜 보면 너무도 변한 것이 많다. 10년이면 江山도 변한다 했거늘 이렇게 변하기를 여섯 번이나 되풀이 됐으니 달라진 것은 당연한거다.

일제치하의 억압에 허덕이며 可以東 可以西로 정처를 잡지 못하고 헤매던 고초며, 共産治下의 彈壓때문에 은신조차 어렵던 恐怖의 나날, 그리고 6·25의 戰禍로 생사의 기로에서 東可食 西可宿, 생애를 포기한 채 폐허된 산천을 바라보며 장탄하던 그 시절, 역시 고향의 정모리다. 너무도 많은 우여곡절이기에 어렴풋 한 평생의 변화가 옛 이야기로만 지워버릴 수 없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山河의 변모다. 구불구불하던 전답의 규반은 정연을 이루고 삼림의 樹陰은 宅地로 변했으며 凸凹塵泥의 도로는 광활한 포장화도로

흙먼지 없앴으니 참으로 變化無雙이다. 이것이 지금의 故鄕情況일진대 옛으로 돌아가 序頭에서 詩吟한대로 먼지끼지 않은 옛 鄕愁에 젖어 보기로 하자.

靑垈山頂에 떠있는 둥근 달은 주위의 靜寂때문에 외로우리만치 쓸쓸히 보이고 해뜨는 東海바다의 시원한 바람은 울적한 가슴을 한없이 풀어주는 곳, 다만 海岸線 백사장을 나르는 白鷗떼는 흩어졌다 모였다 옛과 다름이 없고 고깃배 분주히 港口를 드나듦도 그 繁度가 많은 것뿐이다. 나 千里길 먼 서울땅에서 고향을 그리니 山帖도 險嶺넘어 있는 故鄕 생각이 꿈에마저 아롱거릴 정도로 그리워진다. 5백년 내 조상이 살아온 故土이기도 하지만 나 이곳서 낳고 자라온 故鄕이기에 필연적인 感懷가 깊으리라.

근년, 雪嶽山 神興寺를 찾으며 불연듯 옛 기억을 더듬어 본 일이 있다. 노루목 오솔길을 더듬더듬 넘던 時節, 지금으로 부터 50年前 일이다. 우거진 숲 속에서 지저귀던 鳥獸의 울음소리 들어가며 겹겹히 쌓인 가랑잎을 밟으며 절에 다다랐을 때에는 深山幽谷의 仙境에나 온 듯한 정숙한 기분이었었는데 그 山길 그 地境이 지금은 찾아볼 길 없이 변했다. 발전이라기에 앞서 정서를 빼앗아버린 느낌이 앞서 한숨이 나왔다.

그뿐이겠는가. 山川草木도 변했으려니와 人心또한 옛과 같지 아니하니 歲歲年年花相似인대 年年歲歲人不目이라고나 할까, 歲月도 늙고 人心도 늙었어라.

故鄕의 변천이 이러하기에 美麗故土談이기 이전에 변모된 情境을 써 보지 않을 수 없다. 表現이야 어떻든 鄕愁에 목메인 마음은 다른 사람에 비교하지 못하리만치 哀絶하다. 사는 바탕이 慾이라 하지만 慾만으로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본다. 사람이 사는 根源을 찾고 사람으로서의 道理를 헤아려 操行할 때 비로소 價値觀이 확립되는 것일진대 故鄕을 그리워하기에 앞서 故鄕의 風物을 옛에 되새겨 음미해 보자는데서 이 글을 써보는 의미로 바꾸고자 한다.

何時重踏臨瀛路하여 舊朋相座情趣談고.

〈朝陽洞(溫井里)出身 現在京〉

東草收復의 歷史的 意義

李 建 錫

무릇 歷史는 어떤 事物의 과거를 되새기고 現在를 미래로 연결시키는 人間社會의 變還 및 過程이자 産物이다.

올해는 광복 39주년이며 6·25동란 34주년을 맞는 해이다. 30년이면 한 세대로서 解放童이가 中壯年으로, 6·25童이가 壯年이 되었다.

그간 우리도 여러 분야로 많이 성장하였다. 이 땅에 참다운 民主主義를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國基로 하여 새 나라를 세운지 36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同族相殘의 悲劇을 자아낸 6·25동란이 있은지 34年을 보내면서 아직도 우리는 南北統一의 숙원을 이루는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고 있다.

過去를 돌아보고 反省할 줄 아는 겨레는 영원히 발전하리라.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起伏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巨視的으로 볼 때 분명히 우리의 앞길에는 光明과 希望과 榮光이 함께 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며 오늘에 사는 우리는 현재의 座標와 이 시점에 서서 우리 고장 東草가 日政下에서 8·15解放後 傀儡治下를 거쳐 수복에 이르

기까지의 자취에 대해서 돌이켜 살펴보고 그 收復이 지니는 意味를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의 나갈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의 무조건항복으로 우리는 36년간의 일본식민지 통치로 부터 풀려나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祖國光復인 解放을 맞이하였다.

8月 15日은 온 겨레의 歡喜와 感激의 날이며 숨겨 두었던 태극기를 푸른 하늘에 휘날리던 역사적인 날이었다. 반세기 동안 나라잃은 설움에서 풀리고 어두운 囹圄生活에서 광명을 보던 해방의 날이었다. 태극기의 물결 속에 大韓獨立萬歲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니 남녀노소가 따로 없이 하나로 뭉치던 단합의 날이었다. 虐待와 苛酷한 收奪로 命脈만 유지하고 살아왔던 民族이라 어찌 즐겁고 기쁘지 않으리요. 우리 다 같이 앞날에 독립과 영광이 오기를 희망하고 自由와 繁榮이 조국과 함께 하기를 神明에 念願하였고 또 믿었다.

일제 36年間의 악몽을 생각하면 더우기 평생을 獨立運動에 바친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벅찬 날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日本은 36년간 우리를 착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韓國 근대화의 시기를 36년간 늦추어 놓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뼈에 사무치고 國土의 兩斷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다.

8·15해방이 國土의 가혹한 분단과 더불어 왔기에 38線 이북 북한주민들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분통과 悲感한 일제보다 더한 共産暗黑 天地의 한맺힌 세월로 이어졌다. 말하자면 8·15는 기쁘면서도 슬픔과 고통이 시작된 날, 욕되게 표현하면 "좋다만" 날이었다.

그 이유는 8·15가 일제식민지 통치에 종지부를 찍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共産 外勢에 의한 民族分斷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요, 일제가 무색할 共産獨裁治下에서 再呻吟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38線이라는 것을 어찌 뜻하였으리오. 日本軍의 무장해제를 위한 임시적인 경계인줄만 알았는데 참으로 우리 民族의 悲運의 魔手였다.

이 뜻하지 않은 38線으로 말미암아 북한에는 소련군이 전역을 점령하니 38선은 국경아닌 국경으로 南北은 異國아닌 異國으로 변하여 북한천지는 鐵의 帳幕이 내려 生地獄化됨에 따라 우리 고장 東草는 불행하게도 地理的으로 38선이 북에 所在한 탓으로 소련軍이 進駐占嶺하니 이 고장 주민들은 恐怖 속에 떨었고 이 江山은 또 다시 신음하였다.

共産分子들은 소련군과 그 走狗 金日成을 내세우고 赤化統一의 망상에 사로잡혀 이 땅에서 날뛰었다. 소련군은 적지에나 온 듯이 폐허화된 이 땅에 絶對不足한 糧穀과 낡은 大小工場 施設을 모조리 소련으로 실어가니 남은 것은 알거지 신세였다. 또한 傀儡政權이 서고 주민 위에 군림하니 共産魔手는 北韓 땅을 송두리채 삼키고 善良한 백성을 공산의 노예로 만들었다.

傀儡治下에서 온갖 自由와 權利와 財産을 빼앗긴 주민들의 反共意識은 나날이 고조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38線을 넘어 자유천지를 찾아 越南하는 분들이 속출하였고 地下反共運動을 하다가 발각되어 教化所에 투옥된 분들이 不知其數이고 대소의 反共義擧事件이 곳곳에서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났다.

이 고장은 地理的으로 38線과 가까운 港口地帶이어서 傀儡들은 가장 중요한 戰略地點으로 삼고 6·25 南侵 전에도 이곳을 橋頭堡로 하여 병력과 물자를 보급하였던 곳이며 50년 6월 25일 人類의 敵이요 韓民族의 원수인 傀儡軍이 一擧에 38線 全域에 걸쳐 남침하니 인류사상 가장 잔학처참하고 人命 財産의 損失이 막심한 전쟁이 벌어져 민족사상 유례없는 同族相殘의 비극으로 한많은 戰爭悲話哀史를 남긴 채 現休戰線에서 일단 戰火만을 멈추었다. 이 고장도 戰禍가 막대하였으니 인명의 손실은 물론 모든 建物과 施設은 완전히 파괴 폐허화되었으며 수많은 戰災民은 死地와 塗炭 속에 빠져 헤매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여러 慘相들을 우리는 용케도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왔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치 않아 正義의 우리 國軍과 平和의 使徒 유엔軍은 38線을 돌파 파죽지세로 北進하니

뒤늦게 복받은 이 고장에 영원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뼈저리도록 차지하게 되었다. 國軍의 북진으로 자유의 땅이 된 이 고장에 억눌려 地下에 잠적했던 反共人士, 越南했다가 돌아온 反共人士, 教化所에서 생환한 반공인사, 자유를 찾아 월남한 반공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自治會 治安隊 各 愛國團體를 구성하고 그들의 獻身的인 봉사로 自治行政을 실시하였다.

50年 1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自治行政 3個月만에 일시 南下避難하였다 再北進으로 다시 수복되어 자치로 행정을 펴다가 51년 7월 주둔 제1군단에서 軍政을 실시하였는 바, 軍官民은 一致團結하여 戰災復舊와 難民救濟 治安維持와 軍作戰支援 등 후방국민의 임무완수가 一路邁進하여 民主政治의 기초를 이루어 軍政 4年에 모든 분야에서 日進月步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다.

54년 11월 17일 드디어 역사적인 行政權이 이양되어 大韓民國의 품 안에 정식으로 수복되니 실로 이 고장 주민들은 다행하고도 다행한 일이었다.

이상 大略이나마 우리 고장 束草의 8·15 解放부터 赤治下를 거쳐 6·25와 國軍進駐 수복후 行政權移讓으로 大韓의 품에 안길 때까지를 돌이켜 보았다.

일제하에서 우리의 수많은 先烈들이 목숨바쳐 獨立運動을 했지만 8·15解放 自體는 우리 民族運動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聯合國에 의한 日本의 敗亡으로 얻은 他律的인 解放이요 강대국에 의한 人爲的으로 분단된 南北이었다. 이 고장이 몇 년을 赤治下에 내맡겨야 했던 쓰라리고 피로운 상처있는 悲哀와 우리 국군이 東部戰線 高城南江까지 北進함에 따른 우리 市域이 完全收復됨을 천만다행한 일로 오늘이 있게 하여진 神과 祖國에 거듭거듭 감사한다.

속상하고 달갑지 않은, 자랑스럽지 못한 지난날을 말끔히 씻어 지워버리기 위해 현재 우리 市의 위치가 反共前哨都市이며 收復地區 유일의 市로 그 속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아직 共産治下에서 혹독한 世襲獨裁의 횡포로 人間以下의 생활 속에서 신음하는 收容所群島 속의 北韓同胞를 구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타지방 주민의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겠다.

우리 市民의 構成比만 보더라도 과거 괴뢰치하에서 共産虐政을 뼈아프게 체험한 원주민과 共産黨에 저항하여 고향을 등지고 월남한 주민을 주로 하여 살고 있다. 특히 북진하는 국군의 뒤를 따라 고향으로 北上하던 越南民들이 전국민의 반대 속에서도 成立된 休戰으로 말미암아 이 고장을 第2故鄕으로 정착하여 望鄕의 恨을 달래고 통일의 의지를 다지며 살고 있는 市民들이 전국 어느 지방보다 많은 곳이다.

이러한 位置와 實相에서 우리에게 요구 되는 당면하고도 절실한 소명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敵을 알고 나를 알아야 百戰百勝하는 法, 즉 共産黨의 정체를 낱낱이 알고 뼈저리게 체험한 우리 시민은 그 누구보다 너를 알고 나를 아는 철저한 反共人임을 自負하고 다시는 지난날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生存을 위하여 滅共의 최일선에서 國家總力 安保態勢로 강화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항상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와 같은 分斷國인 獨逸은 민족의 同質性을 회복하려고 점진적인 門戶開放으로 저렇게 끈질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相互往來는 물론 편지 한 장 電話 한 통도 하지 못하는 오늘의 남북한 관계이다.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번영을 念願하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北傀의 威脅을 물리치고 民族의 숙원인 평화적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聖業을 이룩하는 바탕은 한 두가지가 아니겠으나 나라의 한 모퉁이인 이 고을부터 萬事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總和를 이루는 市民의 和合과 團結을 더욱 다지는데 있다. 부질없는 不協和音이 있다면 이를 지양하고 大義를 위해 화합하는 市民像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긴요하다.

孟子는 가로되 "天運이 아무리 내 쪽에 有利

하다 할지라도 地利만 같지 못하고 또 地利가 제아무리 有利하다 할지라도 人和만 같지 못하다"라고 했다.

이에 우리는 이 고장이 休戰線을 눈앞에 두고 海岸線을 끼고 있으며 收復地區이고 市民의 構成이 다양한 오늘의 위치와 現實을 직시하고 他地域에 비해 諸般與件의 不利로 낙후된 이 고장에 새 터전을 닦는 심정으로 고향을 심어 살기 좋은 理想鄕을 건설하여야 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말하는 地上樂園이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 모습을 北傀에 誇示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市民의 和合과 團結로, 安定만이 우리의 살길이요 安保에의 礎石이며 失地回復의 길을 트는 힘의 바탕임을 명심 또 명심하도록 하자. 우리 市民은 다른 고장 남들보다 더 滅共하는 民主市民, 人和로 團結하는 市民, 부지런하고 잘 사는 市民, 苦難을 헤쳐 이긴 끈질긴 市民이 되기 위해 남들이 졸으면 우리는 뛰면서 우리 고장을 욕되지 않고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未來指向的인 일등시민이 되도록 더 한층 心血을 기울여 自信을 가지고 열심히 살며 精進해야 하겠다.

〈略 歷〉

- 束草市 社會·財務課長
- 襄陽郡 內務課長
- '82年 書記官으로 名譽退任
- 現在 束草市地方行政同友會長

香城寺址 三層石塔(室物 443號)

학생 백일장에 앞서 김종록 원장이 대회사를 하고있다.

속초문화원이 주최한 청소년 대상 문화강좌

84년 속초문화원 정기총회

雪嶽山 神興寺의 由來

金 慧 法
(神興寺 住持)

現神興寺는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本寺이다.

神興寺는 雪嶽山外雪嶽의 主刹이며 가장 역사가 깊은 古刹이다.

寺刹入口에 들어서면 근래에 세운 一柱門앞에 이르른다. 화려한 丹青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쳐다보면 斗供도 특출하며 天井밑으로 두마리의 龍頭가 안팎으로 내밀고 있는 奇觀을 볼 수 있다. 근래에 새긴 조각이지만 그 수법이 매우 寫實的이라 호감을 갖게 한다.

門안으로 들어서면 오른편에 李朝後期의 것인 寺跡碑를 비롯하여 龍岩, 大圓, 碧坡 큰스님들의 비석이 있고, 이름모를 20여기의 부도가 나란히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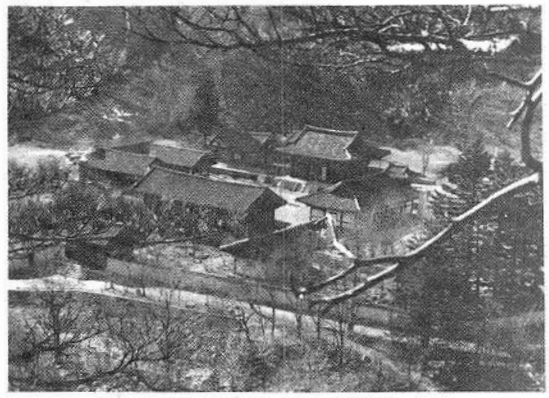
이름모를 숱한 스님네들이 自身의 苦行을 名山 雪嶽苦行에서 터득하려고 一念精進했던 흔적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浮屠는 이름난 스님들이 入寂한 뒤에 그 유골을 안치하여 세운 둥근 돌탑을 말하는 것이다.

人生無常을 이 詩 한 토막에서도 느낄 수 있다.

"옛 스님 다 어디로 가 계시고
모습조차 뵐 길 없네
風雨千年에 浮屠마저 허틀어지고 褪色하였으니 雪嶽苦行 찾는 나그네
눈물 아니 흘리리"

神興寺는 처음 新羅 眞德女王 6年(652)에 慈藏律師가 창건하여 절이름은 香城寺라 불렀다. 香城寺라는 名稱은 "衆香城佛國土"란 뜻을 따서 부친 것이다. 慈藏律師는 佛教의 興法을 위해 전국의 名山을 골고루 찾아 다니다가 이곳 外雪嶽에 절을 세웠다.

寺址인 지금의 자리에서 東方 約 1,000m 地點에 香城寺를 세웠던 것이다. 그로부터 49년후 孝昭王 10年(701)에 화재로 燒失되었다.(現뉴雪嶽호텔跡)



□ 太古의 神秘에 쌓인 神興寺 全景

그때의 高僧 義湘祖師는 지금의 神興寺에서 北方 約 1,500m 地點인 現 內院庵자리에 禪定寺를 重建하고 그후 高麗를 거쳐 조선에 들어와 그간 942년간을 900여 禪僧들이 수도정진중 仁祖 20年(1642) 禪定寺는 다시 火魔로 소실되었다. 그후 2년후인 조선 仁祖 22年(1644)에 高僧인 靈瑞·惠元·蓮玉 세 스님이 一念으로 중건을 念願해 오던 어느날, 비몽사몽간에 香城寺 당시의 少林庵 舊址로 부터 비범한 白髮 神人이 출현하여 現神興寺터를 점지하며 "이곳은 累萬代三災가 미치지 않는 神域이니라" 말씀하시고 홀연히 昇空飛去하거늘 突然覺醒하니 心神을 황

홀하게 하는 꿈을 세 스님이 똑같이 꾸었음에 그 翌朝부터 절을 重創하고 신몽으로 중건된 절이라 하여 절이름을 神興寺라 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本 神興寺는 서기 1912년부터 本山 乾鳳寺(38線以北 현 군작전지구 舊乾鳳寺)의 末寺였으나 1971년 大韓佛教曹溪宗 第3教區本寺로 宗務를 관장(末寺 25個寺庵) 本寺로 昇格되었다.

(1) 極樂寶殿 (地方文化財 第14號)

神興寺 重創時에 같이 건립된 法堂으로서 李朝時代의 건축물 가운데 특이한 것으로 栱包의 아름다움과 丹青의 다양한 紋様은 다른 건물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며, 특히 寶殿內部의 천정은 李朝建築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역시 특별한 배려로 짜여진 천정이다.

(2) 三尊佛像

極樂寶殿의 三尊佛像은 210억의 많은 國土에서 훌륭한 나라를 택하여 理想國을 건설하기로 기원, 또 48願을 세워 自他가 함께 成佛하기를 소원하면서 장구한 수행을 지나 성불한 阿彌陀佛像을 主佛로 모시고 左補處에 施無畏者, 大悲聖者, 救世大士이며 음성을 관하며 慈悲門을 대표하는 觀世音菩薩像을 右補處에는 大精進, 得大勢, 智慧門을 대표하는 大勢至菩薩像을 안치하였다.

本 佛像들은 木製에 金박을 올렸고 新羅 孝昭王 10年(701)에 義湘祖師가 손수 造像(造刻)하였다 한다. 佛像後面에는 華雲紋을 양각하였고 가장자리에 周緣을 두루고 한 가운데는 菩薩形 衣裳을 역시 陽刻하였다.

(3) 冥府殿

朝鮮 英宗 13年(1737)에 高僧 雷運 · 雷尙스님들이 創建하여 조선 정종 21年(1797) 高僧 暢悟 · 巨觀스님등이 重修하고 서기 1975년 聲準스님이 重創及丹青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4) 普濟樓

조선 영조 46年(1770)에 高僧 弘徹 · 弘運스님등이 創建하고 서기 1971년 聲俊스님이 重修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5) 寂默堂

조선 고종 8년(1871)에 化主 尙念스님이 중건하여 서기 1958년 6·25사변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을 月山스님이 重修하여 금일에 이르렀으며 이 寂默堂은 學人들의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6) 三聖閣

조선 고종 29년(1892)에 高僧 仙岳스님이 중건하였는데 이 건물안에는 山王大神 · 熾盛光如來佛 · 天台山上 獨修禪定 那畔尊者를 모시고 있다.

(7) 一柱門

조선 순조 13년(1813)에 高僧 周雲 · 喆修 · 潤贊스님 등이 創建하여 그후 兵禍로 인하여 燒失된 것을 서기 1972년 聲俊스님 重修하였다.

(8) 四天王門

조선 순조 11년(1811)에 고승 周雲 · 喆修스님等이 창건하여 그후 兵禍로 소실된 것을 서기 1972년 聲俊스님이 復元重創하였으며 이 建物안에는 欲界六天 第一인 四王天의 主로서 須彌의 四洲를 수호하는 神인 ① 持國天王 ② 增長天王 ③ 廣目天王 ④ 多聞天王像을 모시고 있다.

(9) 地藏菩薩像

조선 영조 13년(1737)에 高僧 雷運 · 雷應스님등이 조성하였고 그 후 서기 1971년 聲俊스님이 改金佛事하였다. 이 地藏菩薩은 持地 · 妙 · 無邊心이라고도 하며 利天에서 釋迦如來의 부촉(付囑)을 받고 매일 아침 禪定에 들어 衆生의 根機를 觀察, 釋尊이 입적한 뒤부터 彌勒佛이 출현할 때까지 몸을 六道에 나타내어 天上에서 地獄까지의 一切衆生을 教化하는 大慈大悲한 菩薩이라 하는데 冥府殿에 모시었다.

(10) 經板 (地方文化財 第15號)

經板은 朝鮮 顯宗 元年(1660)에 高僧 昊葉스님이 當時에 海藏殿에 保存하여 오던 것을 冥府

⑾ 香城寺址三層石塔 (寶物 第443號)

지금 石塔은 三層뿐이나 建塔 당시는 九層塔이라 한다. 이 탑은 香城寺建立 當時인 서기652년에 造塔한 것으로 新羅塔의 形式을 갖춘 것이

다. 基壇과 初層塔身을 고찰할 때 원래 九層塔이라고 하나 의문되는 점이 없지 않다. 비교적 安定感이 느껴지는 石塔으로서 慈藏律師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釋尊舍利 三十三과를 봉안하였다 한다. 新羅 孝昭王 7年(698) 香城寺가 소실될 때 이 塔만이 남아 있었으나 그후 宣祖 25年(1592) 임진왜란때 병화로 6층이 倒壞되고 上層만 남게 되었다. 相輪部分인 塔頭部는 寶蓋가 없고 塔身의 屋石받침이 매우 정연하여 보기에 퍽 아름다움을 느낀다.

⑿ 極樂寶殿石造階段

五階段花崗岩 石造物로 조선 영조 37년(1761)에 高僧 弘徹·弘運禪師때 완성된 것으로 양쪽에 늘어진 龍頭와 옆면에 조각된 무늬가 지금도 선명하여 그 정교함이 미술적인 위치를 더해주고 있다.

⒀ 大 鐘

大鐘은 香城寺創建當時인 서기 652년에 주조한 것으로 香城寺가 불타버릴 때 깨어진 것을 영조 34년(1757)에 弘漢禪師가 개주하였다. 6·25동란당시 총상을 입은채 普濟樓에 保管중인데 이 鐘은 金·銀·銅·鐵이 혼합되어 주조된 것이다. 현재 打鐘하고 있는 鐘閣의 大鐘은 서기 1965년 朴正熙大統領과 令夫人 陸英修女史 그리고 佛子들의 施主로 주조되었다.

⒁ 靑銅시루 (地方文化財 第14號)

朝鮮 純祖 元年(1801)에 純祖大王께서 하사하신 것으로 碧坡禪師가 龍船殿을 건립하고 歷代李朝王祖의 위패를 奉安하고 奉祭때 사용토록 下賜하신 것이라 한다. 一說에 의하면 이상한 징조가 있을 때에는 신비스러운 소리를 내므로 신비한 시루로도 알려지고 있다.

※ 이외 山內庵子인 安養庵·內院庵·繼祖庵·神興瀑布(土旺瀑布)·臥仙台·飛仙台·金剛窟·權金城·飛龍瀑布와 기타는 다음 號에 자상히 소개하기로 한다.

〈略 歷〉

- 姓名 金 千一, 法名 慧法, 1938. 4. 25.生
- 慶北 盈德 태생
- 1958. 7. 慶洲佛國寺 入山 得度
- 1966. 3. 釜山 梵魚寺에서 比丘戒 受持
- 1973. 2.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에서 碩士學位取得
- 1975. 12. 東國大學校大學院 法學科 博士課程修了
- 1977. 8. 第16教區 本寺孤雲寺 住持
- 1977. 10. 第1教區 서울曹溪寺住持
- 1978. 第5, 6, 7代 中央宗會議員
- 1983. 8. 第3教區 本寺神興寺住持(現)
- 1984. 8. 中央宗會議員(現)
- 1985. 1. 法學博士學位(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永郎湖와 東邦레저타운

崔 龍 文
(本誌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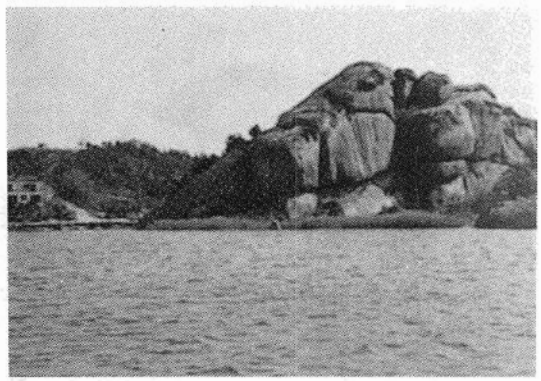
우리나라 굴지의 동방 레저콘도가 자리한 永郎湖는 속초시 북쪽(시청에서 1.5km)에 위치한 둘레 8km, 넓이 120만㎡의 거대한 호수이다.

이 호수를 永郎湖라 이름 붙이게 된 삼국유사의 기록을 간추린다.

新羅의 화랑 영랑(永郎)이 같은 낭도인 술랑, 인상, 남석등과 함께 금강산에서 수련하고 신라의 서울 금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승지 삼일포에서 유람한 후 각각 헤어져 永郎은 동해안을 따라 금성으로 가는 길에 호반을 지나다 발길을 멈추고 「아!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한 호수가 ……」라고 감탄한 것은 거울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빨간 저녁노을로 한결 웅대하게 부각된 설악산 울산바위와 청봉, 그리고 범바위가 그대로 물 속에 잠겨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永郎은 그만 호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금성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물고기를 낚고 풍류를 즐겼다 하여 뒤에 사람들은 이 호수를 「永郎湖」라 불렀으며 이후 화랑의 순례도장으로 되었다.

이 永郎에 화랑기념비가 세워졌다는 증언이고 보면 수련장의 웅대함이 대단했다는 뜻일 것이다.



永郎湖의 자연경관을 더 소개함은 오늘의 관광레저시대에 또 이만한 곳은 그 어디서 찾으랴 싶음이라겠다.

호수 주위에 낮은 송림과 범바위, 노적바위등 큰바위로 둘러싸여 호수의 풍치를 한층 돋보여 주고 있으며, 바닷물이 섞인 기수호이기 때문에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등 풍부한 어족이 서식하여 예로부터 낚시터로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10월 하순에 이곳에 날아와서 4월에 돌아가는 철새의 귀족인 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를 비롯하여 청둥오리, 가창오리등 수백종의 수백만마리의 철새들이 호수의 장관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백사 이 항복의 후손으로 조선 숙종때 홍주목사를 지낸 이 세구가 이 낭만의 호수를 읊은 시를 기록해 본다.

「모래사장 동쪽 솔밭을 지나니
맑고 깨끗한 곳 바람도 없네.
호수는 한 폭의 그림이요
설악의 청봉이 거울 속에 잠겼네.
금강의 만이천봉 두루 돌아서
명사십리 해당화 길 밟고 내려와
영랑호반에 서니 눈이 번쩍 뜨이네
어화 좋다 술동이 장단치며 노래 부른다.」

우리나라 굴지의 원양개발회사인 (주) 동방원양개발공사 (회장 尹 基元)가 이 永郎湖의 내

수면개발로 시작, 관광레저타운을 건설함도 우연은 아니다.

15척의 원양어선으로 오대양을 누비고 있는 (주) 동방원양개발공사는 세계적으로도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추고 있는 이 永郎湖를 발견, 73년 자회사인 동방호산개발(주)을 발족, 호수 공원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현재 70억원을 투자,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콘도미니엄, 토속음식점, 매머드해수풀, 골프장, 어린이광장, 수상스키장, 동물원은 이미 개장했으며 오는 86년초까지 관광호텔, 나이트클럽, 양궁장등 모두 27종의 사업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한 永郎湖畔의 동방레저타운은 명실공히 국내 제일의 관광지로 그 자리를 굳힘은 확실하다.

灵琴亭의 由來와 傳說

(일명 秘仙臺)

金 鳳 春
(平統諮問委員)

束草市 東明洞 소재 "束草燈臺" 밑의 바닷가에 널평한 바위들이 많이 깔려 있는 곳이 靈琴亭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옛부터 이곳은 여름철이면 이 지역 주민들이 피서지 또는 낚시터로 애용하여온 곳인데 지금은 수산관광도시개발의 일환으로 道와 市當局의 지원하에 267.7㎡(81평)의 대형축양장을 겸한 해변유원지로 개발되어서 활어생선횟집들을 시설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을 靈琴亭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는 亭閣이나 亭子가 있어서가 아니다.

옛날 이곳에는 사방이 절벽을 이룬 석산이 있었는데 이 석산절벽 위에는 괴석들이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亭子 모양으로 둘러서 있었는데 석산꼭대기에는 큰 노송이 두 그루 서 있었다고 한다.

이 노송의 크기가 어른 세 사람이 팔을 뻗어야 겨우 맞닿을 정도의 큰 노송이었다고 한다. 이 석산은 세면은 바다에 잇닿아서 좁은 길이 있었으므로 어렵게 석산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고 한다.

석산꼭대기에 오르면 암반이 평평해서 몇 사람이 앉아서 놀 수가 있었고 꼭대기 바위바닥에는 將士가 天馬를 타고 달린 말자국이 있었으며 말 죽통같은 괴석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징"바위가 있었는데 이 괴석을 발길로 툭 차면 "징"소리 같은 이 괴음이 나므로 "징"바위라 하였는데 그 "징"소리가 한 사람 힘으로나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 차거나 울리는 정도와 소리가 같았다고 한다.

또 괴이한 것은 파도가 석산벽에 부딪치면 신묘한 음곡이 들려 왔으므로 이것은 신령한 "거문고"소리와 같다고 해보 靈琴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밤이면 선녀들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신묘한 음조곡을 즐기면서 놀던 곳이라 하여 "秘仙臺"라는 이름도 붙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양양군 도호부에 "秘仙臺"는 府東쪽 50리 "双成湖"(註; 青草湖를 말함) 동쪽에 있다.

돌봉우리가 가파르게 빼어났고 위에 노송 두어 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같다. 그 위에는 앉을만하여 실같은 길이 육지와 통했는데 바다물결이 사나와 치면 건널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석산을 볼 수는 없고 석산의 자리만 남아 있는데 이 "靈琴亭" 석산을 깨어서 일제시 속초항만의 축항공사의 석재로 쓰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속초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비록 지금은 그 석산 "靈琴亭"이나 그 신묘

한 음곡조는 불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날로 성장 발전하는 束草市의 맥전고동과 "靈琴亭"의 신묘한 음곡이 화음이 되어 영원히 메아리치고 있다.

青湖洞의 나룻배 (渡船場)

董 文 星
(裕岩文化財團 理事長)

속초사람들은 속초시 중앙동(中央洞)과 청호동(青湖洞) 사이를 넘나드는 도선을 갯배라고 부른다. 그래서 도선장을 일컬어 하는 말이 갯배머리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선장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서글픈 이별의 장소로서 머리에 떠올리기 보통이지만 속초의 도선장은 그런 슬픈 이별의 장소와는 하등 관계없는 도선장이라는 점에서 전국에 많이 산재해 있는 도선장과 다른 일면을 가지고 있다. 또 속초사람들이 도선장을 갯배머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갯가란 말은 조수(潮水)가 드나드는 강(江)이나 내(川)의 가, 물이 흐르는 가장자리로 해석되고 있는데 우리의 도선장은 갯가의 낭만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은 속초항의 수로(水路)를 가로질러 사람들이 말하는 갯배가 운항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나룻배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속초의 도선장이 시작된 것은 속초가 수복된 직후인 1952년이 아닌가 기억된다. 속초시 청호동(당시 속초읍 5구)은 조양동에서 속초항남방파제쪽으로 뻗어나간 반도형(半島形)지형으로 생긴 백사장이었다. 이 곳에는 일제말엽 동해연안에서 무진장 잡힌 정어리 가공공장과 다른 농축산물 가공시설이 몇 동이 있었을 뿐인데 그 시설조차 6·25 전란통에 모두 파괴돼 버리고 성성한 백사장만이 남게 됐던 곳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과 함께 이 곳에는 고향을 이북에 두고온 월남 동포들이 한치의 땅이라도 더 고향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는 집념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판자집을 짓고 취락을 형성함으로써 단시간에 마을로 변천했다.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였으나 마을사람들이 잡아 온 생선이며 또 그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마을에서 팔고 사거나 하는 능은 이룩될 수가 없었다. 생선을 내다 팔고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중앙동(당시 속초읍 3구)쪽으로 거룻배를 타고 건너올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실정만해도 빈약한 청호동 주민들의 처지로서는 집집마다 거룻배도 없었던 형편이고 잡아 온 고기의 싱싱한대로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들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갯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극히 작은 일이지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과 「수요는 공급을 창출」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속초의 갯배가 탄생한 것이었다.

속초의 갯배의 효시는 고성봉수리(현재 이북지역)에서 월남한 조막손이란 김씨 노인이 사람이 20명쯤 탈 수 있는 갯배를 지어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를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서 뱃삯을 받았다. 지금의 기억으로는 김노인은 뱃삯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태워다 주면서 무료 봉사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갯배의 김 노인은 작고한 지 20년을 훨씬 지나고 있지만 그 당시 코흘리개였던 그의 아들은 경찰간부로서 속초서에서 충실한 민중의 지팡이로 근무하고 있음은 아버지의 착한 마음씨가 자식에게 전신(轉身)을 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후 속초항이 우리나라 최북단의 어업전진기지(漁業前進基地)로서 각광을 받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자 당시의 읍사무소(邑事務所)는 김노인으로부터 갯배를 인수하여 5구(청호동)사무소로 하여금 관리케 하다가 읍사무소가 직접 이를 운영하게 이르렀다. 갯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적차원(公益的次元)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에는 속초시를 거쳐 속초시 재향군인회에서 갯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에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속초읍사무소가 김씨노인으로 부터 갯배를 인수하여 5구(동호동)사무소에 관리권을 넘겨줄 무렵부터 청호동주민에게는 도선료(渡船料)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그것이 깰 수 없는 관례(慣例)가 됐고 연안에서 잘 잡히던 오징어와 명태등이 잘 잡히지 않자 청호동쪽에서 가공돼 갯배를 이용하여 넘어오던 수산물량이 격감하여 현재의 경영자는 큰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도선관계법(渡船關係法)의 규정에 따라 매년 갯배는 수리를 해야하고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조건때문에 연간 150만원의 공유수면사용료를 국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경영진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시내버스가 등장하기 전만해도 조양동·대포동·강현면 주민들이 속초에 올 때 이 갯배를 이용했지만 현대적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이 갯배는 현실을 꾸려가기가 정말로 힘든 처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강가에 설치돼 애틋한 이별의 슬픔과 환희의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게 했던 그 많던 갯배들은 이제 현대적 교량의 가설로 그 전설마저 아스라이 잊혀지게 된다. 우리들의 갯배는 그같은 희망도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견주어 보지 못한다. 외지의 관광객들이 시가지 한복판을 넘나드는 갯배에 호기심을 갖고 한때나마 바라보는 것과 기껏 팔자(?)가 피었다고 하면 영화나 TV모델이 되는 것이 최상인 갯배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다.

收復記念塔의 由來와 復元

池 一 權
(본지 편집위원)

束草市의 象徵, 收復記念塔-. 이 塔에 얽힌 사연은 한마디로 離散家族들의 피맺힌 恨이 응어리진 母子像이 대변해 준다.

이 塔을 휴전후인 1954년 5월 10일 民族統一

의 念願과 월남 실향민들의 희망과 한을 달래는 복합적인 뜻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당시 束草邑과 第1軍團의 지원으로 함경도에서 피난온 태반의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李亨贊씨 설계, 조각가 朴七星씨의 모자상 제작으로 속초항 북판에 북녘을 향해 건립됐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塔은 休戰線 東西全域의 收復地區엔 유일한 反共戰跡記念塔으로 주민들에게 6.25사변의 처절했던 참상과 분단의 설움을 영원토록 아로새겨졌던 것이다.

그러던 이 塔이 지난 83년 4월 27일 새벽, 동해안을 휩쓴 강풍이 母子像을 깡그리 뭉개버렸다.

실로 30여년만의 異變이었다. 그동안 江山도 세번씩이나 변할 수 있었던 긴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이 모자상탑은 특수기후인 동해의 모진 五害(風·水·旱·雪·潮害)를 꿋질기게 버텨 오면서 주민들에게 숱한 애환을 심어온 셈이다.

이 母子像이 행방불명(?)되자 『復元해야한다』는 주민 반응이 전격적으로 번졌다. 심지어 시민들은 이 모자상이 『他鄕살이 30년, 고향못가는 신세타령』으로 동해에 빠져 자살했다느니, 또한 바다에 고기잡이갔던 어부들은 마음의 고향인 이 탑이 歸港길에 보이지 않자 늘 『불안할뿐 아니라 통 고기도 못잡는다』는등 불안한 화제로 꼬리를 물었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83년 5월초 汎市民的인 收復記念塔復元建立委員會가 發足, 위원장에 金鍾祿 문화원장을 위시하여 임원 30여명이 기금 확보에 나섰다. 市民反應은 의외로 좋았다.

東邦遠洋 尹基元 회장을 비롯 唯新冷凍 李源益 사장, 雪嶽케이블카 金亨東 사장, 韓進商社 李揆喆 사장, 束草水協長 申永澈씨, 東海 택시 許璇道 사장등, 그리고 束草女高 교직원과 학생 海警隊등 많은 단체들이 자진해서 성금을 기탁해 왔다.

이밖에도 몇 10만원씩 기탁자는 수없이 많았다. 심지어 靑湖洞 익명의 어부는 明太 한 두름(20마리)을 맡겼는가 하면, 어린 꼬마들이 벙어리 저금통을 들고 왔으며, 밤거리의 불우한 포장마차 친목회에서도 성금을 갖고 오는등 당시의 온 束草市民들의 갸륵했던 참 뜻이 收復塔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熱火처럼 활활 탔던가-. 두 말할 나위 없다.

탑복원건립위원회는 여름철 市中 不況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시민성금 4천여만원과 金光容 市長께서 시비 1천여만원등을 들여 그 해 9월 2일 원래 이 母子像을 조각했던 朴七星씨로 하여금 收復記念塔과 母子銅像등 전체를 복원, 再現케 하여 11월 17일 상오 현장에서 역사적인 除幕式을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嚴守했다.

복원된 이 塔은 花崗岩 座台幅 4m, 塔身高 7m, 母子銅像高 2.55m, 總塔높이 9.55m로 원형보다 2m가량 높다. 특징이라면 銅像座台高가 국내에서 제1 높은 것이며 『收復記念塔』 휘호도 당시 1軍團民事處 소속 書藝家 金亨胤 소령의 원형을 烏石에 옮겨 조각했다.

또한 塔身 前面座台에 大型 「軍·警·民立體北進像」을 銅으로 조각하고 뒷면 塔身엔 東宇專門大學長 韓相甲씨의 「民族統一」이란 휘호가 크게 부각돼 시선을 끌었다.

더우기 이 塔의 자랑거리는 戰爭遺跡碑塔으로서는 국내는 물론 常例처럼 돼있는 「軍·警彫刻銅像」아닌 순수 민간인 「母子彫刻像」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없어 休戰후 外國 종군기자들의 뉴스焦點으로 각광을 받았으며 근래에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필수적인 관광코스로 붐벼 더욱 그 뜻이 빛나고 있다.

이 母子像을 조각했던 원작자 朴씨에 의하면 그 自身이 共産黨이 싫어 6·25때 월남한 失鄕民

으로서 이 중책을 맡고 고민 끝에 같은 판자집(하꼬방)에 기거하다가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현지 입대한 同鄕先輩가족의 숙명적인 애절한 이별과 기약을 實象化시켜 보려는 뜻에서 이 作品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30여년만에 그 眞意를 밝혔다.

『애비따라 어서 가자-. 내 고향 저 보인다-.』 아들의 손목을 잡고 기나긴 세월동안 수없이 읊조렸던 피맺힌 恨이었지만 그 메아리는 영영 東海의 滄波처럼 물거품으로만 변할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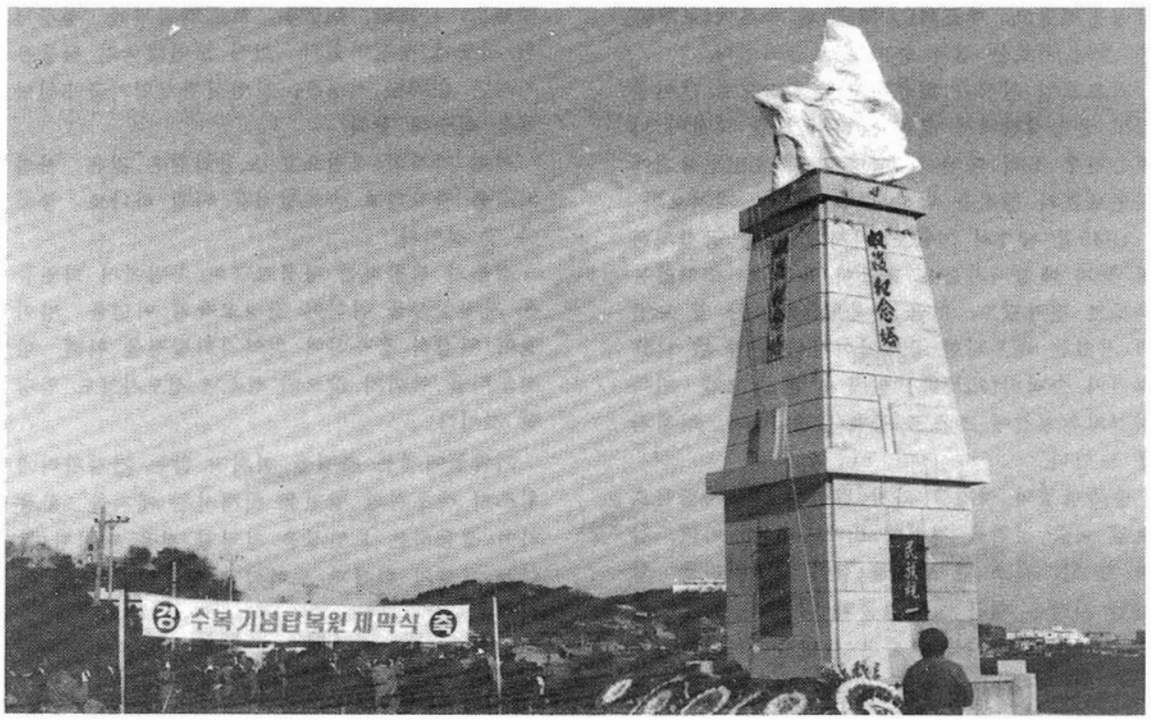
이같은 이산가족들의 애절한 사연은 母子像賦를 지어주신 張虎崗 詩人(豫備役將軍·韓國參戰詩人協會長)의 글 속에서도 알 수 있다.

「첩첩 높이 솟은 산봉우리 앞을 가리고 구비구비 험한 길 아득히 멀어도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손도손 망향의 이야기 나누며 북녘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치고 어느 짓궂은 길손이 그 앞길가로 막는다 한들 두 생명 다하도록 낮도 밤도 없이 가야만 하느니.

도대체 그 누가 날린 저주의 화살일까.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어느 날 땅과 바다와 하늘이 둘로 갈리고 동족상잔의 처절한 피바다의 싸움으로 그 아름다운 강산 두고온 옛집이 잿더미로 변했다손 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피땀흘려 일군 밭과 논 그 정든 삶터를 찾아 마냥 가야만 하느니.

뼈에 저리도록 허구한 고된 날이 본시 살결 고운 북녘 아낙네 예쁜 얼굴에 주름끼 고이기로서니 삼단 검은 머리에 흰 카락 불어나기로서니 항시 머리 위에는 넓고 푸른 하늘이 열려 있기에 모진 풍파 욕된 세월에도 손과 손 굳게 붙잡고 통일의 새 날을 겨누어 줄곧 앞으로 가야만 하느니.

북으로 오직 북으로 고향길 더듬는 네 다리는 비록 갸날프지만 성난 해일 거센 폭풍에 깊이 쌓이는 모래밭 헤쳐가며 걸음 걸음 내디디는 참된 보람에 줄어든 보따리 옆에 소중히 끼고 오늘도 동해 갈매기 노래를 엿듣노라면 불현듯 아롱진 향수가 담뿍 어리는 그 길을 쉬지 않고 가야만 하느니.」



나의 提言

노인들도 地域社會發展에 참여

金 鎔 基
(東草老人會長)

빼어난 설악산과 청초호는 속초를 더욱 빛나게 한다.

1940년대의 속초는 동해안 최대 어획지요 경제중심지였다. 당시 청호동과 교동은 정어리 비료공장지였고, 대포역(大浦驛)과 속초역(束草驛)에 쌓인 비료는 전국 농가로 보급되었다.

청초호에 청어가 회유하고 삼각망으로 청어를 잡고 굴양식장에서 생굴을 따던 모습 되살아 나려는지? 우리 다같이 생명있는 호반만들기에 자연보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

1945년 광복의 기쁨도 가시기 전에 공산치하에 들자 애향지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주인없는 속초로 전락했고, 지금 수복탑(收復塔) 옆 노변에 서있는 속초개항 공로자이시던 옵장 故 朴祥喜씨의 송덕비(頌德碑) 앞에 서면 숭고한 민족자결의욕정신에 스스로 몽매(夢昧)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동족상쟁의 역경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들로 모인 이곳, 정착을 결심하고 오징어 한 마리, 감자 한 알, 채소 한 포기를 심어 자립의지를 실천한 사람은 철근 고층건물과 대형어선으로 풍요로운 속초를 이룩한 숨은 주인들이리라.

속초는 아직도 교류의 사각지대이다. 대도시와의 중추를 이루고 문화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시령을 고속도로화하는 것이다. 서울과의 3시간 30분대의 교통은 관광객은 물론 전국의 1일 생활권으로 단축하며 문화의 전도는 날로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

교육 특히 대학은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전당이요 요람이다. 한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교육불모지의 취급을 하지 않도록 문교당국에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이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 요망된다.

우리 노인회는 전국적으로 우수 운영단체로서 알려져 있다. 4년전 회장직을 맡고보니 운영기금이 무일푼이었다.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하여 權重玉, 朴益勳, 李虎舜, 鄭鍾勳 그리고 故 崔在福 회원들의 활동으로 8백만원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우리의 고민을 동우전문대학에서는 부설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제2기 수료식을 가졌으며, 이는 노인들의 사회발전과 계발에 대한 산 지식과 슬기를 불러 일으켜 주었다. 한편 속초소방서 鄭求顯 서장은 노인대학 강의때 마다 다과를 제공하였고, 방학때에는 소방서 회의실에 한문서당을 개설하여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權重玉, 朴益勳, 魚敬學, 鄭鍾勳제씨가 청장년의 지도에 정진하였다. 이런 노인대학의 활동을 지켜본 金澤松 선생은, 노인회관건립기금 5천만원을 전수해 왔다.

이런 각계의 성원으로 노인회원은 깊은 사명의식을 자각하고 속초발전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창하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회원들은 자질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을 받아들여 열심히 공부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청소년 선도사업도 담당할 것이다.

가족들에게는 걱정을 끼치지 않는 건강관리에 힘쓰며 속초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지를 활용하여 생동하는 노인상을 정립할 것을 다짐한다. 이는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略 歷〉

○ 속초 초·중·고 육성회장
○ 영랑보육원 재단이사장

鄕土文化의 土臺 다지기를

金 亨 東
(雪嶽觀光代表理事)

한 겨레의 번영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강약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民族 固有의 精神文化를 어떻게 守護發展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할 것이다.

精神文化의 토대가 약한 민족은 비록 한때의 富強을 누린다해도 그것이 오히려 內部崩壞의 화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교훈에서 느끼고 있다.

三國統一의 대업을 이룩한 新羅가 병들게 된 것도 화랑도 정신의 타락과 풍요를 구가하는데서 비롯되었고 저 강성을 자랑했던 『로마』의 末路가 역시 그러했으며, 또한 오늘날 西獨病이라는 말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정작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조상들의 復興精神을 망각한 二世들의 무분별한 享樂行脚에서 비롯되었다 할것이다.

결국 경제적 풍요를 지배하고 극복 향유할만한 정신문화의 토대가 약한데서 빚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한 민족의 정신문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은 건전한 향토문화의 바탕을 다지는데서 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그런 點에서 우리 束草는 강원도의 가장 요긴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여러 특색있는 傳統과 固有文化를 지니고 있는 고장이다.

근래에 와서 觀光事業의 붐과 지역개발에 따르는 번영 발전으로 束草는 나날이 그 면모를 달리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이 고장의 傳統文化와 美風良俗이 점차 사라져 가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四通八達과도 같은 위치에서 수많은 外來客들에 밀리다 보면 이 고장 본래의 순후한 鄕土人心과 主體的인 固有文化를 상실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창간되는 『束草文化』는 이 고장 본래의 진면모를 復元시켜 주는데 크게 기여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못내 기대해보는 마음 간절하다.

부디 이 고장 번영발전의 內面的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 略 歷 〉

- ㅇ 속초지역관광협회장
- ㅇ 도정 자문위원
- ㅇ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봉사활동

千 炳 順
(속초婦女새마을협의회장)

봉사활동이란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 강요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도와 주고 싶어하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기에 대한 희생의 정신이 있는 이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 부녀회의 봉사자들은 나라에 천재지변이라든가 그외의 크고 작은 불행이 닥쳤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웃의 불행에 동참하며, 상부상조하는 새마을 협동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또 지도자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며 인내의 부족에서 오는 대인관계의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끊임없는 성찰로 자기 완성을 위해 숙고한다. 사회는 이러한 노고와 완성을 지향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 이해의 눈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흔히들 새마을 지도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나 그런 것은 아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투철한 국가관, 왕성한 활동력과 인내심, 아량이 있으면 누구나 새마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운동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물론 부녀자들이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뒤따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주부가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중의 부담감 속에서 남보다 더 바쁜 일상생활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조그만 힘이 사회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사회 지도층 부녀자들은 내 가정만을 보살피던 손길을 사회에게로 뻗쳐 이웃을 도와주고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고충은 개개인의 꿋꿋한 의지와 인내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의 따뜻한 격려와 이해의 눈길은 외롭고 고달픈 우리 부녀회원들의 길을 즐겁고 보람있는 봉사자의 길로 전환시키리라 생각하며 많은 이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反共의 前哨都市

朴 正 一
(反共聯盟束草市支部長)

로타리클럽束草地區會長
조양주유소·부흥까스 代表

束草市에서 北方으로 불과 40여km 떨어진 전방에는 軍事 分界線과 統一展望臺가 있다. 그러므로 속초시는 반공의 前哨基地임에 틀림이 없다. 항상 호전적인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지형적 위치에서 현실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 束草市에서 生業을 닦고 이루는 常住人口의 과반수 주민이 고향을 以北에 두고온 失鄕民임을 부정치 못한다.

어느 도시의 어떤 계층을 비교해도 속초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반공을 생활화하고 반공만이 생존권을 수호하는 최상의 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6·25 전에는 共産執權 안에 살면서 모질게 학대를 받으며 갖은 고난을 겪어온 收復地區 임에 틀림이 없다.

꿈에서라도 잊을 수 없는 고향산천을 그리고 봉황이라도 날으는 듯한 착각을 헤일 수 있을만큼 느껴 보았던 그리움, 望鄕의 情은 세월이 흐른만큼 커만 가는 鄕愁의 秋夕節 한가위를 안타깝게 그리는 창공과 북녘 하늘밑 세계, 時時로 저주해 보기도 한다. 왜 그럴까. 김일성도당 때문에……. 이번에 束草文化院에서 創刊을 보게된 文化誌에 원고청탁을 받고 本人은 무척 감회가 깊었다.

束草市가 이만큼 성장을 보았다는 사실도 놀라왔지만 그 보다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合衆市民들의 단합된 의지가 이 향토지에 수록된 것이라는 기대감에 서 있다. 또 하나는 筆者가 반공연맹 속초지부에 몸 담아온지도 벌써 3개성상이 되었지만 주민과 전후세대의 너무도 눈물겨운 협조와 참여의식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지면이 있다는 사실에서이다.

어떤 행사나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일반 시민이나 학생의 동원이 그저 쉬운것이 아닌데도 우리 속초시민이나 학생들이 반공을 주체로 모이는 궐기대회나 안보강연같은 행사에 대단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참하여 주었다.

對北對共의 경각심이 어느 지역사회의 주민들보다 강하고 북괴집단의 악랄한 만행을 체험한 반공투사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만도 아닌 것 같다.

그것은 全市民이 대공 홍보사업에 협력한 의식의 표현이라고 결론짓기에 앞서 생활권이 북괴와의 거리상 너무도 가깝고 바다가 主生活의 터전이라는 지리적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反共의 도시, 觀光의 도시, 水産都市, 그것은 束草市의 현실과 이념의 표현이 되어왔고, 앞으로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이라는 것을 계기로 선진조국창조의 찬연한 금자탑을 쌓아 올려 세계 속의 束草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 名山 雪嶽의 정기가 넘쳐 흐르는 반공의 도시 束草市가 있고 질서가 정착된 관광지가 함께 어울려 大韓 第一의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8만 속초시민은 똘똘 뭉쳐서 反共을 생활화하는데에 계속 매진해야 할 것이며 정직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한 질서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친절한 市民像을 이룩해야 한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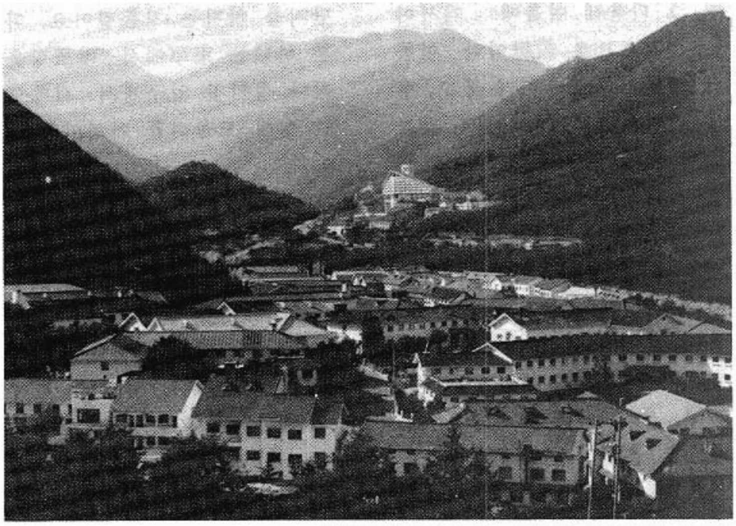
祝刊詩

알깨는 소리

詩人 李 聖 善

설악이 날개를 펴네.
동해 바다 해 떠오르는 소리.
밤새도록 저 바람 속에 울던
나무가 깨어나
이제 새로운 차비를 서두르네.
이 새벽 돌 깎는 소리.
기둥 깎는 소리
새 길 새 바다가 번쩍이네.
오랜 찬 바람에 견디고
그 지리한 겨울을 지낸 이 땅의
풀잎들아
새로 돋아 푸르게 자라는 풀잎들아.
이 아침의 햇살 속에
서로 가슴 기대고
마음과 마음을 묶어
둥우리 틀어
새알을 깨우느니
이 땅에 알 깨는 소리.
새 생명의 날개짓 소리.
새벽에 옷 벗은 나무여
저 푸른 동해 줄기 벋고 가지 벋어서
저 설악의 날개 펴고
하늘을 날아라.
별밭처럼
하늘 가득 꽃을 피워라.

국립공원 설악산 (外雪嶽編)



朴 益 勳

설악산 관광촌의 C지구 관광촌 전경

雪 嶽 山

내 고장 자랑이라 하면 먼저 國立公園 雪嶽山을 빼놓을 수 없다.

고려말 江陵道 安廉使 (道知事)로 있던 安軸이 永郎湖에 와서 雪嶽山을 바라보며 이곳 경관을 읊은 詩중에 "暮雲半捲山如畵"란 귀절이 있는데, 풀이해 보면 "저문날 구름이 반쯤 걷히니 山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구나"라는 뜻이다. 安軸은 慶北 豊基 사람으로 元나라에 가서 제과에 급제하여 遼陽路 蓋州判官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귀국한 분이다. 그가 江陵 安廉使로 있을 때 관동팔경을 두루 돌아보고 많은 詩文을 썼는데 이를 關東別曲(松江의 關東別曲과 다름)이라 한다.

자고로 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긴 詩文이 수없이 많았고 그 詩文 중에서도 雪嶽을 평하는 글에 "金剛秀而不雄 智異雄而不秀 雪嶽秀而雄" 이라 했으니 즉 金剛山은 수려하기는 하나 웅장하지 못하고, 智異山은 웅장하기는 하나 수려하지 못한데 비하여 雪嶽山은 수려한데다가 웅장하기도 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詩와 그림에 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雪嶽山에 서려있는 신비를 다 나타낼 수는 없을 것이다. 山山水水 많은 전설과 신비에 싸여있는 雪嶽은 이 고장 각급 학교들의 校歌에도, 詩人 墨客들의 詩, 書題에도 널리 애송되어 오는 이 고을 靈山이기도 하다.

雪嶽山은 남한에서 한라산과 지리산 다음가는 해발 1,708m나 되는 높은 산으로 三國史記에는 "雪山" "雪華山"으로 기록되어 있는가하면, 襄陽郡誌에는 "寒溪山"이라고도 적혀있다. 동국여지승람과 문헌비고에는 "……極高峻 仲秋始雪 至夏而消 故各焉"(극히 높고 험한 산으로 중추에 눈이 내리

면 그 다음해 여름에 가서야 눈이 녹으므로 雪嶽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라 했고, 평생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恨이 되어 男裝을 하고 여러곳을 거쳐 금강산까지 구경 했다는 저 유명한 여류시인 錦園女史가 쓴 湖東西洛記에 "石白如雪 故名雪嶽"(설악산 돌은 눈과 같이 희므로 雪嶽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뜻)이라 했는가 하면, 鷺山 이은상 선생은 雪嶽山은 본래 "살뫼"였는데 한자로 쓰다보니 雪嶽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살뫼"의 "살"은 "설"의 음역으로 神聖崇高 潔白이란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름의 유래야 어찌 되었던 雪嶽山이야말로 奇岩怪石 流曲水 모두가 다 절세의 경관이요 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自然의 寶庫이며 수천 수만년을 두고 간직해 온 전설과 신비의 雪嶽은 과연 天下의 名山이요 우리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雪嶽山의 主峯인 大靑峯을 주축으로 북쪽 인제방면을 內雪嶽이라 하고, 남쪽 양양방면을 남설악이라 하며 동쪽인 속초방면을 외설악이라 부른다.

雪嶽을 찾는 길도 세 갈래인데 南雪嶽 五色藥水터 쪽으로 가는 코스와 內雪嶽 百潭寺 쪽으로 가는 코스도 있지만 外雪嶽 神興寺方面을 찾는 길이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속초서 차를 타고 外雪嶽을 찾으려면 두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尺山溫泉이 있는 노학동을 거쳐 목우재를 넘어서 신단지를 빠지는 지름길이요, 다른 하나는 束草에서 대포항을 지나 설악산 입구에서 서쪽으로 향해 도문리를 거쳐가는 길이다.

尺山溫泉

尺山溫泉은 束草에서 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노학동에 있는데 여관시설도 잘되어 있고 각 여관마다 가족탕과 대중탕이 구비되어 있다. 요금도 일반 목욕탕과 같아서 관광시즌에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속초시민과 외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水質은 다른 溫泉에서는 볼 수 없는 불소가 특히 많이 함유된 알카리성 온천이어서 위장병, 신경통, 치통, 치질, 피부병, 원자병등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척산온천 단지내에 84년도말 또하나의 관광명소인 대형 척산온천센터가 준공되었다.

주변에는 松林이 우거져 있고 맑은 공기 아름다운 새소리가 머물러 있어 목욕한 뒤의 상쾌한 기분이란 문자 그대로 신선이란 착각을 느낄 정도다.

머리를 돌려 북동쪽을 바라보면 束草唯一의 東字專門大學이 우뚝 솟아있고 서북 쪽으로 4, 5百m 떨어진 곳에는 觀光레저산업의 기수로 알려져 있는 正亞그룹이 대규모로 위락시설을 건설중에 있는데 일부는 이미 개장되어 수많은 관광행렬이 꼬리를 잇고 있다.

이곳 地名도 동리 앞산이 마치 자(曲尺)와 같이 생겼다하여 尺山이라는 마을 이름이 붙게 되었다 한다.

牧 牛 재

牧牛재는 십여년전만해도 人馬가 겨우 지나 다닐 정도의 험로였지만 새 도로가 개통되고 부터는 束草와 新開地를 잇는 交通要路로 등장하게 되었다.

차안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아득히 보이는 東海의 水平線, 넓은 정원안에 아담하게 만들어진 蓮池처럼 보이는 永郎湖와 靑草湖 靑山綠水 사이에 높고 낮은 건물들이 짜임새있게

보이는 端雅한 束草市街, 그야말로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이다.

이 고개는 그리 높지도 않아 봄·가을이면 싸이클 선수들의 연습코스로 많이 애용되고 있기도 하다.

옛날 神興寺가 한창 번창할 때 지금 노학동 일대에 있는 토지가 전부 신흥사 소유인 탓에,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이고 장 農民들이 小作料를 소에 실어 이 고개를 넘어 갔다 바쳐야 하였으므로 이 고개 이름을 牧牛재라 부르게 되었다한다.

青 草 湖

束草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雪嶽山으로 가려면 青草湖를 돌아가게 되는데 이 호수야 말로 속초를 부산 다음가는 東海市 第一漁港으로 등장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雙成湖 在府北四十里 杆城郡界 周數十里 湖之形 勝優於 永郎湖 昔置萬戶營 泊兵船 今廢"라 했으니 말하자면 쌍성호는 양양부 북쪽 40리 거리인 간성군 경계에 있는데 둘레는 수십리에 이르고 호수의 경치는 永郎湖보다 더 훌륭하며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시켰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지금부터 454년 전인 중종 25년 즉 1530년 李荇 등이 增補刊行하였으니 이곳에 있던 萬戶營이 없어진 것도 450여년 전이요 青草湖 이름도 그때는 雙成湖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雙成湖라 한것도 한 지역내에 영랑호와 청초호가 두 쌍둥이처럼 나란히 있다는 뜻이다.

왜정때만 하더라도 지금 갯배가 다니는 곳으로 자동차가 다녔고 사람도 물이 적을 때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건너 다녔는데 朴祥喜 邑長이 이 갯목을 파서 배가 다니게 하였다. 배가 다니고부터 湖水가 漁港으로 바뀌어 오늘의 束草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 고장 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襄陽郡에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사또 歡迎宴을 이 湖上에서 베풀었는데 밤에 나무판자 위에 숯불을 피워 물 위에 띄워 놓고 배에는 술과 안주를 실은 뒤 기생과 地方有志들이 함께 타고 風樂을 울리며 춤과 노래로 사또를 즐겁게 하기위해 湖水周圍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붉은 꽃이 핀 바다와 같이 아름답다하여 이 놀이를 "논뫼호의 불꽃놀이"라 했다는 것이다.

"논뫼호"란 論山앞 호수란 뜻으로 지금의 青草湖를 指稱하는 것이다. 이 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다가 韓末에 와서 南宮 檍 다음 군수인 崔鍾洛때 놀이 하다가 사고가 생겨 중지되었고 崔郡守때 나라도 日本에게 먹히고 말았던 것이다.

이 불꽃놀이를 구경하기 위하여 멀리 襄陽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 들어 人山人海를 이루었다 한다.

大 浦 港

港口라 부르기보다 浦口라 하는 것이 알맞게 느껴지는 아담한 漁港이다.

지금부터 72年 前인 1912년 道門面과 所川面을 통합하여 道川面이라 이름짓고 面所在地를 大浦로 옮기니 이 해가 바로 韓日合併 3년째 되던 해다.

당시는 襄陽普通學校 다음 두번째로 빨리 세워져 이 지방 유지 대부분이 大浦學校 출신들이다.

이 부근 定置網에서 잡힌 생선들이 이곳에서 揚陸 되므로 鮮度높은 생선회를 찾는 나그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遠浦歸 浦口를 찾아 드는 어선들, 悠悠自適 한가로운 갈매기떼, 甕峙山 중턱 푸른 숲속에 점점이 자리잡고 있는 端雅한 新形住宅들…. 어쩌면 이다지도 아름다운지 눈요기 입요기 모두가 다 滿喫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雪嶽山入口

束草市內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생선의 고장 大浦를 지나면 雪嶽의 관문인 雪嶽물치里에 이른다.

이곳은 시내버스는 말할 것도 없고 南北으로 오가는 直行버스까지 모두가 정차하여 雪嶽山을 찾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交通要路이기도 하다. 도로 海岸쪽에 있던 民家들은 모두 산기슭 철둑너머로 옮겨져 차안에서도 맑고

大浦洞에 있는 俞勿濟 碑石

푸른 東海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어떤 때는 울긋불긋 원색 차림의 釣士들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는 한가로운 모습과 滿船을 꿈꾸는 소형 어선들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浦口를 드나드는 情景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이곳 地名은 본래 물치였는데 지금은 속초시 대포동 으로 되어있다. 철둑길 위에 "俞勿齋碑"가 있는데 그 碑文에 다음과 같은 內容들이 새겨져 있다. "俞晦一은 물치인으로 어릴 때부터 공부에 몰두 하였고 행실도 착실하여 동리 사람들의 칭찬도 많았고 사경에 이르렀을 때 自己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어머니 입에 넣어 드렸으며 어머니가 別世한 뒤에는 어머니 무덤옆에 움막을 짓고 嚴冬雪寒 추운 겨울 날에도 墓곁을 떠나지 않고 살아계시는 어머니를 모시듯 省墓에 지성을 다하다가 애석하게 그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俞晦一은 淸貧樂道 學德이 높은 선비로서 나라에서 주는 "金吾郎"이란 벼슬도 마다하고 수많은 書籍을 벗하고 살았다. 저 유명한 尤庵 宋時烈도 훌륭한 선비라고 극찬하였는가 하면 그의 스승 朴文純도 晦一의 學識에 탄복하였다 한다.

"俞勿齋"란 "俞"는 晦一의 姓이요 "勿齋"는 號인데 號를 勿齋라 한 것은 宋尤庵先生이 咸鏡道 德原에서 巨濟島로 귀양살이갈 때 이곳 물치에서 묵고 갔는데 俞晦一은 宋時烈先生을 지극히 私淑한 나머지 尤庵이 자고간 집을 書齋로 삼아 그 집에서 공부하며 후세교육에도 힘썼는데 물치란 "勿"字와 書齋란 "齋"字를 따서 "勿齋"란 號를 갖게된 것이다.

勿齋는 나라에서 표창 되어 그집 門 앞에 붉은 기둥을 세우고 孝子로 칭송되었다. 당파싸움이 가장 심한 肅宗 때여서 貪官汚吏도 많았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權勢에 아부한 자도 많았다. 晦一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글로 시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여 뜻있는 사람들로 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명성도 높아졌다.

그가 죽은뒤 이 고을 儒林들이 俞勿齋의 學德을 길이 남기기 위하여 祠堂을 짓고 碑石을 세웠는데 碑文은 그때 禮曹判書 趙觀彬이 짓고 글씨는 江原觀察使 洪鳳祚가 썼다는 기록이다.

세월은 흘러 祠堂은 頹落 되어 간 곳이 없고, 碑石만 잡초속에 버려진 채 아무도 돌보는 사람없으니 俞씨 후손이 없는 탓인지 애달프기만 하다.

"물치"란 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傳說이 서려 있다.

宋尤庵先生이 咸鏡道 德源에서 巨濟島로 유배되어 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곳의 農夫 鄭笠이란 사람 집에서 하루밤을 지내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밤에 비가 많이와 온마을은 洪水난리가 나고 강물은 불어서 교통이 두절되었다. 할 수없이 며칠을 留하다가 떠났는데 그후 마을 이름을 "물치"라 했다한다.

"물치"란 "물"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고, "치"는 마을이란 뜻이니 "물치"란 곧 "물에 잠긴 마을"이란 뜻이 된다. 유명한 宋時烈이 물에 잠긴 마을에서 자고 갔다는 연유로 마을이름을 그렇게 붙렀다는 것이다.

이때 宋時烈은 자기가 유숙하던 정씨집 기둥에 붙여져 있는 詩句의 끝 글귀가 뒤바뀌어 있으므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글에 대한 자초지종을 주인에게 물었더니, 주인은 작년 5月 5日에 어떤 과객이 이 글귀를 써 붙이면서 明年 이 날

에 어떤 손님이 이 글을 읽어 볼 것이라며 지나갔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 글귀의 내용인즉,

三傳市虎人皆信
一綴 蜂父亦疑
世上功名看木雁
座中談笑愼桑亀

풀이하면, "저자(市) 거리에 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데 庶母의 모함에 빠질 아버지는 자기 아들조차 믿지 않는 세상이다. 人間의 功名은 木雁과 같이 허무한 것이니 談笑는 삼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宋尤庵더러 쓸데없이 功名을 貪내 老論이니 南人이니하여 당파싸움에 휘말려들지 않고 喪服問題도 曰可曰否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의 충고하는 글이었던 것이다.

이 詩句를 붙인 기둥을 물치주라 불렀다하나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道 門 里

雪嶽山 入口에서 서쪽으로 옛 철둑 모퉁이를 돌아가면 마을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道門里다.

지금은 下道門 中道門 上道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上道門 下道門 二個洞으로 되어 있었다.

舊韓末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은 道門面所在地 역할을 해 오다가 韓日合併後 1912年 道門里와 所川面이 1개면으로 통합될 때 道門面이란 "道"字와 所川面이란 "川"字를 따서 "道川面"이라 명명하고 면소재지는 大浦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해가 바로 新民會員 120名이 寺內總督 암살음모혐의자로 잡혀가 105名이 기소된 이른바 "百五人事件"이 일어난 해다.

道門里란 지명은 아득한 옛날 靈山 雪嶽을 찾는 길을 물었다는 전설과, 이름있는 많은 修道客들이 道를 닦기 위해 雪嶽山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 하여 道門이란 이름이 생겼다는 口傳도 있다.

道門里를 지나가는 길 南쪽에 맑은 냇물이 흘러가는데 옛날에는 지금 降峴面에 있는 냇물과 합께 냇물이 두 개라 하여 雙川이라 부르다가 지금은 雪嶽川이라고 부른다.

이 냇물에는 銀魚가 많아 늦은 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太公들이 모여들어 忙中一閑으로 이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富春山 嚴子陵이 諫議大夫 마다하고 小艇에 낚대 싣고 七里灘 돌아드니 아마도 物外閑客은 너뿐인가 하노라"

하는 이 시조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벼락바위

鶴舞亭(속칭 육모정)을 향해 가다가 中道門 막바지 도로 왼편에 벼락바위라는 別난 이름을 가진 岩石이 있다.

이 바위 앞에는 그리 크지도 않은 沼가 하나 있는데 이 沼에는 은어가 많아 낚시철이 되면 太公들이 이른 아침부터 찾아들고 여름에는 친목계원, 동창생, 가족동반등의 피서객들이 個別 또는 단체로 찾아 들어 나무그늘이나 천막 밑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어 마치 조그마한 海水浴場을 방불케 한다.

내 건너편 남쪽 푸른 숲속에 點點이 산재해 있는 上福里의 山村風景이 정겹게 보이고, 흘러가는 티없이 맑은 냇물, 시원한 강바람, 편리한 교통, 시내에서 멀지않은 지척의 거리, 이 모든 것은 이곳이 실속있는 피서지로 애용되는 이유인 것이다.

핏골(皮谷)

雪嶽山 新團地 C지구에 있는 雪嶽郵遞局 앞을 지나 가면 남서쪽으로 조그마한 溪谷이 있는데 이 골짜기를 속칭 핏골이라 한다.

이 골짜기는 漸入佳境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치가 아름답다. 입구에는 松林이 우거지고 송림사이로 지나가다 보면 허물어진 돌담과 여기 저기 서있는 果木들이 지난날 누군가가 살던 옛터임을 알려준다. "城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芳草만 푸르러……"라는 콧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年 前인 1949年(6·25 동란이 일어나기 1년전) 7月 7, 8日 이틀에 걸쳐 유격대인 虎林部隊와 人民軍 보안대원 공산당원과의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져 保安隊員 6名과 공산당원 3名이 사

살되었다. 특공대원으로 활약하던 金鍾林·金鍾禹 두 형제가 유격대를 도와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형 종림은 처형되고 동생 종우는 17년 형을 받는 등 많은 희생자가 났다는 哀話가 서린 곳이다.

上福里에 살던 주민들은 공산치하에 살면서도 밤이면 남몰래 虎林部隊에 음식을 날라주기도 했다한다. 그들은 아마 火田民整理事業이 실시될 때 이곳을 떠난 모양이다. 물질적으로는 비록 가난하였지만 自由와 平和를 갈망하고 나라를 아끼는 愛國心이야 남못지 않았으리라는 감회가 무량하다.

青山은 말이 없고 과거사를 일러주는 팻말하나 없으니 한 조각 글월이라도 남겼으면 하는 노파심이 생긴다.

봄이면 복사꽃 살구꽃이 곱게 피고 가을이면 감나무 잎이 붉고 누르게 물들어 옛 情趣를 자아내는 정서의 선경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을 지나 1km쯤 더 들어가면 綠水青山, 맑은 공기, 넓은 盤石, 人跡이 희소한 조용한 溪谷에 이른다. 길은 비록 우거진 숲 사이로 지나가는 오솔길이지만 그리 험하지도 높지도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으로 몇번 가보아도 가고 싶은 숨은 勝地이다.

노루목고개

新團地 C지구를 지나 雪嶽山쪽으로 가다가 보면 나즈막한 언덕에 수백년 묵어 보이는 老松이 있는데 이 나무는 이곳 주민들이 城隍神으로 모시는 神樹이다. 북쪽 산기슭에 商街와 여관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 新團地 B지구이며 이 고개 막바지에 雪嶽파크호텔이 서있다. 남쪽 조그마한 山麓에 新舊式이 겹쳐져 있는 듯한 이색적인 건물이 바로 國立公園雪嶽山管理事務所다.

이 두 建物사이에 있는 길고개가 이른바 노루목고개인 것이다. 6·25 動亂 前까지만 해도 人馬가 지나다닐 정도의 협로였는데 1961년 큰 길을 닦기 시작하여 62년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이 고개를 넘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22년 전의 일이다.

활기에 차있는 속초항 어판장 광경

이 고개를 속칭 노루목 고개라 하는데 地名이 마치 노루목같이 생겼다하여 노루목 고개라 한다하기도 하고, 一說에는 修道山人이 이곳을 지나다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데 난데없는 흰노루(白獐) 한 마리가 나타나 몸짓으로 방향을 가르쳐주어 雪嶽山으로 가게 되었다하여 이 고개를 노루목 고개라 한다하기도 한다.

이 고개에서 앞을 바라보면 東海의 수평선이 아득히 보이고, 푸른 숲속에는 現代式 建物들이 길을 중심으로 B地區 C地區로 나뉘어져 짜임새있게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 자연에 人文을 수놓은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雪嶽川溪谷 맑은 물이 길을 따라 흐르고 있는데 조그마한 沼가 있다. 여름철이면 욕객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雪嶽山 上水道 貯水池가 되어 일반인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이 노루목 고개 北쪽 야산에는 "해외원정 십인동지묘"(海外遠征十人同志墓)가 있다.

1969년 2월에 大雪이 내렸을 때 서울서 해외원정등반대원 10여명이 설악산에 와서 등반훈련을 하다가 「죽음의 계곡」에서 눈사태에 묻히어 10명이란 人命被害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 10인대원 중에는서

울大學敎授 김동기씨와 육군소령 이화승씨도 끼어 있었고 아직 결혼도 하지않은 젊디 젊은 청년이 8명이나 있다. 이들중 두 시신은 고향으로 옮겨가고 미혼자 8명의 시체는 이 곳에 묻혀 있다. 묘비만은 열 사람 모두가 각 개인별로 세워져 있다. 세월은 흘러 15年이 지났건만 지금도 해마다 가족들이 이곳을 찾아 그들의 영령 앞에 제사를 지내고, 雪嶽을 찾는 등산객들은 이 10人 同志墓所에 들러 분향을 하고 가기도 한다.

東草市가 되기 전에는 이 마을 이름을 한문으로 獐項里라 했는데 "獐項"은 "노루목" 이란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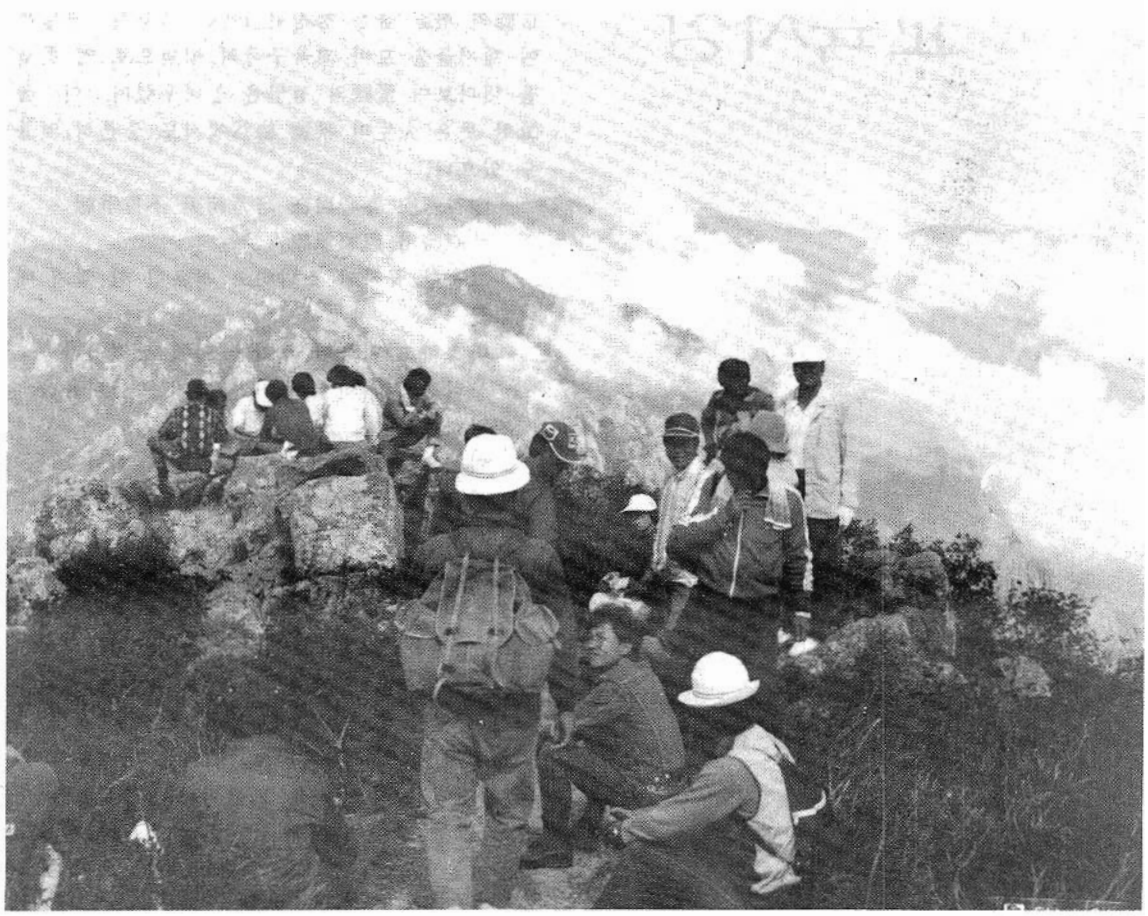
등반사고가 발생할 때 雪嶽山 山岳會長으로 있던 李基燮博士는 깨달은 바 있어 또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위해 冬期山岳學校를 개설하여 산악에 대한 知識과 등반훈련을 겸들여 초보자들에게 산악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르쳐 事故未然防止에 힘썼는데 이 교육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기섭씨는 설악산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기본업인 병원은 비워두고 매일같이 雪嶽山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은 날이 갈수록 줄어 들어 종말에는 閉門休業의 골이 되어 生計費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고 말았다.

할 수 없이 속초를 떠나 제주도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몇해 못가서 또 다시 이곳 雪嶽山을 찾아오게 되었다. 雪嶽山이 얼마나 좋기에 사람의 마음까지 빼앗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일이 어찌 李基燮씨 뿐이겠는가!

雪嶽山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가슴 속깊이 아로 새겨져 있는 天下의 名山임에 틀림없다.

(敎職經歷 45年)



吳學者 吳潤煥의 교육사상

吳 世 夏
(上坪國民學校 校長)

吳 潤煥(海州人). 字는 聖斌, 號는 梅谷.

世人들이 梅谷處士 또는 吳學者로 숭앙하는 선생은 高宗 9年 壬申 서기 1772년 陰 11월 16일 東草市道門洞(上道門里)에서 탄생하시어 유년시절부터 漢學을 전공하였으며, 海東孔子라 일컬어지는 栗谷先生을 가장 숭배하였다. 性理學을 깊이 궁리하여 학문이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으나 官職에는 뜻을 두지 아니하고 향리에서 오직 제자들을 교육하는데만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이는 韓末의 기울어져가는 國運과 더불어 부패 그리고 온갖 非理가 난무하는 官僚社會에 끼어들어 욕된 생애를 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급기야는 韓日合併이 되자 亡國의 한을 품은 청장년기에는 결연히 분발하여 제자들을 모아 교육구국의 일념으로 먼 훗날을 내다보며 愛國의 정열을 불태우셨다. 이 숭고한 뜻은 先生의 雅號 梅谷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니,

「幽谷寒梅 春心自在 群芳誇美 不肯爭態
此直盡出 自家氣象」

그윽한 골짜기 소박하고 청초한 한 떨기 매화꽃
따스하고 아늑한 봄기운 이에 담겼어라
무리진 화려한 꽃들이 제각기 아름다움을 자랑하여도
미움도 시새움도 없이 다소곳이 피었으니
이 곧고 진실하고 소박하고 청초함이며
매화의 참모습과 기상이 이런건가 하노라…

라는 해명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先生의 일상생활은 孝心과 愛國 法度의 實行으로 일관하셨으니 그 행적을 살펴보면, 父母생존시에, 저녁에는 잠자리를 살펴 드리고, 새벽에는 문안을 드리는 것은 물론 첫 닭이 울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衣冠을 단정하게 하여 사당에 아침 인사를 드린 후에는 종일토록 단정히 앉아 讀書 또는 후진들 교육에 전념하셨고 朔望에는 先山의 성묘를 하는데 비가 오나 폭풍이 부나 일생동안 거르지않고 실천하셨으며 손

님접대나 벗과 사귐에 있어서나 사람을 응대하는 言語·動作에 털끝만치도 소홀함이 없이 깍듯한 예절로서 실천하시는 것으로써 제자와 자손들에게 垂範이 되셨다.

선생의 교육사상은 崇儒 親中華排日의 뼈대에다가 風流를 아울러 갖추었는데 그 실제의 예를 들면,

① 유교를 숭상하고 예의를 존중하는 사상이었으며,

- 어버이를 섬기되 효성으로써 하고, 저녁이면 어버이의 자리를 살펴드리고, 새벽이면 문안을 드리며, 매월 초하루, 보름에는 성묘를 하게 하였으며,
- 必主耕讀 곧 농사짓는 틈틈이 공부에 힘쓰게 하였으며
- 冠婚喪祭를 검소하고 엄숙하게 하고
- 손님접대와 벗을 사귐에는 항상 친절하고 온순하고 공손하게 하라고 가르치셨다.

② 親華와 主體思想

- 高宗皇帝가 昇遐하셨을 때에는 머리를 풀고 통곡을 하였던 바 이를 못마땅해하는 日警에게 검속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 朱子學에 앞서 栗谷을 硏究 : 栗谷 全書 27卷을 一字一劃도 빠짐이 없이 毛筆로 베끼는 정도였다.
- 평생 白衣着用으로 백의민족의 순수성을 과시하셨다.
- 大明花(中國國花)를 화단에 심고 가꿈

③ 排日獨立思想

- 日帝의 삭발령, 창씨개명법을 극구 반대했다.
- 三·一運動에 학생들을 指揮 參加하였다가 체포되어 苔刑을 받음
- 子弟들의 일본식교육을 반대하여, 學校就學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④ 風 流

- 鶴舞亭 : 上道門里 雙川 맑은 물을 끼고 松林이 우거진 조용한 곳에 많은 弟子와 宗親들의 동의와 協力으로 정자를 세워 놓고 鶴舞亭이라 일컬었다. 여름에는 제자들의 교육의 場으로 혹은 南北의 詩人墨客 親知들이 모여 詠詩 玩月 하였으며 때로는 동지들과 더불어 세월을 탄식하기도 하였다.
- 養魚場 : 所得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風致와 景觀을 위하여 鶴舞亭 西南方에 여울을 막아 시설을 하고자 하셨으나 생전에 완성치 못하셨다.

〈 先生의 遺蹟 遺物 〉

- 鶴舞亭 : 그 건물은 俗稱 6모정이라 하는데 이는 잘못된 호칭이며 현재는 直孫 秀鉉翁이 조부님의 유덕을 사모하여 해마다 補修 단청하여 년중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內外 觀光客 및 시민 학생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으나 보존 관리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어 그 對策이 시급한 형편이다.
- 親寫書籍 : 栗谷全書 27冊 및 古典數十冊
- 著書 : 梅律 二卷
  先生行狀記 一冊
  首陽家傳 一冊
  中衍枕秘 二冊
  五十五年 日記
  金剛山 遊山記

先生은 이렇듯 英才이었으나 時代的 不運으로 비록 拔群의 出世를 自制하였으나 영특한 지혜와 총명 고매한 인격과 빛나는 교훈 그리고 불멸의 遺志를 남기고 향년 75세로 丙戌 7月 12日에 길이 잠드시니 사람들은 모두 그 분을 處士라 일컬으며 존경하였으며, 인근의 선비들이 모여 장례를 받들었다.

束草市 沿革

束草市는 본래 三韓時代 예국에 속하였고 三國時代에 와서 高句麗 때에는 束土(吐)縣이었으며 新羅때에는 棟(棟) 堤縣이 되었다.

統一新羅時代에는 停을 설치하여 停長을 두어 軍을 駐屯시켰고,

高麗時代에는 尺을 설치하여 水軍萬戶를 두어 防備하였다.

朝鮮王朝時代에는 鎭管의 前哨基地로 계속 水軍萬戶를 두어 防備에 힘썼으며 行政的으로는 舊 杆城과 襄陽의 일부분에 소속되어 있었다.

大韓帝國時代에는 面制實施에 따라 靑大山을 중심으로 以南은 道門面으로 6個里를 관할했고, 以北은 所川面으로 5個里를 관할했으며 大浦港이 軍港으로 승격함에 이르렀다.

日帝下인 1912년에는 道門面 所川面을 통합하여 道川面이라 개칭하고 면사무소를 大浦里에 두었다.

1937年 7月 1日 束草里에 면사무소를 이전하고 束草面이라 개칭하였으며

그로부터 5년후인 1942년 10월 1일 束草邑으로 승격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北緯 38度線 이북에 속하게 되었으며, 1945년 8월 24일 소련군이 진주함으로써 共産治下에 들어갔다.

6·25동란으로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진주하여

1951년 1월 4일 南으로 後退하였으며,

1951년 2월 11일 奪還하여

1951년 8월 18일 收復地區로서 軍政이 실시되어 邑으로 복귀하였다.

1954년 11월 17일 民政으로 이양되고

1963년 1월 1일 法律第1176號로 속초시로 승격되어 19개 法定里에 11개 聯合里事務所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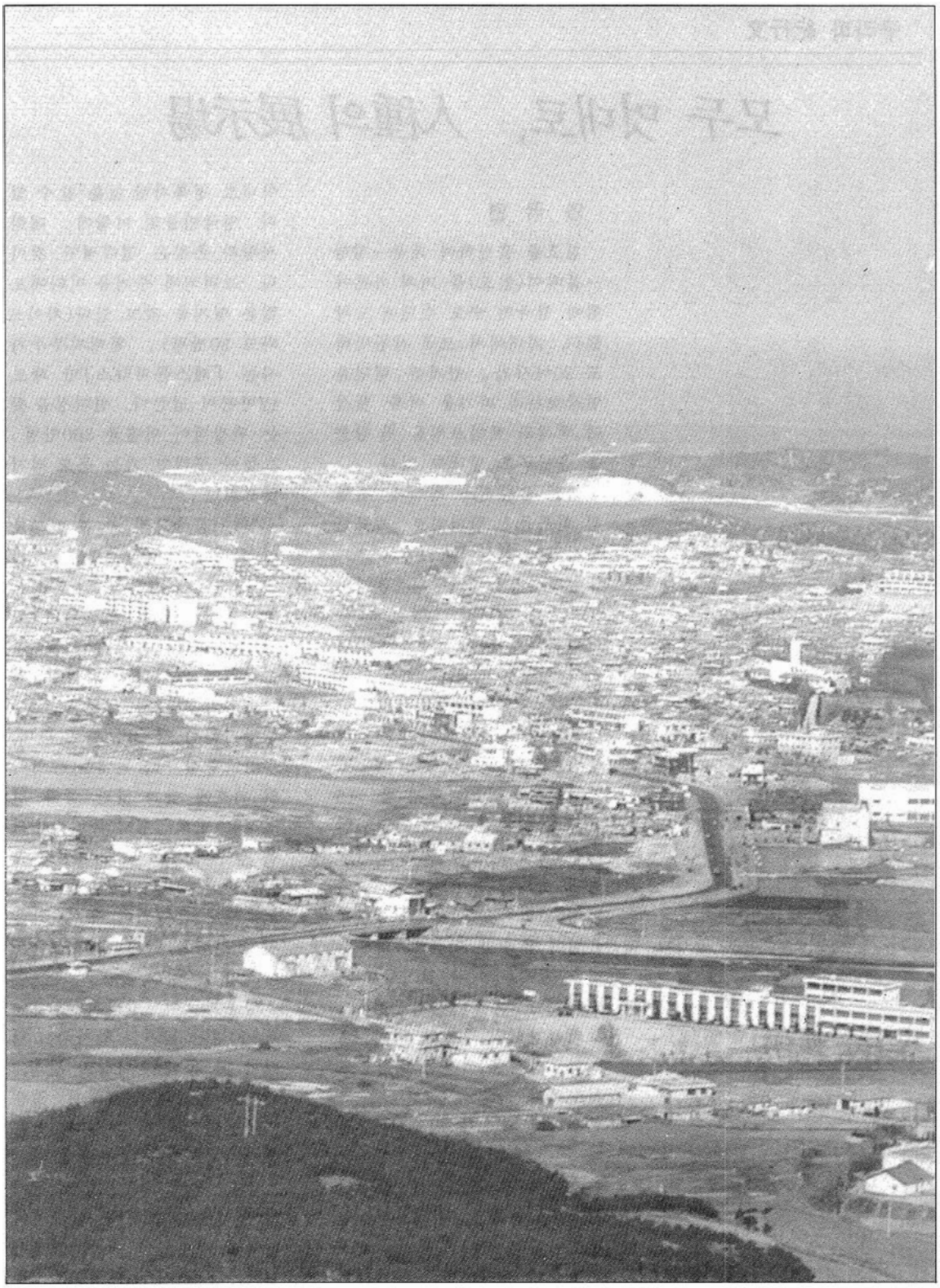
1966년 1월 1일 束草市의 洞名稱 및 區域에 관한 條例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2個 洞으로 개편되었다.

1973년 7월 1일 行政區域 改編에 따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高城郡 土城面 章川里와 沙津里가 吸收되어 章沙洞으로 개칭 13개 洞으로 되었다.

天惠의 觀光資源인 雪嶽山이 개발되고 同開發地區에 속한 襄陽郡 降峴面 上福里 일부가 1983년 2월 15일 大統領令 第11027號로 속초시 설악동으로 편입됨으로써 法定洞 14個洞 行政洞 13個洞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束草市의 位置는 東經 128°35′39″~128°28′ 사이며 北緯 38°13′09″~38°16″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東쪽은 東海, 西쪽은 인제군, 南쪽은 襄陽郡, 北쪽은 高城郡에 인접되어 있다.



모두 멋대로, 人種의 展示場

金 光 秀
(東草市美協支部長)

영 국 편

김포를 출발하여 대북→향항→봄베이(인도)를 거쳐 이른아침에 영국의 수도 런던에 도착했다. 기내에서 보낸 시간만해도 20여시간. 안개낀 런던을 연상했는데 따가운 여름 햇살이 백색의 페인트칠을 한 창문을 유난히도 빛내고 있다.

붉은 2층버스 창가에 진열된 화분들! 한마디로 깨끗한 도시라는 인상이다.

「윈저성」, 영국여왕의 3개의 주거중의 하나인 「윈저성」은 런던교외에 있다. 마침 여왕의 기가 나부끼고 있어 현재 여왕이 성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안내원은 행운이라고 일러준다.

윈저성은 400여년전 즉 1509년에 헨리 8세가 건립하여 그후 역대 왕들이 증축하여 오늘에 이르는 웅장한 궁전이 되었다고 한다. 여왕은 4월과 6월의 한주만 이곳에 거주하며 주말에는 여왕 일가들이 모인다고 한다. 「버킹검궁전」도 그러하거니와 수많은 회화, 초상화, 장식물 가구등 호화롭고 찬란하다.

우리네 왕조와 비교하여 볼때……, 물론 우리가 안다는 왕조란 겨우 조선시대 유산인 창덕궁, 경복궁, 비원, 창경원 정도이니 말이다.

영국의 왕실이란 통치자가 아니고 정복자란 것을 알수 있다. 영국민들의 여왕에 대한 사랑과 존칭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주거용 이외에도 많은 영지를 갖고 있다(차이드파크 30만평). 황태자부부가 사는 「켄스톤파라스」만 해도 12만평이 넘는다. 윈저성을 찾는 관광객이 연평균 300만명. 그들이 뿌리고 가는 돈도 적지 않으리라.

"애완동물묘지"를 보고 그들이 우리네 대영박물관에는 세계 곳곳에서 가져온 귀중한 문화재들이 수없이 소장되어 있다. 우리나라 도자기도 몇 점 진열되어 있었다. "바이킹"의 후손이라 그런지 많이도 갖다 놓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

영국왕실 미술관에는 통치자의 기호에 맞는 것만 골라 진열하는 반면, 런던 국립미술관은 정부의 원조밑에 엄선된 콜렉션에 의해서 일반대중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어, 유럽 각국의 보신탕을 항의하는 사연을 이해할 것 같다.

명문교 "이트칼리지"

500년된 낙서와 칼자국이 범벅이 된 통나무 책상과 걸상, 안락한 의자와 교체하지 않은 영국민의 보수적 기질과 전통중시사상, 학생 2명에 교사가 100명, 전원 기숙사생활, 철저한 인격도야 교육을 실시하여 영국의 지도급 인재를 양성한단다. 물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명문가 자제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들어간다니 영국은 과히 귀족의 나라다. 처칠수상은 예외지만 영국의 역대 수상은 거의가 이곳 출신이란다.

평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수십만평의 귀족의 명지. 그곳에는 경마장, 요트장이 있어도 평민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간다.

영국의 천사란 별명을 가진 이 자동차도 신분을 가려서 판매한다. 쿠웨이트의 한 부호가 영국인들의 오만성에 무시당한 분풀이로 '롤스로이스'를 사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서는 '택시'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영국인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런던시내를 유유히 흐르는 테무스강, 수량도 많거니와 곳곳에 설치된 18개의 다리 또한 아름답다. 모두가 예술작품이다. 위대한 화가의 걸작들이 골고루 망라되어 있다. 「다빈치」「미켈란젤로」「라파엘로」「다비드」「루벤스」「렘부란트」「구르베」「마네」「세잔느」「르노와르」등등. 14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회화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부러움, 감탄과 감동 속에서 겨우 두장의 스케치를 갖고 영국을 떠났다.

독 일 편

「프랑크푸르트」 인디콘티넨탈호텔에 여장을 풀고나니 저녁때라 밤거리 구경을 나갔다. 힙깨나 쓰는 젊은 화가들과 어울려 밤의 환락가를 더듬어 본다. 한마디로 섹스의 거리다. 성은 가리는데 신비함이 있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니 추하게만 보인다.

"하이델베르크" 고성(古城)에 둘러싸인 대학도시. 인구 10만, 780년 역사를 가진 세계 3위 최고참 대학이다. 1위가 790년의 옥스포드, 2위가 솔벤느대학.

온 시가가 대학이다. 우리네처럼 거대한 대학 캠퍼스가 한데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시전체가 대학이다. "마리오란자"가 주연한 "황태자의 첫사랑"에 나오는 학사주점이 이곳에 있다.

서독의 면적은 34만㎢, 인구 6천2백만 11개주 연방공화국 사회 민주주의 제도다. 4개 정당내 하원의원 522명이란다. 식량은 70%를 수입에 의존한다. 조림에 성공한 나라다. 60년간 목재판매로 살 수 있다고 한다. 국토의 47%가 임업장, 서독에서 제일좋은 직장이 산림원이란다. 처녀들이 선망하는 신랑감이다. 산림원 시험은 1000:1 거짓말 같기도 하고…….

독일의 5번 고속도로! 히틀러가 만든 것인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 곳의 평크도 없단다. 1967년 박대통령이 이 도로를 보고 우리의 고속도로를 착안하였다고 한다. 고속도로 전장이 1만km, 라인강은 1천3백 48km에 4개국 통과, 수심 20m, 강폭 100~110m, 높은 강둑이 없고 강물이 강폭 가득히 흐르고 있어 홍수때 보는 한강같다. 수량이 많으니 500~3,000t급 선박이 수없이 왕래하고 있다. 홍수가 나면 어쩌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으나 이 나라에는 홍수란 없단다.

「카우베」란 곳에서 유람선을 타고 라인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양안의 고성(古城)을 스케치하면서 감미로운 멜로디에 맞추어 붓은 춤추듯 무아의 경을 헤맨다.

그많은 사람들이 승선하였건만 제각기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듯하다. 전설의 "로렐라이" 언덕을 지나서 하선한다.

가파른 "로렐라이"언덕에 솟은 여인상을 공드려 스케치 한다. "루터싸인" 시음장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컵은 기념으로 갖고 온다. 22만ℓ가 들어가는 맥주통, 1654년에 만들어진 것이란다.

우리는 인구증가율을 1.6%에서 1%선으로 낮출려고 애쓰고 있으나 서독에서는 인구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출산소식을 들으면 시장이 몸소 선물(우리나라 6만원 상당금액)을 들고 산모를 찾아 축하한다니……, 국가에서는 18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

자녀 6명이면 그 부모는 평생 먹고살 걱정을 안해도 되니 우리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결혼도 남녀간 뜻이 맞으면 단돈 몇 만원이면 결혼식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돈없어 장가못가고 시집 못가는 남녀는 독일

로 가보면 어떠할지? 우리는 너무도 격식과 체면때문에 허세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지? 행복이 과연 얻어지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피테의 집을 방문하니 "위인은 효자다"하는 것을 느낀다. 유년시절 피테는 어머님의 노고를 덜려고 부엌살림을 이리저리 연구하여 편리하도록 펌프를 개량한다든가, 의자도 되고, 사다리도 되는 의자를 고안한다든가 하여 어머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였다고 한다.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었어도 괴테의 집은 예나 다름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태리편

로마 시내 호텔이 만원이라 우리는 변두리 신로마 「비버리힐」호텔에 여장을 푼다. 밤에 나갈 곳도 없어 수박파티나 하자고 차를 세우니 길가에 산더미같이 수박이 쌓여있다. 어른 머리통만한 것이 6천리라(우리나라돈으로 3,000원 정도) 수박장사왈 "남들은 모두 여름피서를 갔는데 우리는 관광객을 위해 이렇게 장사를 한다." 그러니 잔소리말고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이다. 조그마한 체구의 털보숭이가 소리 소리 지른다. 욕은 아니고 반갑다는 농이겠지? 이 사람들은 한철장사로 일년을 놀고 지낼 수 있단다. 그렇다면 수박의 원가는 얼마인지?

이태리에서도 농산물값은 싼 편이다. 농사는 별로란다. 라틴민족은 자유스럽고 우스광스럽고 말붙이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것이 친근감을 준다. 쉽게 말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좀 지저분하고 게으르다.

로마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240만대 그중 70만대가 굴러다니는데 하나같이 폐차장에서 끌어온 차같이 더러운 고물차다. 일년이 가도 세차를 안하니 더러울 수밖에. 왈 "비가 오면 저절로 세차가 되는데 무엇하러 힘을 낭비하느냐"는 식이다.

앞이 보여야 운전하지? 비둘기가 유리창에 더덕더덕 붙어도 말이다. 깨끗한 차는 틀림없이 외국인 차다.

이 나라의 대표적 차는 "피아트"인데 10년간 아프터써비스에다 값싼 부품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물차가 늘 수밖에 없다. 단속하는 교통경찰도 없으니 차가 인도에 버려진채 몇달이고 그냥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차들이 굴러 다녀도 교통사고가 별로 없단다. "무질서속에서의 질서" 이것이 서구인들이 갖는 장점이랄까?

한마디로 로마는 사랑스러운 도시다. 정감이 흐르는 도시다.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 고적이 아닌 것이 없다.

지금 내가 서있는 이 골목길도 사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발길에 닿아서 돌멩이는 맨들맨들 차돌같다. 가꾸지 않는 고적, 자연스러운 고적, 잡초가 무성하고 지푸라기가 날리고,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지린내마저 나는 이 성벽이 왜이다지도 좋을까? 고적보존 한답시고 철책이나 치고 사람 접근을 막는 그런 식이 아니다. 그들은 벽돌 한 장 마음대로 교체하지 못한다.

로마시 고적보존위원회의 고증에 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한다. 문고리 하나도 마찬가지다. 비록 내가 사는 내 집일 망정 귀중한 문화유산이기에 후손에게 그대로 넘겨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자각 속에 살고 있다.

로마를 찾는 관광객이 연 600만명, 조상의 고마움을 느낄만하지.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영원의 도시! 고대 로마인들의 생명의 소리가 조용히 귓전을 울리는 것 같다.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도시가 로마다.

고대 로마의 유적을 돌아보며 "데베레" 강변에서 몇 장의 스케치를 한다. 나는 젊은시절 지금은 가볼 수 없는 땅이지만 의주에서 북문을 그린 것이 있다. 더 할말이 없다. 내 필력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바티칸 황국 위병의 독특한 복장은 『미켈란젤로』의 디자인이라고 한다.

위병은 국적을 가진 젊은이다. 『시스데나 예배당』의 『미켈란젤로』와 『라파엘』의 벽화를 보고는 더 이상의 사실의 벽을 뚫을 수는 없으리라. 그러니 추상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나폴리』항은 우리나라 제주도를 연상시켜 준다.

『프로렌스』는 포도 단지로 와인 1ℓ에 500리라, (우리나

라 화폐 250원), 이태리산(山)들은 모두가 대리석으로 되어있다. 돌산으로 모두 대리석이니 대리석문화가 꽃필 수 밖에. 차창에서 흔히 대리석을 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도(古都) 폼페이를 방문하였을 때다. 따가운 햇빛을 피하느라고 "파나모"를 구입했다. 알고보니 중공제란다. 값은 5천원정도, 얼마나 싼 가격인가. 세계시장에서 중공과 경쟁하는 우리 경제인들 분발하시라는 격려의 소리가 절로 난다.

『티보리城』, 2천개의 분수로 유명하다. 초대 교황선거에서 탈락한 "에스테" 추기경을 위해 당시 황제가 하사한 별장이란다. "무라노" 유리제품산지, 판매를 위해 한국인, 일본인등 각국의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점원일을 하고 있었다.

"티보리" 대리석산지, 기념으로 조그마한 뷔너스상을 신주모시듯 가지고 온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태리만 대가족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부락에는 주점이란 없고 찻집만이 있을 뿐이다. 가족이 함께 즐긴다. 이태리 남자들은 영국남자들을 비웃는다고 한다. 오죽 못났으면 여자가 수상인가라고.

"뭇소리니" 이후 40명의 수상이 갈려도 이태리 경제가 파탄되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정치와 경제는 무관한 모양인지?

노조가 얼마나 강한지 시장

(市長)이 청소부 한 사람 마음대로 해고치 못한다고 한다. 그러니 거리가 더러울 수 밖에 ……. 공무원은 주 5일 오전근무, 은행은 오후 1시까지, 놀고 먹자는 나라니 큰 일이란다.

이태리에도 애국자는 있어 나라의 장래를 크게 걱정한다. 애천(愛泉)에서 열심히 동전을 던진다. 로마를 다시 찾는 날을 기원하면서……. 호각소리에 놀라 보니 14~5세된 소녀 2명이 애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경관에게 들킨 것이다. 수 백명의 관광객이 보고 있는 앞에서 착 달라붙은 내의 바람으로 유유히 걸어 나온다. 이태리 소녀란다. 툭 솟아 나온 가슴이 눈길을 끈다.

아쉬움을 남기면서 어둠이 깔리는 로마를 떠나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한것이 밤 10시. 욕조에 더운물을 반가량 채우고 공기가 전전하니 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란다.

흑발에 갈색 피부 쌍가풀진 미인의 나라를 연상했는데 막상와보니 별로다. 햇빛은 따가운데 그늘에 서면 시원하다. 사막에서 백색포를 드리우는 사유를 알만하다.

인구 3백 50만, 우리 교포가 1천여명, 왕궁…… 2천 5백개의 방, 벽에 걸린 양탄자만은 2천개가 넘는다.

스페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톨레도』城이다. 스페인 제국의 옛 서울 『톨레도』는 유럽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다. 『다호』강변의 구능에 위치한 요새다. 8번의 외적침범이 있었으나 그들과 잘 융합하여 파괴없이 서로의 문화를 보완하여 오늘의 문화적 유적을 간직한 곳이다. 『톨레도』에는 로마, 아라비아, 게르만 등 다른 민족간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우리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라고 자랑하면 그들은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고 반문한다.

인구 5만의 작은 도시지만 유럽에서 중요한 역사적 미술 센타로 유명하다.

『뿌라도 미술관』

1785년 건립, 폭 40m, 길이 200m의 평행 사방형 3층 건물이며, 회화 3천점 이상, 조각이 400점 이상 기타 보석과 공예품등, 스페인, 이탈리아, 후라만, 불란서, 독일, 화란, 영국 등 각파에서 선정된 작품들이 골고루 진열되어 있기도 하다.

『에스파니아 아트』미술관에는 스페인 현대작가들의 작품이 소장이 되어 있다. 대담한 필치, 과거 아카데믹한 수법을 탈피한 자유분망한 구성, 생활주변에서의 모티브 선택, 『피카소』의 영향탓인지 현대작가의 활동이 어느 나라보다 돋보인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전위나 추상아닌 구상(具像)적인 작품에 마음이 쏠린다.

크고 작은 돌멩이를 아무렇게나 널려놓고 돌에는 울긋 불긋 페인트칠한 것이 작품이다. 5m쯤 되는 Y자형 나무토막을 잘라 거꾸로 놓으면 "人"으로 사람형태가 된다. 거기다 칼질을 하여 머리, 팔 자국을 내고 청색 페인트칠을 한다. 작업복을 입은 목조각이라고 한다. 예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미(美)를 찾겠는가.

현대사상은 순수하였던 예술의 세계를 망쳐버린 것이 아닌지. 2천호나 되는 벽면에 목탄을 가지고 낙서를 한 것이있다. 손만 닿아도 지워진다. 그래도 작품이라고 전시하고 있었다. 그외에도 알다가도 모를 그림들이 수없이 있다. 공들인 흔적도 없는 것들이 대작품들이라고 버젓이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그나마 촬영금지 라고 입구에서는 카메라까지 보관시키라고 올러댄다.

밤에 거금 30$를 내고 "후레밍꼬" 춤을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관람하고. 맺고 끝는 춤, 정열적인 춤, 홀레! 홀레! 합성을 질러야 신나는 춤, 세계적 천재화가란 『그레꼬』 미술관도 보았다.

『게르니카』 피카소의 대표작이다.

2천호 정도(?)대작이다. 미국과의 오랜 협상끝에 찾아온 스페인 국민들의 자랑이다. 특별장치를 한 전시실에 놓여 있었다.

"게르니카"는 피카소가 56세때 1937년 파리만국박람회의 스페인관 벽화로 제작한 것이다. 스페인 내전 당시 독일 "게르니카"지방 폭격에 항거하고 전쟁의 잔악상을 고발하는 추상화이다.

스페인은 물가도 비교적 싸고 서민적이며 인종차별 같은 것도 느끼지 못한 살기좋은 곳이라고 한 교민이 들려준다. 5인가족이 월 3백불이면 생활할 수 있단다.

투우의 나라에 와서 투우를 못보고 가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여름은 씨즌이 아니므로).

"마드리드"에서 비행기로 1시간반 『제네바』에 도착한다. 고원지대라고는 하지만 역시 덥다. 백설에 덮인 알프스는 참으로 그림처럼 아름답다. 침엽수림, 맑은 호수, 그림같이 아름다운 가옥들, "샤머니"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몽블랑"에 오른다. 2,380m에서 다시 케이블카를 갈아타고 다시 3,842m 까지 오른다.

공기가 희박함을 느낀다. 커피숍이 있으나 가슴이 답답하여 마실 수가 없었다. 세계 최고봉인 몽블랑이 바로 눈 앞에 있다. 산을 오르는 알피니스트들의 긴 그림자가 설원에 인상적이다.

만년설이 녹은 물로 이루어진 "레망호"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여인들이 많이 눈에 띤다.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제네바의 유엔 본부는 과히 크지않은 건물이었다. 이곳에서 2박한 뒤 세계최고속열차 T.G.V.편으로 파리로 향한다. 마침 국민학교 어린이와 동승하게 되었는데 1학년이면 얼마나 떠들까 걱정했는데 파리까지 4시간 동안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다.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모였건만 다정하게 지낸다.

차창 밖에 전개되는 불란서 시골풍경을 즐기면서 오후 4시 드디어 파리 중앙 역에 도착한다. 마중나온 학부모들이 많아서인지 구내는 매우 혼잡했다. 숙소는 『무랑루즈』근처 "머큐르" 호텔이다. 얼마 안가서 "몽마르트" 언덕이 있다.

몽마르트 광장에는 화가들이

모여 초상화와 상품화를 그려 팔고 있었다. 동양계로는 일본과 중국뿐 뎃상실력은 좋으나 상품화는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2호에서 10호미만의 소품들이다. 옛날에는 돈 떨어진 화가들이 아르바이트로 그리던 장소였으나 지금은 등록된 직업화가들의 생활터전이라고 한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언덕길 좁은 골목엔 많은 "까페" "캬바레" 기념품점 크고 작은 많은 화랑들이 밀집하여 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돌계단에는 많은 남녀가 제멋대로의 옷을 걸치고 기타의 음률에 맞춰 노래하고 박수치며 즐기는 모습, 오르 내리는 인파에 아랑곳없이 부등켜 안고 입맞추고 즐기는 "몽마르뜨"다.

『고호』가 살던 아파트가 있고, 그가 그린 포도밭이 보존되어 있고 『유토리오』가 그린 건물이 골목마다 그대로다. 인상파 화가들이 밤마다 모여 술마시며 미술을 토론하던 캬바레 『라팡·아지레』도 몽마르뜨에 있다.

루불미술관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귀한 보물과 작품이 가득한 누르스름한 석조전이다. 우선 계단위에 "니께"의 여신상이 두 날개를 멋있게 펴보이고 있었다. 『루불』 미술관의 목록에 오른 작품수가 약 40만점에 이른다.

무슨 수로 다 볼 수 있으랴. 한달이 걸려도 제대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선별하여 보기로 한다. 고인파의 『다뷧드』 『앙그루』 낭만파의 『드로크로아』 『제리꼬』의 대작들에 머리 숙여경탄하였다.

콩크루트 광장에 루브루 별관에는 인상파작가만의 작품들이 걸려 있다. 2~3백점은 되리라 믿어졌다. 이곳에서는 시간을 들여본다. 특히 『모네』 『피사로』 『시스레』 『드가』 『르노알』의 작품들 모두가 주옥 같다.

국립현대미술관에는 20세기물 『보나르』 및 야수파, 입체파, 인상파, 초현실파를 비롯 현대의 "모던 아트"를 총망라한 조각들이 귀중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20세기로부터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 여러 유파와 기발한 개성, 독보적인 경지로 개척한 세계의 거장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당이 있다. 오랜 사실의 바탕이 있고 자신의 능난한 사실적 기능을 배경으로 제작된 것이니 역량없이 휘두르는 많은 추상작가와 어찌같은 결과가 되겠는가. 「피카소」의 10개 20개 유럽의 사실화를 보면 기막힌 솜씨였다. 반석같은 기초위에선 그의 그림은 어느 형식의 그림을 그리든 명작들이 쏟아져 나올만 하다.

로댕미술관에서는 「카레의 시민」 「지옥의 문」등 울퉁불퉁한 골육의 표현. 굵은 「텃치」가 그렇게 멋에 녑쳐 있었다. 「로댕」의 무덤 뒤에는 대표작 「생각하는 사람」의 청동상이 숲 속 그늘 아래서 깊은 침묵 속에 영원히 「로댕」을 지키고 있으리라ㅡ.

「베르사이유 궁전」을 위시하며 에펠탑 개선을 엘리제궁 노틀담사원등 바쁘게 돌아다닌다. 파리의 지하철도 타 보았다. 우리 것보다 공간이 넓고 덜 답답하였다. 파리는 유행의 도시다. 온갖 형태의 두발, 복장 멋대로다. 인종의 전시장같기도 하고ㅡ.

한 아프리카 여인이 걸치고 다니는 실크옷이 2백만원 짜리란다. 세계의 부호들이 돈자

랑 하는 곳도 파리다. 유명상표 아닌 일반 서민들이 쓰는 물건값은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일본인들의 상혼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곳곳에 일본백화점의 분점을 개설하여 일본인 관광객들은 모두 거기서 물건을 사고 있다. 본받을 일이다. 귀중한 외화를 함부로 쓸 수 없지 않은가?

세계 어디서나 "코닥필름"이다. "후지필름"도 있기도 하지만 36매 짜리가 4천~4천 5백원, "코카콜라" 한 잔이 1천 5백원정도. 물가는 우리나라가 제일 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배도 역시 미국산이다. 각국의 담배가 있기는 하나 질이 떨어진다. 필름과 담배(국산)를 사가지고 나가면 경제적이다.

나는 국내 보세점에서 9천원 주고 "솔" 3보루를 가지고 갔다. 간단한 선물도 되고 나도 피우고 하니 아주 편리하였다. 유럽에서는 세관검사가 까다롭지 않다. 국경선도 별로 느껴보지 못했다.

여행자의 복장도 단정한 것은 일본인과 한국인 정도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는 곳 이것을 자유라는 용어로 덮어 두기에는 어딘가 서글프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원에서 젊은 남녀가 애무를 즐기는가 하면, 여름휴가를 떠나는데 개와 고양이는 길거리에 내쫓고 떠나니 집없는 개와 고양이가 수없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닌다. 동물을 사랑한다는 그들이 …….

"파리" 뒷골목에는 물뿌리는 청소부가 자주 다닌다. 개똥을 치우려 다니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유럽 각국은 국민들이 나태하여 가고 있어 걱정이란다.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사람을 만난다. 한국식당도 없는 곳이 없다. 우리의 국력도 신장되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낀다. 런던 한국식당에서 "진로" 한 병에 5천 7백원 한다. 국내물가와 비교하시라.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사이에 어느덧 며날 시간이 되었다.

가는 곳마다 일본어판 책자가 있어 영어가 신통치 않은 나로서는 다행이다. 책값은 국내보다 싼편이다. 필요한대로 사모았더니 20kg은 넘을 것같다.

나는 유럽여행에 떠나기 앞서 한달가량 이것저것 참고가 되는 서적을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못내 아쉬움을 안고 "파리" 드골공항을 떠난다. 450명 탑승의 거대한 여객기다. 중동에서 귀국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많았다. 북극을 지나 잠시 '앵커리지' 공항에 기착한다. 이름모를 꽃이 "운두라"에 피어 있다.

북극의 백야가 시작된다. KAL기의 비극을 연상 하면서 기창에 전개되는 빙산과 빙해를 바라보면서 어느덧 깊은 잠에 빠진다. 동경의 나라다. 공항에 도착하여 일행과 작별하고 신간선을 타고 대판으로 향한다.

대판 남민만 하여도 한국주점이 60개소나 된다. 서울, 명동 경주, 불국사, 아리랑 등등 마치 서울거리같다. 대판에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복강으로 향한다. 구주일원도 볼겸 동창생도 만나 사십년간의 회포를 푼다.

김포에 돌아온 것이 꼭 한달만이다. 문재도 없는 내가 견문기를 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편집자의 청에 못이겨 둔재를 발휘하여 몇자 적었으니 양해바란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소견이기에 잘못된 편견이 있어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후일 해외나들이하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

〈略 歷〉

- 함흥사범 평양미술학교 졸업
- 한국 미술문화대상전 동상수상
- 한국 현대미술대상전 특별상수상
- 개인 작품전 4회
- 유럽미술계 시찰단장
- 한국미술협회 회원
- 함남미술인협회 회원
- 한국미협 속초지부 고문
- 현 관인 중앙미술학원 원장

解放神學을 바라보며

李 相 國
(雪嶽農協在職・詩人)

종교의 궁극적인 기능은 인간구원에 있다고 보지만, 사회의 계층분화가 천차만별이고 생존의 패턴이 다양해진 오늘 날에 있어 대륙과 대륙, 국가와 국가간 혹은 지역간의 일이 손바닥을 들여다 보듯이 좁아진 여건 속에서 종교가 인간의 영적인 문제만을 떠나서 사회적인 제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의 당위성 여부는 여기서 논란할 바 아니지만 어쨌든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얼마전 남미의 해방신학자 「보프」신부가 로마 교황청 사문을 받은 사건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었다.

그 사문이 일종의 종교재판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그것이 신학이냐 아니냐 하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유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가 그 사문에 대하여 귀를 기울였던 이유중의 하나는 그것이 단순한 형이상학적인 교리해석의 차원을 떠나 해방신학이 발생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남미의 환경과 유사한 제3세계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미의 경제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제3세계 혹은 개도국의 경제와 심지어는 계제외적인 상황에서까지 이른바 「종속이론」이 말하는 종속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게 지배적인 견해다.

국가간이든지 사회의 심층간이든지 경제력의 평가에 따라서 신분의 서열이 매겨지고 더우기 남미의 상황처럼 억압과 가난이 상존하는 사회환경 속에서는 해방신학과 같은 종교적 현실참여가 실천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카톨릭도 개신교도도 아니며 더구나 평소 종교나 신학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나로서는 해방신학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래야 할 필요성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도에 의하면 해방신학이 마르크스적 사회분석을 통하여 억압받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종교적인 책임을 실천하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폭력까지도 용인하려는 이론에 대하여, 교황청의 정통신학의 입장은 해방신학이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되는 사회주의적 불온성을 방관할 수 없다는게 오늘의 쟁점인 것 같다.

그것에 대한 찬반의 추이는 두고 볼 일이지만 교황청의 정통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인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는 종교적 소명의식의 본질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는 인간 영혼을 위하여 끊임 없이 기도하며,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의 불리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종교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나라 종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나라 종교계의 이면에 나타나는 추악한 현상이 종교에 거는 기대 만큼이나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다.

사찰의 헤게모니 다툼때문에 승려끼리 살인극을 벌였던 일이며, 신도수에 따라 프리미엄이 붙여져 교회가 매매된다는 보도, 또는 신보다 교회를 더 믿는 극성스러운 집단의 아우성이 교회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인간구원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을 떠나 종교외적인 문제에 대하여 깊이 관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실에서 너무 멀리 떠나 교회나 사찰을 언덕 위에 높이 세우고 잘 먹고 잘 사는 종교인들이 울리는 종소리가 우리가 사는 지상보다는 더더구나 신도 듣지 못하는 엉뚱한 곳으로만 울리는 것도 경계해야 할 줄 믿는다.

東 草 文 化

이 상건 作「봄」 강원일보주최 84사진공모전 金賞作品

文化界 動靜

文人動靜

강 호삼 (姜鎬三)
- ㅇ 월간문학지에 '연적' 발표
- ㅇ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한국단편 문학전집에 「진흔, 영역, 산령, 초혼」 발표

고 형렬 (高炯烈)
- ㅇ 월간문학지에 '황씨' 발표

박 명자 (朴明子)
- ㅇ 월간문학 7월호 '우리 숙제의 페이지' 심상 8월호 '쓰레기장에서''산' 심상 9월호 '옹가지 덮개' '소화불량증' 현대문학 11월호 '말의 사슬' 발표

박 용렬 (朴容說)
- ㅇ 1984. 5. 5 제2동시집 고요'로 제2회 불교아동문학상 수상.
- ㅇ '고요' 43 연작시로 '아동문예'지에서 대호평을 받음.

이 상국 (李相國)
- ㅇ 현대문학지 6월호 '장을 바라보며' 월간조선 2월호 '傳單' 심상 10월호 "샤갈의 서울"등 발표.

이 성선 (李聖善)
- ㅇ 현대문학 1월호 '귀울음' 월간문학 '북' 한국문학 9월호 '물음' '염주알' 시 발표. '염주알'은 현대문학지에서 대호평 받음.

이 희갑 (李熙鉀)
- ㅇ 월간문학 신인상 43회 동화 당선 '바람이 된 만봉이' (1984. 9월호)

윤 홍렬 (尹弘烈)
- ㅇ 소설문학 8월호에 '사랑의 열매' 꽁트 발표

최 명길 (崔明吉)
- ㅇ 한국문학 10월호 '내가 너에게' '동해별곡' 등에 작품 다수 발표.

최 재도 (崔在都)
- ㅇ 제1라디오 명작극장 이청준 원작 최 재도 각색 '노거목과의 대화'를 84. 9. 23 방송됨.

소 개

'물소리 시낭송회'

이 성선, 최 명길씨를 중심으로 문학의 불모지인 속초에 시의 저변 확대 및 시민의 생활 속에 시를 심어주기 위해 '물소리 시낭송회'를 80년 9월부터 지금까지 27회 개최하였다.

김 종영 (金鐘榮)
- ㅇ 어린이강원에 동화연재 (9회)
  '바람에 날아간 까치집'

문인주소록

강 호삼 : 강릉시 강릉기상대 (2-0656)
고 형렬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6-2 우미빌딩 206호 일어다이제스트 (542-4005)
김 성숙 : 속초시 우체국앞 '엘리자벳' 경양식집
김 종영 : 고성군 토성면 도학국민학교 (2-3425)
김 춘만 : 속초시 교동국민학교 (2-3486)
박 명자 : 속초시 금호동 482-6 (2-3515)
박 용열 : 속초시 금호동 7통 4반 (2-4656)
송 병숙 : 인제군 남면 신남중학교내
윤 홍렬 : 속초시 교동 10통 3반 (2-2816)
이 구재 : 명주군 주문진읍 제중의원 (3293)
이 상국 : 속초시 교동 설악단위조합 (2-5288)
이 성선 : 속초시 동명동 513-54 (2-3743)
이 은자 : 서울시 성북구 정릉3동 344-19 (914-8747)
이 창호 : 인제군 인제종합고등학교 서무과내
이 충희 : 강릉시 명주동 48-1 (3-6381)
이 희갑 : 속초시 조양동 4통 1반 (2-4295)
최 명길 : 속초시 교동 627-30 (2-6237)
최 재도 : 속초시 중앙동 12통 3반
함 택균 : 속초시 설악국민학교

美協動靜

ㅇ…한국미협 속초지부(지부장 김 영복)는 지난 4월 농협 2층에서 제11회 회원전을개최.

○…미협지부 고문 김 광수화백의 유럽스케치전을 지난 10월 카페 다사랑에서 개최.

○…미협지부는 지난 10월(20~26일까지) 농협 2층에서 강원현대작가회원전을 유치 개최.

○…올해 미협회원인 신양순, 이동명, 김남수, 김광희 등의 작품이 강원미술대전과 교원미술전에 출품됨.

○…미협지부 최 호규 전 지부장은 올가을에 최신 석조장비를 대량 구입, 작품제작에 몰두. 내년 봄에 개인 발표회를 가질 예정.

演劇協會動靜

1973년도 연극 동호인 모임으로 시작된 연극활동은 신 원하(현연극협회 속초지부장)씨와 장 규호(현연극협회 부지부장), 황 창건(사업) 제씨가 주축이 되어 주로 학생극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계몽극을 발표해오다 1977년에 '청봉극회'라는 명칭으로 성인극단을 구성하여 1983년까지 약 15회의 정기공연을 해 오다가 고성군에 예무리극회가 창단되면서 1983년 한국 연극협회에 정식으로 속초지부 인준을 신청하여 1984년 속초지부로 인준이 되었으며 후 약10회의 정기공연을 해 오던 중「추극회」가 정식으로 창단 신고를 하여 현재 연극협회 속초지부 산하에는 「청봉극회」「예무리극회」「추」등 3개 극회가 산하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 연극협회 속초지부 회원 명단)

- 지 부 장 : 신 원 하
- 부지부장 : 장 규 호
- 사무국장 : 최 신 영
- 연기부장 : 신 오 일
- 무대감독 : 김 일 태
- 음향부장 : 염 동 엽
- 조명부장 : 원 기 종
- 분장실장 : 탁 순 옥
- 회 원 : 김형관, 박영미 유정희, 박장건 이복애, 김경하 김태영, 고준규 김혜경 김귀선 변순남, 김영봉

書藝動靜

1977년 10월 고 어천 최 중길 선생 사사 재산 지 응준 씨의 설악서예학원의 창립으로 뒤쳐진 향토문화와 서예의 발전에 조그마한 힘이 되었다. 이후 7년이 지나면서 7회의 설악서도회전과 올 10월에는 강원도서화인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제4회 강원도 서화전을 정아스타월드 대전시실에서 갖게 되었다.

속초지역 강원도 서화동인회는 동우전문대학장 우봉 한 상갑씨와 고 금탄 어 경학 씨의 자문위원이 있고, 강원도 서화동인회 운영위원장인 재산 지 응준씨를 비롯 20여명의 강원도 서화동인회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설악서도회의 구성은 회장 송원 박 재호 (중앙국교 교사, 속초 교원회협 총무) 와 총무 해석 황 동준(금호동 사무소)을 비롯 40여명의 서도회원을 두고 있다.

그밖에 속초지역 서예인으로 대풍 김 성태(영랑동), 노둔도인 왕지의 (중정한의원), 운당이 홍규(노학동), 혜풍 김광희(영랑국교교사, 속초 교원회협회장), 미봉 이 창섭(중석상회), 청암 최 오규(인구국교 교장), 청원 김 규홍(오호국교교감), 현암 정 원철(영동서예원장) 등이 활약하고 있다.

청봉사진동우회 동정

명산 설악산을 무대로 사진취미활동을 해오던 성동규, 이상건, 김정일씨등 9명이 모여 1984년4월1일 「청봉사진동우회」를 만들어 현재 전시회 개최와 각종 문예지에 작품게재등 맹활약을 하고 있다.

강원일보사가 주최한 84년 사진공모전에서 회장 이상건씨의 출품작 「봄」이 대상을 받았으며, 이밖에 4작품이 입선했다.

동우회의 창립이 일천한 속에서도 작품활동은 어느 회보다 눈부심을 자랑, 84년 12월 8일 속초시 금호동 카페 다사랑에서 창립기념 제1회회원전을 가졌는데 이 동규 회원의「공룡의 비경」김정일 회원의「설산」등 40점이 전시, 사진애호가들의 대호평을 받았다.

지도위원 성동규, 회장 이상건, 부회장 안두성, 감사 이하림, 총무 김정일, 회원 정연국 함원찬, 이동규, 김종화, 박종영.

초대작품

이 都市의 飛翔을 보라

一九五十年 九月 二十八日
世界의 눈은 港口都市 이 땅에 쏠리고

사랑하는 兄弟의 피가
江山을 물들이던 저녁

이 땅을 찾기 위해 숨져간 꽃봉오리는
또 헤아릴 수 없는 江이었네라

白馬高地 피의 稜線은 다시 힘주어 뻗어 내리고
그 위에 戰禍를 쓰다듬어 내리듯 찾아든
우리 고향 정든 山河

배 고픈 어린 아이 등에 업고
발 아픈 큰 아이 손 잡고
낡은 상처로 쓰러져 누운 이 都市에
다시 찾아 들었으니

그 날 우리는 無에서 有를 構築한
수많은 또순이의 行列을 보았느니라.

판자집 지붕으로 별을 보면서
自由만이 오직 幸福이라 끌어 안았으니

새벽 四時 魚販場으로
생선 수레를 끄는 아바이의 땀.
그 땀방울이 일으켜 세운 이 都市의 면모
이 눈부신 自活의 숨소리.

詩人 朴 明 子

소금만 먹기 三年에 千萬圓을 저축한 、
魚市場 오마니는 우리 모두의 母性이 아니었더냐.

그 즈음 東海 九曲은 우리의 보금자리
그 즈음 雪嶽山 아흔 아홉 구비는
우리 가난을 힘껏 보듬어 주었더니라

이제 우리 産業戰士는 建設의 망치소리 휘두르며
이제 觀光 兄弟는 메카폰을 굳게 잡고
우리 가난을 힘껏 보듬어 주었더니라

이제 東明 바다에 水中 호텔이 建設되고
이제 正亞에서 大靑峰까지 케이블카 깃발이
펄럭이고

收復地區에서 港口 都市로
港口 都市에서 觀光 都市로
쓱쓱 뛰어 오르는 우리 東草

韓國의 눈은 이 땅에 쏠리리니
世界人의 발길은 이 곳에 몰리리니
푸른 旗幟를 높이 들고 쓱쓱 날아 올라라

저 世界의 하늘을 향하여 飛翔을 꿈꾸는
이 都市의 포효하는 몸짓을 보아라.

초대작품

봄의 序詩

김 종 영

산자락마다 당신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마을마다 당신의 사랑이 물결칩니다.

점점이 흩어져
웃음 짓는 사랑의 불꽃
우리의 뜨락을 에워싸고
봄물을 들이는 훈훈한 봄바람

당신은 아스라한 꿈속에서도
모습은 보이시지 않지만
이 봄날 우리들 곁에
뜨거운 사랑으로 오심을

당신의 말씀은 들리시지 않지만
환한 봄뜨락
빛으로 우리 가슴의 창문을
하늘로 열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얼어 붙은 우리들의 연못에
푸른 하늘자락 걸쳐 놓고
추위에 꼭꼭 닫힌
우리들 마음의 창이
물소리 따라 숲으로 열리는
이 봄날
당신은 우리 뜨락의 잠든 겨울을
따슨 손길로 쓸고 계십니다
들판 가득 푸른 아지랭이를 피우고 계십니다.

어둠의 병실에 웅크려 앉은 이름없는 새에게
새 날개와 노래를 주시고,
북풍에 떠돌아다니던 꽃과 나뭇잎의 혼에
생명의 입김을 주시어

이 봄날,
당신은 침몰의 새와 방황의 새에게
사랑의 빛을 던졌읍니다
당신의 품에 잠들게
우리의 뜨락에 꽃등을 걸어 놓으셨읍니다.

당신의 품에 잠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묻히고 싶습니다.

어린 날, 개구리 울음소리 자욱히 깔린
벚꽃 그늘에 앉아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잠들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린 날, 누나 등에 업혀
하늘과 산이 불꽃으로 타오르는 오솔길을
마냥 걷고 싶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오늘 세월에 씻긴
어린 날의 꿈을 몰고
우리 얄팍해진 가슴으로 다가서는
사랑의 물소리
사랑의 봄바람

사립문을 종일 열어 놓겠어요
봉창문도 열겠어요
우리 뜨락에
물소리 자욱히 흐르고
봄바람 왼종일 꽃을 가꾸게
당신의 빛에 섭니다.

당신이 열어 논
이 봄날
환한 제 뜨락에서
당신이 선물하신 사랑의 옷을 입고
한 그루 나무가 됩니다.
한 그루 꽃나무로 흔들립니다.

〈고등부 詩 壯元〉

가 을 산

문 상 혜(속초여중·1)

가을의 허리춤에서 너를 바라본다.
끝도 없이 파아란 하늘아래
우뚝 솟은 산
그 허리춤에는 물감을 뿌린 듯한 단풍이
노닐고
너는 '살랑살랑' 바람에
다시 태어남을 기뻐하고 있구나

너의 화려함에 철새들은 황홀해 하고
하늘의 구름도 제 갈 길을 잊었다.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
세상의 만물은 조화를 이루고,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을 찾는다.

가을의 산
너는 마음을 손짓한다……

붉게 타는 저녁놀을 등진 너는
더욱 더 황홀하다.

〈중등부 詩 壯元〉

코 스 모 스

김 초 심(속초상고·2)

꿈 속에서 처럼 바람이 분다
회색의 하늘
헐거워진 생의 굴레에서
수줍은듯 얼굴 내밀은 너의 모습은
나의 소망이었고 피어나는 꿈이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 속에 잠든 아기처럼
시집가는 새색시처럼
함박웃는 너의 웃음 속에
하루를 쫓겨가는 세월은
곤한 밤을 지닌다
이 가을엔 너의 향내로
잠이 드는 가슴 속에서 터질 것 같은 동경으로

계절을 읽는 시간 속에
너의 소망은 사라지고
호젓하게 하늘거리는 꿈은
파란 하늘밑 빛나던 들판서
가슴시리던
그 멍든 몸짓 마져 기쁨이었읍네라.

이토록 애틋한 마음엔
부위와 욕망을 참회하여
포 한번의 강물이 흐르고
놀란 토끼마냥 흔들거리는
너의 하얀 마음에
입맞춤하리.

밤

황 원 근(청호국교·5)

척 보면
올 아빠 손 같이
까칠까칠한 밤.

검은 색도 아니고
고동 색도 아닌

까칠까칠한 밤 속에는
장대들고 밤따던
나의 어린 시절이
가득 차 있다.

밤따다 장독 깬 일도
들어있고
밤은 꼭
사진첩 같다.

척 보면
까칠까칠한 밤.

내가 확
먹어 치웠으면은…….

〈고등부 산문 장원〉

길

황 순 옥
(양양여고·1)

친구야!

난 오늘도 가로수 잎이 팔랑거리고 푸르름이 솟아나는 아스팔트 길을 걸어 네게로 가고 있단다. 매일 내음하는 길이건만 오늘따라 짙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개를 들어보면 가로수 사이로 친구의 못생긴 얼굴이 햇살을 가르고 내게로 다가와 싱그러운 하늘 속에 내 얼굴을 묻어 주었고, 다시금 고개를 돌려보면 길 속에 상치가 한단, 보리밥이 한 그릇, 우린 사이좋게 마주앉아 웃음지며 살을 찌웠었지.

친구야, 웃음과 울음이 뒤섞여 다져진 우리들의 이 길을, 그리고 기쁨과 환희로 다져져야 할 이 길을 생각하자.

중2때 우린 손을 잡았지. 그 촉촉함이, 그 통통함이 지금껏 내 손에 잡히어 네게서의 도피를 방해하고 있단다. 참 좋은 방해물이지, 방해물이야.

친구, 넌 어느날 문득 내게 다가와 한마디의 말을 툭 쏟아놓고 바로 이 길로 뛰어 갔지. 마구 뛰어갔지. 나를 멍하게 만들어 놓고 아빠의 직장 관계로 다시는 이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넌 거짓말장이였어. 난 친구에게 말했지. 가을이 되면 말없이 기쁨짓는 코스모스까지 반겨주는 이 길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다시금 걸을 수 있다고.

친구도 정말 그럴거라며 가로수 잎에 입을 맞추었고 웃었지 마구 웃어댔어.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네게로의 발걸음에서 느끼는 이 길은 그때의 그 길이 아니란다. 우린 그때 그 길에 한한 우리들의 길 허물을 벗어야 할거야.

난 2년이란 짧고도 긴 흐름 속에서 우리들의 길은 좀더 많고 험해야 함을 알았다. 슬펐지, 울고 싶었다. 그러나 이건 '나'이기에 아파할 수 있었던 특권이었고 좀 더 큰길로의 안내가 되었다.

하늘을 직시한다. 저 하늘이 항상 푸를 수 없듯이 우리들의 길도 항상 깨끗할 순 없겠지. 친구, 우리들이 그렇게 신기해하고 귀여워하던 새싹을 뒷발에 흘리며 지나갔듯이 우리들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길을 우리는 걸으로나마 잊고 지나게 될거야. 우리앞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각기 다른 예쁜 길들이 있구나. 난 자못 놀라고 싶었다. 친구도 나도 이젠 그때의 길을 통과하여 이중 어느 길인 가에 머무르고 있겠지. 통과할 수 없는 지구를 돌고 또 돌아 공간까지 뻗어 있을 또 하나의 완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 넌 생각할 수 있겠지? 꿈도 희망도 존속되지 않는, 심지어는 우리들의 대화도 받아 들일 수 없는 허무함의 길을 생각할 수 없길 바란다. 이유없는 친구의 바램이야. 친구를 향한 이 친구의 부르짖음을 적어도 우린 마음 속의 한 길을 걷자는 것이다. 우리들의 손이 잡혀졌던 그 길을 영원한 우리들의 길다운 길이 시작됐으니까. 또 다른 친구의 부탁은 너무 짙은 향기를 마시지 말자는 것이다. 짙은 향기는 정서가 피로와 한다. 우리들의 마음이 향기 속에 녹아버려 닳아 버린다.

친구, 우리들의 길은 언젠가 울음지며 걸었던 설악산의 대청봉을 향한 그러한 길이어야만 한다. 우주 공간의 길을 걷기 위해선 자연 속의 대청봉을 향하는 땀방울이, 어려움이, 기쁨이 있어야만 하겠다.

친구야.

친구와 웃음지며 노래하던 이 길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지, 영원한 길이야.

〈중등부 산문 장원〉

들 국 화

진 미 랑
(설악여중·3)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먹구름 속에서 천둥은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지금 이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서 정주씨의 「국화 옆에서」를 몇 구절 적어 보았다.

들국화를 제목으로 받고 한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난 들국화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을이란 계절을 맞이한 지금으로서는 이 들국화라는 한낱 일개의 꽃이 이 가을을 대표하는 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온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이 지나고 정열의 계절이라 흔히들 말하는 여름이 또 아무런 흔적없이 지나간 이때 우리에게 가까이 온 가을은 우리에게 무척 많은 의미를 지닌다.

들국화!

우선 그 이름이 맘에 든다. 여러 집 화분에서 고이 길러지는 그런 국화가 아니라 들판에서 온갖 비바람에도 무릎 꿇지 않고 자라는 들국화라는 점이 맘이다. 그런 들국화이기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무엇인가 꽉 채워주는 뿌듯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연약함보다는 그런 굳건함이 더욱 믿음직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들국화라는 것은 우리네에게 더욱 쉽게 아무 거리낌없이 감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꽃이 아닐까?

만약 우리가 혹은 내가 화려함을 나타내는 꽃을 말하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이 '장미'를 꼽을 것이다. '장미'와 '들국화'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우선 그 겉모양새에서 풍기는 맛들이 각기 다르다.

장미를 불꽃처럼 타오르는 정열의 꽃이라 칭한다면 들국화는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모나리자라고나 할까. 이런 면에서 들국화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꽃이란 생각이 든다.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장미보다는 도리어 속으로 깊게 무엇인가 올바른 정숙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한국여성과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위에서 서정주씨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중에 우리 누나 같이 생긴 꽃이라는 싯귀가 나오고 있다. 서민적인 소박함과 화려하지 않은 수수함이 그 시인이 감동시켜 그 시를 쓰게 했으리라.

나는 미술시간에 수묵화를 배우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군자는 선생님의 설명대로 무엇이건 은은하게 풍기는 것이 있다. 사군자라고 한다면 겨울의 꽃 매화, 아무 치장도 않은 난초, 또 지금껏 말해 온 서민의 국화, 그리고 곧고 굳은 의지와 절개를 나타내는 대나무가 있다.

이중에서도 국화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 선뜻 '좋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소재다. 이런 옛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국화에서 나는 이 꽃의 서민적인 맛을 느끼게 된다.

들판에서 사람의 손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들국화가 어쩌면 우리 민족의 거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뽐낼 줄도 모르고 소박하기 만한 국화는 우리 겨레를 닮았다. 평화를 사랑하고 깨끗함을 자부하는 우리 한 민족의 거울, 국화를 앞에 놓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은 '들국화! 이 얼마나 경탄해 마지않는 우리 민족의 표상인가!'

〈초등부 산문 장원〉

바 다

남 현 주
(교동국교·6)

바다야!

얼마전에 있었던 KAL기 피격사건을 너도 알고 있겠지? 우리는 소련의 야만적인 만행에 치를 떨고 있어. 그런데 너는 슬프지도 않니? 너의 그 큰 입으로 우리의 비행기를 삼켜 버리고도 우리에게 내놓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

"아가야! 춥지?" 하며 쉐타를 너에게 던져준 아주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니?

바다야!

이제는 비행기와 사람들을 돌려줘. 너도 소련이 밉지? 그렇다면 시체라도 돌려 주길 간절히 비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줘. 그리고 돌려줘, 돌려주지 않는 까닭은 무엇때문이야? 우리가 너에게 폐수를 버리기 때문이야? 그 때문이라면 정말 미안해. 너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우리는 너를 더럽히기만 하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모두가 너를 더럽히는 것은 아니야. 이제 나부터 너를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할께. 나혼자 폐수를 버리지 않는다고 네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나같은 마음을 갖게 하려면 나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미영사진관에 6학년이 단체로 갔었는데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해서 청초호를 둘러보며 다녔는데 물은 매우 더러웠고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 있었어. 너에게도 무척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으나 물고기에게 더 사죄를 하고 싶었어.

푸른 바다에게 마음껏 헤엄쳐야 할 물고기가 자기만 아는 인간들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을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어. 아무 잘못도 없는 물고기가…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정말 고치도록 노력할께.

그러니 바다야!

우리의 동족과 비행기를 돌려줘. 너는 우리나라만해도 낙동강, 한강, 두만강등의 여러 자식들이 있으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일부분을 돌려보낸 것을 알고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을 돌려보내주기를 부탁하며 …….

東草文化院任員

顧　　問

직	책	성	명	주	소	직	위	전	화
고	문	鄭	在哲	서울 종로 청운동 89-96		민주정의당, 국회의원		723 – 1500	
	〃	許	景九	서울 종로 계동 135 4/6		민주한국당, 국회의원		763 – 1939	

諮　問　委　員

직	책	성	명	주	소	직	위	전	화
자	문	梁	鍾釋			속초시장		2 – 3171	
	〃	金	榮洙			속초교육장		2 – 3615	
	〃	姜	喆鎭			속초경찰서장		2 – 5280	
	〃	沈	在暾			속초지원장		2 – 2183	
	〃	崔	炳國			속초지청장		2 – 6611-3	
	〃	崔	在吉	속초시	교동 9/2	속초시번영회장		2 – 2570	
	〃	金	慧法	〃	설악동 170	신흥사주지		7 – 7044	
	〃	尹	基元	〃	동명동 15/6	동방원양회장		2 – 5084	
	〃	李	基燮	〃	동명동 5/4	의학박사		2 – 3278	
	〃	朴	夏榮	〃	동명동 6/4	전(前) 군수		2 – 2152	
	〃	韓	相甲	〃	노학동 244	동우전문대학장		2 – 6551	
	〃	金	鎔基	〃	교동 5/1	속초시노인회장		2 – 5112	
	〃	申	永澈	〃	동명동 7/2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장		2 – 3364	
	〃	韓	榮濟	〃	금호동 1/3	동해지구정치망협회장		2 – 2898	
	〃	南	圭哲	〃	대포동 3/4	삼해수산대표		2 – 8183	
	〃	金	遠鎭	〃	조양동 6/5	원성운수사장		2 – 3077	
	〃	朴	益勳	〃	교동 8/5	전(前) 중앙국민학교장		2 – 5468	
	〃	鄭	鍾勳	〃	중앙동 7/2	전(前) 온정국교장		2 – 3538	
	〃	車	鎭煥	〃	청학동 4/1	동우실업대표		2 – 3224	
	〃	方	孝根	〃	금호동 13/4	대건사대표		2 – 3332	
	〃	金	致龍	〃	금호동 1/4	유일택시대표		2 – 3747	

東草文化院任員

직	책	성	명	주	소	직	위	전	화
원	장	金	鍾祿	속초시	동명동 13통4반	충혼탑건립위원장 시정책자문위원회부위원장		32 – 1231 32 – 1556-7	
부	원장	金	鵬海	〃	동명동 450~39	속초시정화협의회부회장 문화인쇄사대표		2–2021·3411	
이	사장	李	虎舜	〃	동명동 14통2반	전(前) 상업고등학교장		2 – 3034	
이	사	安	國俊	〃	금호동 1통4반	국제인권옹호속초지부장 전(前) 수협장		2 – 3687	

직 책	성 명	주 소	직 위	전 화
이 사	李 承 周	속초시 교동 668-9	설 악 관 광 대 표	2 - 6200
〃	咸 泳 泰	〃 중앙동 473-13	전(前) 속초극장연합회장 현 대 슈 퍼 대 표	2-2204·3456
〃	張 憲 榮	〃 중앙동 11통2반	속 초 마 을 문 고 지 부 장	2-2510·5013
〃	金 練 澤	〃 금호동 482	태 일 상 회 대 표	2-4829·2116
〃	李 建 錫	〃 동명동 9통2반	속초시지방행정동우회장	2 - 3987
감 사	李 光 春	〃 교동 14통4반	평 통 자 문 위 원	2 - 3920
〃	池 一 權	〃 중앙동 4통4반	대 청 정 화 공 사 대 표 전(前) 한국일보기자	2 - 5100
사무국장	朴 永 道	〃 영랑동 131의8	속 초 신 협 홍 보 자 문 위 원	2 - 6658

運 營 委 員

직 책	성 명	주 소	직 위	전 화
운영위원	李 源 益	속초시 중앙동 1/3	유 신 냉 동 대 표	2 - 2462
〃	金 正 文	〃 청학동 10/3	대 명 기 업 사 장	2 - 3903
〃	許 璇 道	〃 청호동 444-54	동 해 택 시 대 표	2 - 3222
〃	李 明 傑	〃 교동	강 원 렌 트 카 사 장	2 - 2620
〃	崔 俊 圭	〃 청학동 3/3	해 원 노 조 위 원 장	2 - 6673
〃	金 亨 東	〃 설악동 170	설 악 관 광 (주) 대 표 이 사	7 - 7365
〃	李 揆 喆	〃 청호동	한 진 상 사 대 표	2 - 9366
〃	朱 洛 奎	〃 중앙동 3/3	저 인 망 협 회 장	2 - 2174
〃	金 麗 水	〃 동명동 466	경 향 공 업 사 대 표	2 - 2622
〃	朴 相 善	〃 중앙동 75-5	금 신 당 대 표	2 - 3020
〃	全 商 熙	〃 교동 6/1	토 건 업	2 - 2476
〃	高 榮 和	〃 영랑동	영 동 철 물 대 표	2 - 4310
〃	崔 林 虎	〃 조양동	농 업	2 - 3695
〃	李 泰 相	〃 중앙동	은 하 빌 딩 대 표	2 - 2241
〃	姜 信 友	〃 중앙동 468	황 해 식 당 대 표	2 - 3742
〃	金 季 年	〃 중앙동 468	조 경 사 대 표	2 - 2223
〃	吉 泰 柱	〃 중앙동	속 초 고 무 상 사 대 표	2 - 2369
〃	金 成 基	〃 설악동 2/1	낙 원 산 장 대 표	7 - 7159
〃	蔡 明 吉	〃 중앙동 1/3	사 법 서 사	2 - 2678
〃	金 大 源	〃 중앙동	서 독 안 경 원 대 표	2 - 8109
〃	黃 壽 福	〃 중앙동 2/6	민 정 당 부 위 원 장	2 - 2237
〃	朴 容 權	〃 설악동	신 흥 약 · 국	7 - 7025
〃	金 光 明	〃 청학동	성 심 정 형 외 과 원 장	2 - 5533
〃	全 泰 元	〃 동명동	인 심 의 원 장	2 - 3220
〃	崔 茂 一	〃 동명동 10/1	제 일 약 국	2 - 3844
〃	金 泰 善	〃 교동 6/5	낙 원 빌 딩 대 표	2 - 2040
〃	金 亨 洛	〃 교동 4/4	은 성 여 관 대 표	2 - 8004
〃	朴 世 教	〃 중앙동	속 초 의 원 장	2 - 2145
〃	尹 重 昊	〃 중앙동	중 앙 전 기 대 표	2 - 4303
〃	劉 明 哲	〃 중앙동 4/2	저 인 망 협 회 장	2 - 2289

직 책	성 명	주 소	직 위	전 화
운영위원	金 詰 燮	속초시 중앙동 4/2	제 일 라 사	2 - 2292
〃	韓 泰 根	〃 교동	J C 회 장	2 - 2658
〃	尹 昌 烈	〃 교동 17/3	광 파 전 업 사 대 표	2 - 4212
〃	李 元 植	〃 중앙동	고 성 양 행 대 표	2 - 2337
〃	최 경 순	〃 중앙동	황 금 상 회 대 표	2 - 3668
〃	白 永 一	〃 교동	중 앙 개 스 대 표	2 - 2550
〃	廉 根 鎬	〃 중앙동 5/4	동 해 라 사 대 표	2 - 2463
〃	沈 泰 燮	〃 중앙동	수 산 업	2 - 2903
〃	金 鍾 旭	〃 중앙동	대우전자속초직매장대표	2 - 2393

特 別 會 員

직 책	성 명	직 위	전 화
특별회원	尹 東 萬	영 랑 국 민 학 교 장	2 - 6214
〃	金 錫 年	중 앙 국 민 학 교 장	2 - 3347
〃	金 昌 南	속 초 국 민 학 교 장	2 - 4996
〃	崔 文 澈	교 동 국 민 학 교 장	2 - 3486
〃	崔 五 圭	온 정 국 민 학 교 장	2 - 3734
〃	金 永 順	조 양 국 민 학 교 장	2 - 3306
〃	金 台 煥	청 호 국 민 학 교 장	2 - 5294
〃	金 珣 卿	대 포 국 민 학 교 장	2 - 3843
〃	金 壽 鉉	설 악 국 민 학 교 장	7 - 7052
〃	李 澤 圭	속 초 중 학 교 장	2 - 4985
〃	申 元 均	속 초 여 자 중 학 교 장	2 - 3236
〃	金 鎭 邦	설 악 중 학 교 장	2 - 4992
〃	金 雲 天	설 악 여 자 중 학 교 장	2 - 4994
〃	李 承 根	속 초 고 등 학 교 장	2 - 4965
〃	崔 容 善	속 초 상 업 고 등 학 교 장	2 - 5171
〃	李 培 殷	속 초 여 자 고 등 학 교 장	2 - 3238
	金 聖 起	교 육 청 학 무 과 장	2 - 3023

東草文化院沿革

1965. 3. 22. 文化公報部長官 設立許可 社團法人 東草文化院 (法人登記 第2號)
設立者 韓 淳榮 (院長)

1970. 4. 30. 第1次 臨時總會開催 任員改選 院長 馬 長乾.

1974. 3. 27. 第1次 定期總會 開催 任員改選 院長 張 憲榮.

1975. 12. 2. 文化院廳舍新築 起工
東草市 永郎洞 570~5番地

1976. 6. 30. 文化院廳舍 竣工
1976. 12. 1. 文化院廳舍 束草市에 寄附 採納
1980. 10. 28. 圖書館 着工 (新築工事)
束草市 永郎洞 570~5番地
1982. 3. 9. 總會開催 任員改選 院長 金 鍾祿
1982. 7. 24. 社團法人 束草文化院
法人登記 變更申告 (第2號)
1984. 3. 20. '84年 定期總會 任員改選 現院長 金 鍾祿氏 留任

'84 主要事業實績

행사명	기간	장소	내용
제7회연날리기대회	2. 28	영랑동성황당산	높이날리기, 끊어먹기
청소년대상문화강좌	8.6-11	속초시일복문화관	문학(시, 소설), 전통, 무용, 음악, 미술, 연극
학생백일장	10. 3	속초국민학교	시, 산문(초, 중, 고)
민속경연대회개최	〃	속초중학교	농악 민속놀이, 가면놀이(13개동)
농악보급	9. 24	각동사무소	장사, 노학, 조양, 도문동 (4개동)
민속가장행렬경연대회	10. 3	속초중학교교정	영랑, 중앙, 청학, 동명, 금호, 청호, 교동 (7개동)
애향전단발간	10. 25 11. 25	각통반상회	박지의 효자각 (도문동), 유물재비(대포동) 2회 16,000부 발간(이 고장을 빛낸 인물발굴) 반상회를 통한 애향운동전개
향토지발간(속초문화)	8~12월	속초문화원	속초문화 창간호(4×6배판 1,500부 발행)

'85 主要事業計劃

행사명	시기	장소	내용
시지편찬발간	2~12월	속초문화원	속초시지(市誌)
제8회연날리기대회	1~2월	영랑동성황당	일반부, 소년부, 높이날리기, 끊어먹기
청소년대상문화강좌	8월	속초시일복문화관	무용, 시청각, 문학, 전통, 음악, 미술 연극
학생, 어머니백일장및사생대회	9~10월	영랑호반	학생, 어머니(시, 산문) 학생 사생대회
농악보급	9월	각동사무소	9개동 보급
민속가장행렬경연대회	5~10월	속초중학교교정	각 동 대항
향토지(속초문화) 발간	1~12월	속초문화원	창간호에 이어 2,3호 춘추로 발간(2회)
유적비건립	5~10월	속초시도문동	상도문리 오학자 유적비
전통민속수공예품수집	8~12월	속초문화원	전통민속자료 수집
전통민속예술경연대회	5~10월	속초공설운동장	전통민속 발굴경연

編 輯 後 記

○ 『東草文化』는 실로 오랜 難産끝에 탄생됐다. 開港이래 처음있는 일이라, 또한 傳統的인 鄕土文化의 뿌리가 별로 없는 고장이기 때문에 더 더욱 잉태기간이 길었다.

創刊號란 重壓感과 使命感이 앞선 탓인지 奇稿者들의 원고수집에도 애로가 많았으며 특히 地方人士들의 무성의탈까. 역시 둥잔밑이 어두웠음을 실감케 했다.

○… 다행히도 국립공원 雪嶽山과 東海를 끼고 있는 고장이므로 觀光文化圈의 資料가 풍부해 그럭저럭 紙面을 꾸밀 수 있었다.

본격적인 작업은 불과 1개월여 편집위원들이 제각기 직장일로 많은 시간을 쏟을수 없어 안타까왔으나 나름대로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愛鄕心에 불타는 情熱로 이 創刊號를 첫선보게 했다.

○… 年內로 『東草文化』를 발간해야겠다는 촉박감에 사로잡혀 발을 동동구르고 허둥지둥 했던 속사정을 누가 알까마는 어쨌든 『아마츄어』 文人들의 글이라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꼴이 되지 않았는지 독자들의 질책을 良藥으로 삼겠다.

○… 또 한 해가 저문다.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東草文化』의 탄생은 이 고장에서 처음 있는 慶事이며 큰 보람이다. 앞으로 年間 春·秋로 2回씩 발행키로 약속하면서 온 市民同參으로 이 고장의 喜悲哀樂을 함께 나눌 機會를 만끽함이 어떨는지-.

○… 끝으로 『東草文化』 誌 創刊號를 위해 애써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教育界 元老 韓 相甲 東草專門大學長님 朴 益勳 선생님의 옥고에 대해 더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權』

편 집 위 원

주 간	尹	弘	烈
위 원	池	一	權
	金	盛	文
	崔	龍	文
	金	鍾	圭
간 사	朴	永	道
사 진	崔	春	永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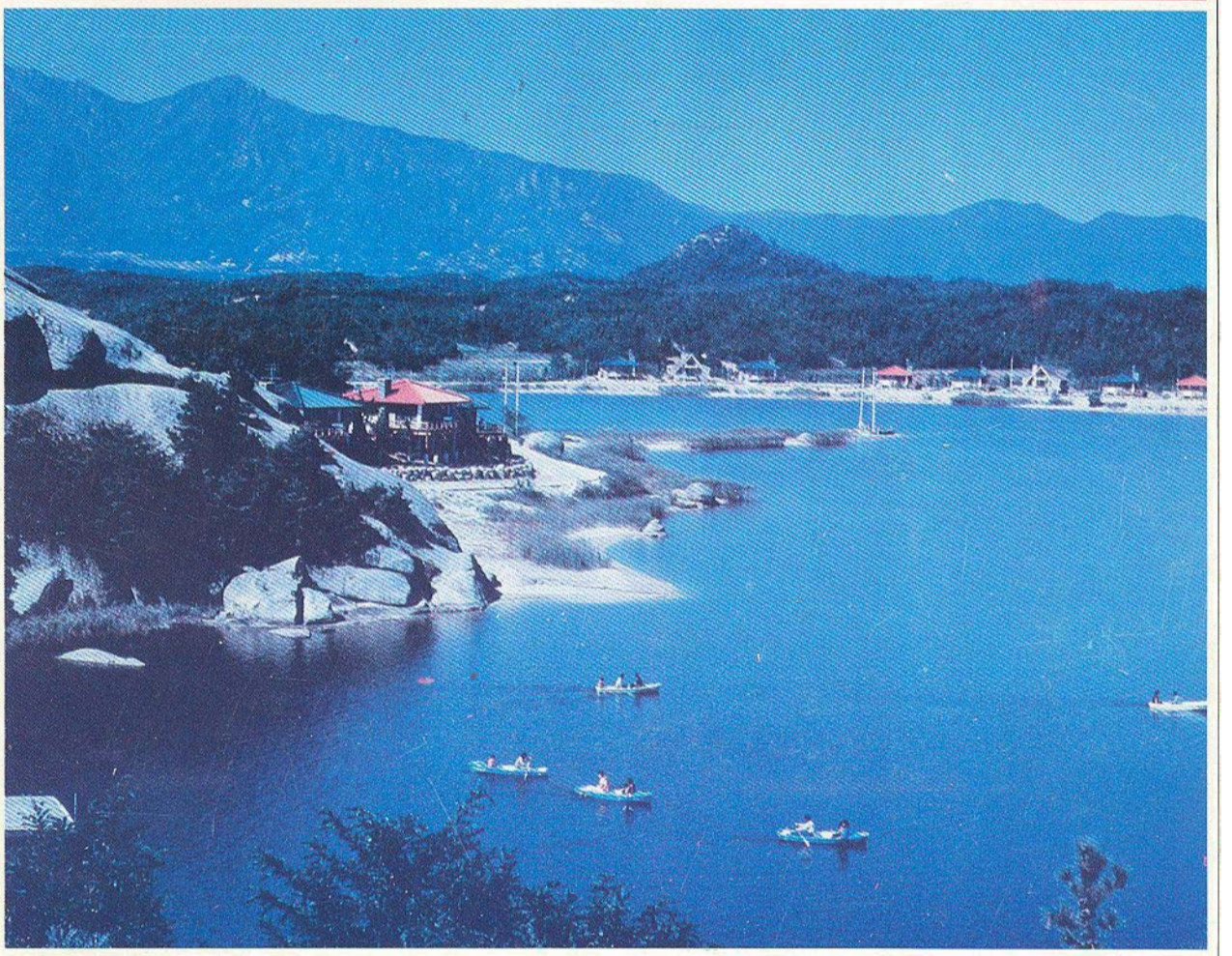
1984년 12월 20일 인쇄
1984년 12월 30일 발행

東 草 文 化
－ 創 刊 號 －

발행인 金 鍾 祿
편 집 編輯委員會
인 쇄 江原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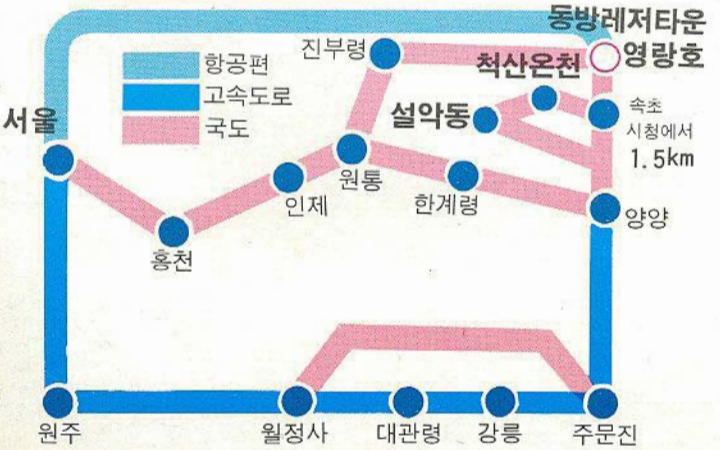
□ 本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읍니다.

"본격적인 동방종합레저타운의 시대를 펼쳐갑니다."



(株) 東邦遠洋開發公司
東邦湖山開發株式會社

회장 윤 기 원
사장 조 용 헌



한폭의 그림같은 맑은 호수 영랑호는 주변에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함께 있는 신비의 호수입니다.

동방원양(주)가 10년 전부터 호수 공원으로 개발한 아름다운 영랑호는 알프스의 맑은 호수를 연상시키며 주위의 송림과 기암은 호수의 풍취를 돋보여 줍니다. 동방종합레저타운은 영랑호를 에워싸며 이루어져 있어 도시의 공해와 격무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알맞는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참다운 휴식과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속초 영랑호수가의 낭만어린 동방종합레저타운에서 즐겨보세요.

부대시설

골 프 장, 골프연습장, 낚시, 테니스코트
전자오락실, 스넥바, 수퍼마켓
수 상 레 저 : 수상스키, 윈드써핑, 모터보트
모아보트, 젯트스키, 요트
수상싸이클등

동방레저타운은 레저만을 위한 완벽한 하나의 도시입니다.
레저타운을 찾는 순간부터 모든 고객은 방문기간 동안 조금도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각종 부대시설의 편의를 마음대로 이용하실 수 있읍니다.